

성남향토문화총서 ②

판교마을지

성남문화원

차례

발간사	5
차례	7
제1장 판교의 자연환경	9
I. 자연적 위치	10
II. 지질과 지형	15
III. 기후	19
IV. 면적	22
V. 판교의 지명유래	24
제2장 판교의 역사	27
I. 지방사(地方史)의 개념과 차료	29
II. 판교의 역사의 개관	37
III. 조선시대의 교통로와 판교	48
IV. 조선시대의 장시(場市)와 낙생장(樂生場)	53
V. 판교의 인물	60
제3장 판교의 생활과 문화	66
I. 판교의 의식주 생활	66
II. 세시와 놀이	83
III. 일상의례	101
IV. 판교의 민간신앙	120
제4장 판교 마을의 실태조사	129
I. 판교 마을의 개황	130
II. 판교 마을 개발의 문제점	141
III. 판교 조사 마을의 지역 특성	150
IV. 판교 조사 마을의 실태	156
전집 후기	168



▶ 출다리기를 하기 위해 말줄과 숏줄 사이에
공미를 깨우고 있다.



▶ 판교 1톤의 느티나무



▶ 제를 지낸 후 주민들이
소원을 밟면서 소치를
올리는 모습.



▶ 판교 마을의 가옥



▶ 북개 마을의 운송천



▶ 판교마을의 중심가

제1장

판교의 자연환경

I. 자연적 위치

1. 수리적 위치

성남시의 중앙에 자리잡은 판교는, '동경 $127^{\circ} 05'$ ~ $127^{\circ} 10'$, 북위 $37^{\circ} 20'$ ~ $37^{\circ} 25'$ '에 위치한다. 성남시와 비슷한 경도에 있는 곳은 '강원도의 철원, 경기도의 연천·평택, 충청도의 논산, 전라도의 보성' 등이고, 위도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지역은 경기도의 시흥과 강원도의 정선·평창·동해 등이다. 시의 중심부는 시의 중앙경선과 위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판교인터체인지에서 동북 방향으로 1km 정도 떨어진 삼평동(三坪洞)이다.

2. 지형적 위치

판교가 위치한 성남시는 태백산맥에서 분기된 광주산맥 지맥의 연장 지역에 위치하여 동북쪽의 김단산(金丹山: 535m)과 청량산(淸涼山: 480m), 동남쪽의 불곡산(佛谷山: 344m), 북서쪽의 인릉산(仁陵山: 327m), 서쪽의 청계산(淸溪山: 618m)과 광교산(光敎山: 582) 등의 자연적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성남시의 중앙을 관통하여 한강으로 흐르는 판천(漢川)과 그 지천(支川)들의 연안에 생성된 하천평야, 해발 100m 미만의 야산과 구릉지에 발달된 농경지는 성남시 1차산업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제3부 관교회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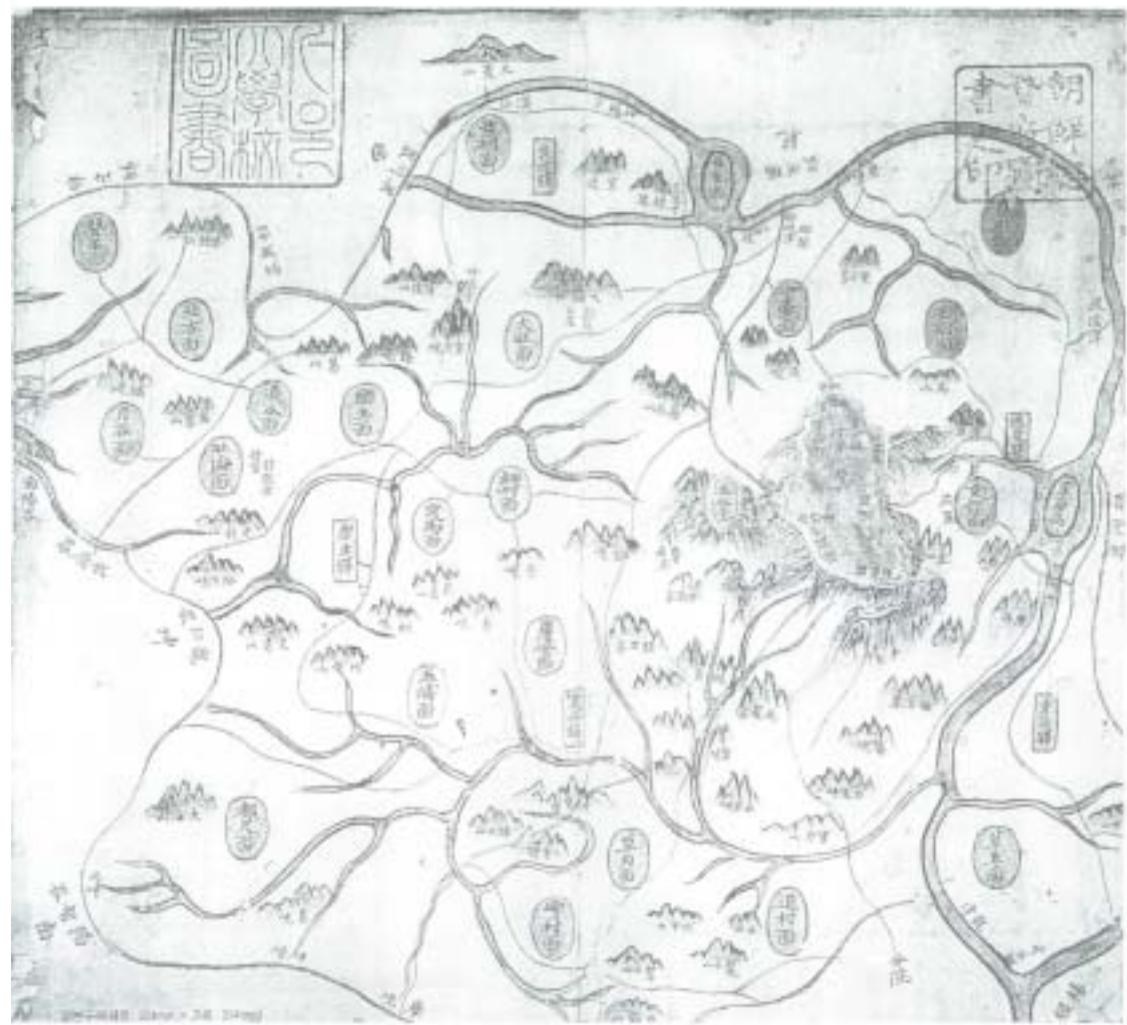
3. 상대적 위치

성남시는 동쪽은 광주군 중부면·광주읍과 하남시에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의왕시와 과천시, 남쪽으로는 용인시 수지읍과 광주면 오포면, 북쪽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강남구 등에 인접해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성남시는 서울과의 연계가 매우 밀접하여 서울의 인구분산적 기능을 가진 도시로서 성장하게 되었고, 분당에 신도시가 건설된 것도 이러한 지리적 위치의 결과로 생각된다. 실제로 성남시는 해당초 서울시에 의해 경기도 지역내에 대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위성도시를 육성하려 하였으므로, 서울에 경제·사회·교육·문화 등에 종속되면서 주민생활이 서울 지향적이고 서울의 주택지역화· 또는 공업지역화한 안양·부천·의정부·인천·수원·일산 등과 함께 대표적인 위성도시인 것이다.

한편 관교는 현재 '북쪽으로는 삼평동, 남쪽으로는 백현동, 동쪽으로는 시현동, 서쪽으로는 금토동'에 인접하여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낙생면(栗生面)에 속하였다. 1871년 편찬된 「광주부읍지(廣州府邑誌)」에 실려 있는 지도를 참고하면 낙생면(栗生面)의 위치는 '동쪽으로는 대왕면(大王面)과 세촌면(細村面), 서쪽으로는 의곡면(儀谷面)과 왕문면(旺文面), 남쪽으로는 둘마면(兔馬面), 북쪽으로는 과천과 시흥' 등에 인접해 있었다. 아울러 낙생면의 남쪽에는 역로(驛路)에 낙생역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서쪽에 행궁(行宮)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북쪽으로는 갈산(葛山)·첨계산(澗溪山) 등이 보인다.

4. 교통적 위치

성남시는 서울의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약 26km 거리에 있으며,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인 수원과는 약 20km, 안양과는 18km 떨어져 있다. 관교 인터체인지를 기점으로 북쪽으로 모도시(母都市)인 서울의 절대적인 영향을



조선시대 나세판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읍지와 지도

받으며, ‘남으로는 수원, 동으로는 평주(瀋州), 서로는 안양시’와 교통관계를 형성하였다. 1969년 개발 초기에는 서울 찬호동에 소재한 광진교가 성남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유일한 관문이었는데, 한남대교와 잠실대교의 개통되자 광진교 노선은 폐지되고 한남대교와 잠실대교를 통해 서울로 진입하게 되었다. 아울러 분당선 등 전철의 설치는 서울로의 황래를 더욱 용이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성남의 주민들은 전국의 주요 도시를 서울을 거치지 않고 잘 수 있게 되었고, 1991년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의 개통을 시작으로 판교~일산간의 도시외곽순환도로의 건설 등이 이루어져 서울과 별도의 독립된 교통망도 형성하게 되었다.

II. 지질과 지형

1. 지질

관교가 위치한 성남시의 지질은 경기지괴(京畿地塊)에 해당된다. 경기지괴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선캄브리아 시대의 순상지이며, 중국의 산동지괴(山東地塊)와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지괴를 구성하는 암석으로는 화강암질 편마암·호상 편마암·석영·흑운모 편마암·석회질 편암·각성암 등이 있다. 경기지괴의 북서부에 놓여있는 성남시는 경기 편마암 복합체로 알려진 지역중의 하나로, 대부분 선캄브리아 편마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성남시는 물론이고 관교 지질의 주요 구성암체는 호상 흑운모 편마암이며, 이것은 가장 오래된 시기 형성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시생대(始生代)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남시 편마암의 연령은 경기 편마암 복합체의 연령처럼 8억~29억년 정도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관교에는 호상 흑운모 편마암에 필적할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충적층이 탄천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하천변 저지대에서 이들의 충리는 대체로 수평에 가깝게 또는 기반암이 이루는 사면 보다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이 충은 제4기 이전의 암층을 부정함으로 피복하였으며, 구성암은 모래·첨토 등 쇄설물과 미량의 유기물 등으로 아직 고결(固結)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2. 지형

성남시의 지형은 절단산과 불곡산을 잇는 동쪽의 광주산맥 지대과 인릉산, 청계산·비라산을 잇는 서쪽의 능선으로 둘러싸인 분지형대를 이루고 있다. 분지는 일반적으로 폐쇄형 분지·U자형 분지·하곡지 관통형 분지 등으로 구분되는데, 성남시는 분지 중앙으로 탄천이 관통하고 있는 하곡지 관통형 분지이다. 따라서 탄천변에 있는 관교도 하곡지 관통형 분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남시는 많은 구릉으로 이루어진 구릉지 지형이므로 택지 개발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성남시의 특징중 하나인 고개가 많은 것도 이러한 구릉지 지형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남시의 중앙부를 관통하여 흐르다가 한강으로 유입되는 탄천은 그 양안에 넓은 충적지를 형성하여 펼야지대로 활용되고 있다.

▶ 해발고도 : 성남시는 구릉지를 이루는 지형이므로 해발고도별(海拔高度別) 면적 비율을 살펴보면 인접한 서울시에 비해 낮은 지역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진다. 특히 거주 공간으로서 유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100m 미만의 경우 서울시의 해발고도별 면적비율이 82.44%인데 비해 성남시는 32.37%이다. 따라서 해발고도 상으로 볼 때 성남시는 서울시 보다 개발에 약간은 불리한 지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경사도 : 지형을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의 하나인 경사도(傾斜度)를 볼 때, 성남시는 평지를 비롯하여 5° 미만이 전체 면적의 42.27%를 차지한다. 따라서 18° 미만을 토지이용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성남시의 경우 96.8%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거주지 선정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남 또는 남동 방향으로 경사가 있는 면적 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은 거주지 내에 각종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유리한 조건이다.

▶ 하천 : 성남시의 하천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동백리에서 발원하여 용인

군 수지면 풍덕천과 합류하여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경계를 이루며 한강으로 유입되는 탄천을 근간으로 하여 총 50개의 하천(총연장 84,310m)이 존재한다. 특히 탄천은 관교별을 지나 둔천동과 태평동으로 북류하여 복정교를 거쳐 서울의 가락동과 삼전동으로 흘러 한강에 유입되는 하천이다. 길이는 약 16 km이며, 『남한지』에 의하면 용인의 석성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장장포(莊莊浦)가 되고 광교산(光敎山, 582 m)을 지나 북쪽으로 꺾여 낙생면 즉 지금의 판교를 거치면서 헐천(腋川)이 되어 삼천도로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탄천은 대왕천(大王川)·금토천(金土川)·운중천(雲中川)·동막천(東幕川)·분당천(盆唐川)·야탑천(野塔川)·여수울내(翼水川)·대원천(大院川)·단대천(丹岱川)·독정천(讀亭川) 등의 지류(支流)를 모아 한강에 유입되고 있다. 탄천은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등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배수로(排水路)와 유원지(遊園地) 등 다목적 구실을 하고 있다. 성남시의 하천은 세천·소천·중천으로 나뉘어진다. 세천(細川)으로는 하폭(河幅) 5m·길이 2km의 오아리천을 비롯하여 안산천·동자천·외동천·삼거리천·금토천·시흥천 등이 있으며, 소천(小川)으로는 하폭 10m·길이 3km의 야합천을 비롯하여 창곡천·왜달천·분달천·장투리천·앞내천·하산천 등이 있다. 중천(中川)으로는 하폭 40m·길이 2.6km의 동막천을 비롯하여 분당천·여수천·운중천·단대천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세천·소천·중천이 합류 또는 독립적으로 탄천에 유입되어 한강으로 흘러 들어 갔으나, 분당 신도시의 건설 및 지하철·하천복개 공사 등으로 성남시의 세천은 물론 소천·중천도 유로(流路) 내지 천(川)의 형태가 상당히 변형되었다.

3. 토양(土壤)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토양자원의 생산성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성남시 지역의 토양은 산지(山地)와 농경지(農耕地)로 분

류된다. 산지는 그 지력(地力)이 중(中)에 속하는 삼급지(三級地)가 많고, 농경지에 절한 곳에는 이급지가 가끔 있어 전체적으로 지력(地力)이 비교적 좋으므로 조림(造林)이나 파수재배가 적합하다. 농경지는 양토(壤土)·사양토(紗壤土)·세사양토(細沙壤土)·미사질양토(微沙質壤土)로 나눌 수 있고, 농경지의 지형(地形)은 하성평탄지(河成平坦地)·곡윤지(谷潤地)·홍적대지(洪積台地)·구릉지(丘陵地)·산록경사지(山麓傾斜地)로 세분할 수 있다. 성남지역의 농경지 토양은 대체로 곡윤·하성충적층(河成沖積層)·봉적층(崩積層)을 모재(母材)로 하여 형성되었다. 그런데 곡윤·하성충적층에서 생성된 토양은 양토·사양토·세사양토·미사질양토의 곡윤지 및 하성평탄지는 유효토심(有效土深)이 비교적 깊은 편(50-150cm)이나 배수토양은 크게 양호한 편이 못되며, 홍적층(洪積層)·봉적층(崩積層)·잔적층(殘積層) 등에서 생산된 사양토·세사양토·양토·산록경사지·하성평탄지는 유효토심이 대체로 얕은 편(20-100cm)이면서, 토양배수는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성남 지방의 농경지는 그 토양의 가능 및 고온다습한 기후와 상대적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벼·보리의 재배보다는 원예재배(園藝栽培)의 적격지(適格地)이다.

III. 기후

1. 기온(氣溫)

성남시는 비교적 바다에서 거리가 먼 내륙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주 산맥의 지맥(支脈)인 검단산과 청계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이므로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현상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의 연평균 기온은 11.7°C 로 부산지방의 13.6°C 보다는 약 2°C 가 낮은 편이지만, 서울과 인천의 11.1°C 보다는 약간 높다. 한편 1947년부터 1976년간의 성남 지방의 평균 최저 기온은 -16°C 로 인천 보다 조금 높으며, 평균 최고 기온은 31.4°C 로 전주 및 광주와 같다. 이 수치는 성남시의 지리적 조건 등을 감안할 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장기 기록상으로 볼 때 겨울은 비교적 추운 편이며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의 차이가 대구지방에 비교될 정도로 크다.

2. 강수량(降水量)

성남시의 평균 강수량은 장기적인 통계에 의하면 1383.9mm로 전국의 평균 기록 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성남시는 호리거나 비오는 날이 많은 지역이다. 1월이 18.2mm로 가장 건조하고 점차 증가하여 7월에는 354.9mm로 최고를 이루다가 점차 감소하는데, 6·7·8월에 내리는 750여mm는 이 지역 1년

강우량의 50%에 육박한다. 이처럼 전조기(乾燥期)와 우기(雨期)의 차가 심한 원인은 남북의 양대 고기압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대체로 주민생활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또 증발량(蒸發量)도 년평균 1,116mm로서 이 지역 강수량의 약 72%에 해당하므로 여름에는 비교적 다습한 편이다.

3. 바람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우리 나라 전역(全域)은 계절마다 2대 고기압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 하나는 9월 하순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다음해 1월을 고비로 4월 하순까지 이르는 한랭전조(寒冷乾燥)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4월 하순부터 진출하기 시작하여 10월 하순경에 물러가는 고온다습(高溫多濕)한 해양성고기압(海洋性高氣壓)의 영향이다. 이러한 기후배치로 인하여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및 동고지방에서 발생한 대륙성고기압권이 북태평양에 발달하는 저기압권을 향해 이동하는 서풍 내지 북풍이 많이 불고, 반대로 여름철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완전히 소멸되고 대륙내부의 고온으로 저기압권이 형성되는 반면에 북태평양기단이 우세하여 동고서저(東高西低)의 기압배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동풍 내지 남풍이 많이 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풍향은 각 지방의 산세(山勢)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가을과 겨울철에는 서북풍, 봄과 여름철에는 동남풍이 대종(大宗)을 이루고 성남지역도 이에 준한다. 즉 성남지방의 풍향은 봄과 여름철에서 발생하는 온냉전습(溫冷乾濕)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겨울에는 서북서풍 내지 북동풍이 많고,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남서풍이 많다. 풍속도 풍향과 마찬가지로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아 도서지방(島嶼地方)이 가장 강하고 다음이 해안지대이며, 내륙지방은 비교적 약한 편이다. 그리고 연중 풍속이 가장 강한 시기는 12월에서 4월까지 5개월인데, 이는 겨울철의 계절풍(季節風)이 여름철의 계절풍보다 우세함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년평균(年平均) 풍속

(風速)을 보면 유품도가 가장 강하고 중간전(中江鎮)이 가장 약한데, 성남지역의 평균 풍속은 2~3m/sec로 전국 평균치이다.

4. 일조시간(日照時間)

일조시간의 질로 짧음은 기온과 농작물의 생육에 크게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에서 일조시간이 가장 긴 지역의 경우 평균 일조시간이 2600시간에 달하는데, 성남 지역의 평균 기온은 2014시간으로 전국의 평균시간 보다도 훨씬 짧다. 아울러 겨울철에는 더욱 짧고 여름철에는 약간 긴 편인데, 이는 계절풍의 영향과 함께 동시에 각각 해발 500-600m의 산지(山地)가 성남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5. 기타

이밖에 성남지역의 기후 현상으로는 안개가 年 20일 내외간 하며, 대체로 봄과 가을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뇌우일수(雷雨日數)는 10일 내외로 8.9일에 가장 많다. 연평균 초설일(初雪日)은 11월 20일경이고, 종설일(終雪日)은 3월 20일 경이므로 적설기간(積雪期間)은 120일 이상이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건조기이어서 눈이 오지 않는 날이 많다. 아울러 10월 15일경이 초빙일(初冰日), 4월 15일이 종빙일(終冰日)이므로 결빙일수는 연평균 110일 정도이다. 또 서리는 처음 내리는 날이 10월 말일 경이고, 마지막으로 서리가 내리는 날은 3월 말경이므로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은 200일 정도이다.

IV. 면적(面積)

1980년 말 통계를 통해 성남시의 동별(洞別) 면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명	총면적(km ²)	동명	면적(km ²)
신흥 1동	0.32	신흥 2동	0.97
신흥 3동	0.30	태평 1동	1.44
태평동	0.83	태평 3동	0.34
수진 1동	0.76	수진 2동	0.39
성남동	1.88	중동	0.68
단대동	1.37	단대 2동	0.74
단대 3동	1.03	은행 1동	0.11
은행 2동	3.75	상대원 1동	5.62
상대원 2동	1.85	상대원 3동	0.28
복성동	6.77	문당동	14.61
이태동	10.96	여수동	12.85
신촌동	4.96	고등동	12.92
시흥동	14.49	판교동	8.98
금곡동	14.52	운중동	18.38

성남시 각 동의 면적은 그동안 다소의 변화가 있었겠지만, 각 동의 인구는 면적 보다는 개발이 되었느냐와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개발된 신흥동·태평동 등은 토지 면적이 개발이 안된 지역에 비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동민(洞民)의 수는 개발이 안된 곳의 수십배에 달한다. 예를 들면 80년 당시 개발로 인하여 사람이 밀집한 곳인 태평 3동은 면적이 0.34km²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44,197명인데 비해, 개발이 안된 관교는 면적

이 8.98㎢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602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도시동(都市洞)에 비해 판교 등 농촌동(農村洞)은 아직도 농촌취락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적은 인구로 생활함으로서 도시동과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V. 판교의 지명유래

판교는 현재 1·2·3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1동 너더리(판교) 마을이 바로 주막거리와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판교원(板橋院)과 낙생역(樂生驛)이 있었고, 2동은 너븐바위(廣岩) 마을으로 연안이씨 등 양반이 거주하였다고 하며, 3동은 1980년경부터 중소공장들이 입주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판교의 지명 유래와 관련하여 일반지명과 산과 강의 지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지명

▪ **판교(板橋)** : 판교 앞을 흐르는 운중천에 널빤지로 다리를 놓고 다녀서 '널다리'라고 부르다가 '너다리'로 변했다. 이것이 한자로 표기된 것이 판교이다. 판교라는 명칭은 『태조실록』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1396년(태조 5) 이전에 있었다.

▪ **낙생(蠻生)** : 낙생이라는 지명은 백현동 앞에서 멀렸던 낙성시장(落城市場)의 낙성이 낙생으로 변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또 병자호란 때 충청감사 정세규(鄭世規)가 날한산성에서 철군에게 포위된 인조를 구원하기 위해 진격하다 험천(險川)에서 적의 기습을 받아 좌영장(左營將) 최진립(崔鎭立)과 우영장(右營將) 심일민(沈逸民) 등과 힘껏 싸웠지만 패배하자, 그 소식을 듣고 날한산성에 있었던 왕이 항복하였기 때문에 낙성이라고 불

렀다고 한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주목조에 나와있는 '고려 충정왕 때 이곡(李穡)(1298-1351)의 기문(記文)에 1349년 4월 고향가는 길에 낙생역에 이르니'라는 기사를 감안하면, 낙생이라는 지명은 고려때부터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 **가내바닥률** : 판교 2동 앞뜰, 공장, 양개단지가 들어섰다.
- **네븐바위** : 판교 2동에 있는 바위. 마을 근처에 넓은 바위가 존재했기 때문에 유연한 명칭이다. 현재는 바위 위에 집을 지어 도로에서는 일부만 보인다.
- **뉘에머리풀** : 판교 2동 하산운동과 판교동의 경계를 이루는 뉘에 관이 뻗은 산 끝.
- **느티나무계** : 판교 2동 연안 이씨 선대가 심었다는 수백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 곳.
- **망곡터(望哭壠)** : 국상(國喪)이 났을 때 예의를 하던 곳. 소방서 옆으로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 **도당터(磉선제터)** : 판교 동쪽 약 500m 지점의 마을 제사를 치내던 곳.
- **물방앗거리** : 판교 동북간 300m 지점으로 예전에 물방아가 있던 곳.
- **수용소** : 6.25 당시 피난민이 임시 거주했던 곳.
- **의식곡(衣食谷)** : 뉘에머리산 뜻미처에 집이 있었는데, 연산이씨가 살던 곳.
- **이문(里門)** : 마을 문으로 입구문과 출구문이 각각 있었다.
- **장터거리** : 판교서 분당가는 길 약 112m 지점에 옛날 장이 섰던 곳.
- **초적재(草績載)** : 낙생중학교 옆뜰.
- **화랑모계** : 판교 계일 아래 산너머에 주막이 있었는데, 주모가 죽어서 묻은 곳이라 불여진 이름이라 한다.

2. 산해(山海)

- ▶느리고개 : 관교 남쪽에 있는 고개. 삼남지방서 관교 쪽으로 들어오는 고개.
- ▶원너메고개 : 관교 북쪽에 있는 사물로 가는 고개.
- ▶미티골 : 관교 북쪽의 전답과 산야로 이루어진 골로 미티골이라고도 칭한다.
- ▶비석골 : 일명 비샘골이라 하는데 연안 이끼 묘의 비석이 있어 부르게 된 지명이다.
- ▶탄천(炭川) : 지금의 태평동·수진동·신흥동 일대인 탄리(炭里)와 남영(南詠)의 호인 단수(炭叟)의 명향으로 탄천으로 이름하였다. 하지만 일설에는 탄천이 숯내가 아니라, 개울이 여름이면 큰 홍수로 인하여 부근 농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으므로 농민들에 크게 탄식하였다 하여 탄천(炭川)이라고도 불리었다 한다.
- ▶운중천 : 관교 앞을 흐르는 개울.

제2장

판교의 역사

지방자치체의 발달에는 지방문화의 발전이 필요하며, 지방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상을 잘 보여주는 지방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요청된다. 왜냐하면 지방사 연구 업적은 지방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 설정과 사업계획에 바탕이 되고, 특색이 있는 지방문화의 건설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방사 연구는, 그 동안 역사연구가 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사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것으로 취급됨으로서, 구체적인 생활의場인 지역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미약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판교의 경우 앞으로의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역사유적이나 전통문화가 제대로 보존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교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여기에서는 먼저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방사 편찬과 관련하여 첫째 지방사의 개념과 자료를 살펴본 후, 둘째 판교의 역사적 개관, 세째 교통의 요지인 판교의 특성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교통로 및 관교원과 낙생역을, 넷째 임진왜란 전후 상풍화폐경제의 발달 및 시장권의 확대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장시와 낙생장을, 다섯째 판교의 인물에 대하여 판교의 성씨와 인물 및 중종반정(中宗反正)과 경국공신(靖國功臣) 이곤(李坤)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판교의 역사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하겠다.

I. 지방사(地方史)의 개념과 자료

1. 지방사의 개념

우리는 서구와 같은 지방 분권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지방의 역사적 전통은 군현을 단위로 한 행정구획을 중심으로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그러한 사실은 조선시대 읍지의 편찬 등에서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앙 중심의 역사연구를 지향하고 국가를 단위로 하는 일반사의 편협성 및 문헌해독의 방법론을 비판한 프랑스 아날학파의 영향 등으로 우리 학계에서도 지방사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에 들어 활발해졌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방 분권을 확립하기 위해,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으므로 지방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광 도·시·군 등에서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 교장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함으로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에 대한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의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지방사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시·군사(市·郡史) 등에 대한 대대적인 편찬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신도시 건설을 앞둔 관교의 역사를 살펴보는 작업 역시 그러한 의도와 함께 사라질 위기에 있는 역사 유물·유적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있다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기존의 지방사 연구는 향토사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향토사가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지방사의 의미와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90년대 이후에는 전공자들이 지방사 연구에 많이 참여함으로서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성과가 축적되게 되었다.

이렇게 지방사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많은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방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우선 지방사의 개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사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하나는 지방사와 향토사·지역사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사와 지방사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지방사와 향토사·지역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사는 향토사 또는 지역사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비록 엄밀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향토사·지역사·지방사의 개념을 구분하여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향토사는 향토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 고향의 역사에 대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한 아마추어 연구자들의 지역사 연구의 경향을 지칭하는 말이다. 반면 지방사는 타지역의 인구자까지도 포함하여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향토사와 구별되며, 지방이라는 용어는 중앙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역사적으로 일정한 독자성과 개별성을 확보하고 있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단위를 의미한다. 아울러 중앙의 연구는 일반적 도형을 도출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지역을 제한하고 문헌사료와 역사이론에만 의지하지만, 지방사는 실제 역사가 전개된 지역을 생생하게 서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성이 돋보인다. 한편 지역사에서는 지방은 중앙에 종속된 개념인 반면 지역은 독립성을 지니므로 지방사라는 용어 대신 지역사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지방은 국가를 넘어서는 단위의 설정이 어려우나, 지역은 국가의 경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범주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지방사와 지역사의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서울은 수도로서의 경도(京都)와 지방으로서의 한성

부(漢城府)의 의미를 광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사라는 의미가 종속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다 한편 지역연구는 창조적인 세계관의 형성이라는 궁정적 측면도 있지만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한 나라에게 여전히 과거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통사 등 일반사와 지방사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사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각 분야의 일반성과 일부의 사건만을 취급하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역사이며, 대체로 지배층 중심의 부분적인 역사 및 평균화된 사회·경제의 동향이 서술되고 있다. 반면 지방사는 특정 지방의 전체사 즉 지방공동체의 기원·성장·해체를 연구하는 역사를 말한다. 즉 어느 지방의 정치구조·토지의 소유정도·수확량·친족제도·인구·의식주·제시놀이·일상의례·민간신앙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전체사로서의 개념을 가지며, 특정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구조 등이 긴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조사·분석한다. 그리하여 지방사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풍부하고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민들의 생활사를 중심으로 조상들이 어떠한 생활을 영위하였는지 재구성하고 복원함으로써, 현재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자존심과 자선감을 일깨울 수 있다. 따라서 지방사는 연구대상 지역을 크게 축소시켰지만, 인구 대상자와 자료의 수는 엄청나게 확대시켰다. 그 결과 지방사 연구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연구 대상 지역의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향토사가와의 협력을 필요하게 되었다. 지방사가는 문헌사료는 물론이고 비문현자료까지 활용하기 위해 현지조사가 병행되며, 이를 위해서는 고고학·민속학·지리학·경제학 등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였다. 결국 지방사는 개인이나 부분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집단적인 인간 즉 전체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사는 정치사를 과소 평가하여 정치가 인간에 미치는 역할을 간과하였으며, 지방사가의 대부분은 매우 작은 범위로 각종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서 지방사가 추구한 전체사의 상을 추출해내는 데에 실패하였는 비판도 있다.

2. 경기 지방사 연구의 자료

경기 지방사 연구의 자료를 '조성을,' '경기지방의 지방사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대기로서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신라본기」·「고구려본기」·「백제본기」 및 「자리지」·「직관지」·「열전」을 비롯하여,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이」·「답상」, 『고려사(高麗史)』·『고려사전요(高麗史節要)』·『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비변사등록(備邊司鹽錄)』·『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일성록(日省錄)』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삼국사기』 「자리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자리지도로, 군현의 역사적 위치 비정과 연혁 및 소속 관계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분량이 적어 내용이 소략하며 후대의 자리지와는 달리 인물·산물·조세·교통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기 전에는 한강 유역이 백제지역이라는 사실을 빠뜨린 문제점 등이 있다. 『고려사』 「자리지」 역시 군현의 연혁이나 소속관계 등에 중점을 두었는데, 『삼국사기』에 비해서는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은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자리지도 1484년(성종 17) 편찬되었으며, 1530년(중종 25)에 완성된 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다. 『동국여지승람』은 1424년(세종 4) 각 도로 하여금 각 읍의 '연혁·산천·경역·성곽·교통·목장·토산물·고적·민속' 등을 조사하게 한 것. 세종 14년 『팔도자리지』를 기초로 하여 1454년(단종 2년)에 만들어진 『세종실록』 자리지, 양성지가 1411년(성종 9년) 완성한 『팔도자지』 및 산천과 군현의 연혁 등을 기록한 『동국승람』 등이 기초가 되었다. 아울러 경기지역에 관한 자료는 경기라는 제목 아래 경기지역 여러 군현이 개별적으로 실려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증보된 부분에 '신증'이라

는 표시를 하여 원래 『동국여지승람』의 내용과 구별하였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천지연혁·성씨·형승·풍속·산천·봉수·궁실·누정·학교·역원·교량·시가·사찰·사묘·고적·명환·인물·계영’ 등 21개조의 항목을 두었으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조선전기까지의 지리지 편찬작업은 단순히 자료의 수집과 체계적 정리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고, 비판적인 연구는 조선후기에 들어서서 가능하였다. 우선 조선후기의 역사자리서로 한백겸에 의해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가 저술되었는데, 우리 고대 국가의 영역 및 자리 비평 등에 중점을 두었다. 치밀한 고증에 의한 자리 연구의 효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유흘원은 1656년(宣智 7)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를 편찬하였는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성격이지만, 『동국여지지』를 통해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각 지역의 변화된 상황을 살필 수 있다. 『동국여지지』는 『동국여지승람』에 비해 실용성과 개척의 편경에서 서서 지역 위주로 문제를 파악하여 그 실상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려 하였고, 단순한 자료의 수집과 나열이 아니고 치밀하게 고증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삼국사기』·『고려사』·『치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문제점을 조리있게 비판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사에 대한 비판적 연구의 효시가 되었으며, 16세기 이래 활성화된 읍지 편찬의 성과 및 『동국지리지』의 역사지리학과 문헌고증적 태도를 종합한 특징이 있다. 『동국여지지』에서 경기도와 관련된 기사는 권2 경기 부분에서 개별 군현으로 나뉘어 실려 있으며, 『동국여지지』를 통해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경기 지역의 변화를 암수 있다. 한편 조선후기에는 실학의 연구실파를 반영하면서 편찬지리서의 편찬도 아울러 행해졌는데, 『여지도서(輿地圖書)』·『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여지고(輿地考)』의 간행이 바로 그것이다. 『여지도서』는 1757년(영조 33) 조선전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군현의 읍지를 모아 하나로 뛰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경기 지역 여러 군현의 읍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현존하는 『여지도서』는 정조 초의 기사도

있으므로 영조대 편찬 이후에도 다소의 증보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동국문헌비고』(여지고)는 1770년(영조 46) 편찬된 이래 정조와 순조 때의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 1831년(순조 31) 『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東國文獻備考)』라고 하였다가, 고종때 다시 보완을 거친 후 1908년(순종 2)에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라는 명칭으로 간행되었다. 1770년(영조 46) 이전의 기사로서 빠진 것을 보완하여 續이라고 표시하고, 그 이후의 사실은 續이라 표시하였다. 『증보문헌비고』에 실린 「여지고」는 주제별로 항목을 정한 뒤 각 주제에 대해 개별 군현의 기사를 실었는데, 주제별로 각 지역을 비교하기는 좋지만 한 지역을 한꺼번에 알기는 불편한 단점이 있다.

한편 경기 지역과 관련된 지리서로 18세기 유통경제의 발달과 관련하여 『태리지(採里志)』가 편찬되었다. 이중환이 편찬한 『태리지』는 종래 군현 단위로 파악하던 방식을 벗어나 도를 하나의 경제 단위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한 도 내의 각 지역을 유통경제와 관련, 상호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군현 단위를 넘어서 몇 지역을 유통과 관련하여 상호 연결해 유통권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당시 유통경제에 대한 일종의 연구서라고 할 수 있으며, 경기지역과 관련된 기사는 「팔도총론」 부분에 있다. 이율러 정약용의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국가의 강역이나 국도의 위치 비정 등과 관련하여 치밀한 고증을 하였고, 「팔도연혁총서」(상,하), 「북로연혁」(속)과 같은 항목을 두어 팔도에 대해 각각 그 역사적 연혁을 세밀하게 정리하였다. 과거의 국가나 국도 등을 대상으로 연혁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지역을 놓고 그것의 역사적 연혁을 체계적으로 치밀한 고증에 입각해 다루었다는 점이 돋보인다. 경기에 관련된 자료는 『아방강역고』 권3 「팔도연혁총서」(상)에 실려 있는데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나누어 보는 관점이 나타나 있고, 경기남도를 엣 마한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사를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 정약용의 『경세유표』 권3의 「천관수계」 가운데 군현분례(郡縣分隸) 항목에서는 지방제도 개혁을 논하였다. 즉 8도를 12도로 세분하였으며 경기도 등 각 도 행정구역의 개조점을 주장하였고,

도의 기능을 대폭 축소시키고 몇 개의 군현을 묶어 각 도의 중심적 주들이 나누어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당시 몇 개 군현이 상호 유통망을 형성하여 하나의 지역적 시장권을 형성하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 16세기 이래 각 지역에 대한 읍지의 편찬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판도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 등은 정부의 차원에서 각 군현을 종합하여 전국적 파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읍지는 민간에서 개별 군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간(私撰) 읍지(邑誌) 중에는 경기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많았다.

이밖에 「연려실기술」과 같은 애사(野史) 및 개인 문집에서도 경기 지역과 관련된 자료가 많은데, 정조의 「홍제전서(弘齋全書)」, 제재공의 「번암집(樊菴集)」, 정약용의 「여유당전서(與留堂全書)」, 우하명의 「천일록(千一錄)」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아울러 경기지역 금석문(金石文)을 정리하여 번역한 「경기금석대관(京畿金石大觀)」이 1982년부터 1994년에 걸쳐 총 7권으로 진행되었고, 경기도에서 「향토사료집」 1-4(1986-1989), 「향토유적총람」(1987), 「경기문화재대관」(국가지정편, 1989) 등의 자료집도 간행되었다. 더욱이 경기도사편찬위원회에서는 1998년 「경기도사자료집(京畿道史資料集)」을 간행하였는데, 5권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1권은 「고대편」과 「고려편」 1으로써 「고대편」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지」, 「구당서」, 「신당서」, 「일본서기」, 금석문 등이 역주되어 원문과 더불어 실렸고, 「고려편」 1에는 「고려사필요」와 「고려도경」이 수록되었다. 제2권은 「고려사」 2로서 「고려사」 세가가 실리고, 제3권은 「고려사」 3으로서 「고려사」의 「제」, 「표」, 「열전」이 수록되었다. 「경기도사자료집」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비교적 충실히 역주작업이 되었고, 추후 간행 예정인 제4권은 「고려사」 4로서 고려시대와 관련된 '문법·금석문·고문서·고려편 연표' 등을 수록하기로 계획으로 되어 있다. 또 개별 시군 차원에서 간행된 자료로는 시흥군의 「시흥금석총람」(1988)과 여주 문화원의 「여주금석대관」(1994) 등이 있다.

한편 근현대와 관련된 자료로는 해방 이전 및 이후의 자료가 있는데, 신문

은 국가의 공식적인 연대기를 대신하였다. 개항기와 계몽기의 신문으로는 판보인 한성순보, 민간신문으로는 독립신문·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 그리고 3·1운동 이후의 동아일보·조선일보 등이 있다. 해방 전시기의 경기도와 관련된 단행본 자료로는

- 酒井政之題, 1914, 「발전하는 수원」
(), 1915, 「華城之影」, 일본 대관
鮮文, 1915, 「淸成殿冊부 인천」, 조선신문사
(), 1925, 「수원」, 일본 대관
경기도, 1925, 「경기도에 글집」
만선연구회, 「조선지도읍과 경계」
조선부업협회, 1929, 「경기도 삼공안내」
조선상공인연구회, 1929, 「경기 상공인 대감」
조선총독부, 수원군편, 1929, 「생활실태조사(其一)」
김학동, 1929, 「조선지도 읍지」, 조선박물사
조선 금융조합 연합회, 1929, 「조선 금융조합사」
경기도, 1941, 「교육과 종교요람」
경기도, 1943, 「경기도요람」
先生永助, 1943, 「조선성씨와 동족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해방 이후의 연대기적 자료로는 2차 사료인 '동아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중앙일보' 등이 있으며, 1차사료인 도청 및 각 시군에서의 행정과 관련하여 발간한 공문서와 주요 민간단체의 자료는 제대로 보존 정리되지 않았다. 그밖에 경기도사편찬위원회에서는 원래의 자료 일부와 2차 자료인 경인일보·조선일보 등 신문에 근거하여 근현대사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여 1995년 경기도사자료총서1로서 「경기도사자료집: 1982-1985」을 간행하였으며, 개별시군 차원에서는 수원문화원에서 1996년 「한달일제하 수원기사색인」(이승언 저)을 간행한 바 있고, 해방 후 각 시군에서 간행된 시사(市史)·군사(郡史) 등도 비록 2차적인 것이지만 근현대사의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II. 판교의 역사적 개관

판교의 명칭은 판교 앞을 흐르는 운중천에 달빤지로 다리를 놓고 다녀서 '널다리'라고 부르다가 '너다리'로 변했고, 이것이 한자로 판교로 표기된 것이다. 『태조실록』·『태종실록』을 비롯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을 살펴보면 판교라는 용어는 1396년(태조 5)에 이미 사용되었으며, 판교는 조선 시대까지 경기도 광주에 속했다가 1973년 성남시 판교동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판교의 역사적 개관에 대해서는 광주와 주로 연관을 맺으면서 구석기시대부터 현대까지 살펴보려 한다.

1. 구석기·신석기시대

구석기시대는 인류가 지구상에 최초로 등장한 시기로 한반도에서는 약 70만년경 전에 인류가 등장하였다. 구석기인들은 수렵과 채집 등의 경제생활에 의존하였고, 도구는 맨손기를 사용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존재하는 구석기문화가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증함으로서, 일본문화의 우수성·광구성·선진성을 증명하면서 한국문화의 후진성·열등성을 강조하려는 식민사관을 수립하기 위해 일본인 학자에 의해 한국의 구석기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 환경복도 울기군 굴포리와 충청남도 공주군 석장리 등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됨으로써, 일제의 식민사관에서 내세웠던 한반도 구석기 부재론을 허위임이 밝혀져, 우리도 오랜 역사

와 문화를 가진 민족임이 입증되었다. 경기도에서도 연천의 전곡리 등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굴되었다. 하지만 판교에서는 아직 구석기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판교는 한강 하류지역에 가깝고, 성남의 중심부를 흐르는 한천 하류의 가락동·역삼동에 구석기 유적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교에서도 구석기인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중석기의 대표적 유물인 세석기(細石器)가 일부 지역에서 소량으로 발굴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후기 구석기인들은 날씨가 따뜻해지자 사냥감을 따라 북으로 이동함으로써 한반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미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다가 신석기인이 들어와 정착하는 가운데 지금에 이르렀고, 신석기인을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구석기 유물은 물론이고 구석기와 신석기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석기 유물이 보다 많이 발견된다면, 신석기인이 우리 민족과 문화의 기원이라는 주장은 변경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인 판교의 발굴 성과가 기대된다.

한편 간석기를 사용한 신석기 시대와 관련해서는 「판교-구리·신갈·반월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충북대학교 박물관, 1987) 등을 참조하면 성남시 삼평동 등에서 빗살무늬토기가 발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판교 지역에서도 신석기인이 살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빗살무늬토기의 제작은 임여생산물의 저장이나 염분을 확보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농경 및 음식문화의 발달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농경의 시작은 인간이 자연을 약탈하던 단계에서 생산자의 모습까지 갖게 됨으로써 인간 자신의 모습을 변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농경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식량을 안정적으로 얻게 되면 먹이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그치고 한 곳에 정착함으로서 국가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고, 계급 및 사유재산 그리고 전쟁의 발생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 청동기 시대

청동기시대와 관련된 성남의 유물은 금토동의 무늬없는 토기를 비롯하여, 테평동·수진동·사충동 등의 고인들이 주복된다.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와 마찬가지로 판교에는 아직 청동기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에서 청동기 유물이 발굴되는 것으로 미루어 판교에서도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무늬없는 토기와 빗살무늬토기는 무늬와 두께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신석기인과 청동기인은 민족과 문화가 다르며, 우리 민족의 직접적 조상은 청동기인이라고 보았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빗살무늬토기의 두께가 얕은 편에 비해 무늬없는 토기의 두께가 두꺼운 것은 민족과 문화가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경의 초기 단계인 신석기에 비해 청동기 시대는 농업생산력이 향상되어 일자생산물이 많아졌으므로 저작한 농산물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토기의 두께가 두꺼워졌다라는 주장 등이 설득력을 얻어 지금은 신석기시대부터 우리 민족과 문화가 계속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인들(支石墓)이 주목된다.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고인들의 절반 정도가 위치할 정도로 그 숫자가 많으며, 강화도 등의 고인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정도로 모양의 다양성 및 보존상태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다. 고인들은 일반적으로 무덤방이 지상에 있으나 또는 지하에 있으나의 여부에 따라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구분되는데, 고인들은 청동기 사회의 정치권력과 계급의 발생 및 농경생활 등을 잘 반영한다. 먼저 고인들의 덩개를 무게는 수십톤에서 몇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덩개들의 운반을 통해 청동기시대에는 정치권력이나 계급이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외국에서의 실험결과 1t의 덩개들을 성인 남자 16명이 뺨에 1.6km 운반하였다라는 실험결과가 있었으므로, 수십톤의 고인들 덩개들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고인들 무덤의 주인공은 자비

계층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작은 규모의 덜개들이나 아이나 여자의 뼈가 밟굴된 고인들 무덤도 있지만, 수십분의 덜개들로 이루어진 고인들은 청동기 시대에 정치권력이 출현하고 계급이 발생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지배층은 거대한 덜개들 및 오랜 동안 변치 않는 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무덤을 만들었으며, 피지배층에게 권력의 강대함과 영원함을 보여 복종을 유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고인들은 농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의 흐름 즉 강과 나란하게 설치되어 있고, 논과 밭 등 주로 평야지대나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하며, 덜개들 위의 구멍은 농업생산의 중요와 다산(多產)을 기원한 것으로 주로 해석된다는 점 등에서 청동기사회는 농경사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무덤인 고인들을 통해 청동기 사회에는 평등사회가 아니라 정치권력이나 계급이 발생하였고, 당시의 경제상태는 원시 채집경제가 아니라 농경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3. 삼국시대~고려시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경기도 광주조(廣州條)에 의하면 삼국시대 판교는 백제의 도읍지인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 인접 지역인 광주에 속하였는데, 당시 광주는 백제의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불리었다. 한때 고구려에 의해 점령되었을 때는 한산군(漢山郡)이라고도 일컬어졌다. 고구려·백제·신라가 서로 각축을 벌이던 상황은 나당(羅唐) 연합을 맞이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즉 당나라는 단독의 힘으로 고구려를 정복할 수 없었고 신라는 백제의 침공을 물리치기 위해,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하는 나당 연합이 결성되었다. 그리하여 백제와 고구려는 이들 연합군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고, 신라마저도 식민지화하려는 당나라의 압력을 물리친 신라는 당나라 군사가 들어간 664년(문무왕 4) 이곳 남한산성을 한산주(漢山州)로 고치고, 이어 670년에는 남한산주(南漢山州)로 명칭을 바꾸었고 736년(경덕왕 15)에는 한주(漢州)로 다시 명칭을 고쳤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영토가 넓어진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하지만 통일신라 말에 이르면 중앙에서는 진골간의 권력쟁탈전이 벌어져 통치질서가 이완되고, 지배층의 사치와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일반 민에게 가혹한 세금과 부역을 부과함으로서 민심이 이반되는 가운데, 도적이 창궐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호족이 등장한다. 고려 태조인 광건 역시 대표적 호족으로서 궁예의 뒤를 이어 견훤과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였다. 특히 광건은 '후한 예율과 겸손한 말씨, 혼인정책, 기인제도, 사심판 제도' 등으로 호족을 포섭함으로써 후삼국 통일의 주인공이 된다. 관교가 속한 광주의 명칭은 바로 940년(태조 23)에 태조의 계위승에 차운 불리개 된다. 이어 광종대의 왕권강화에 힘입어 983년(성종 2) 12주(州: 상주·진주·전주·나주·승주·공주·청주·광주·임주·해주·황주·충주)에 목(牧)을 둘 때, 광주도 1개의 목이 되었으며, 995년 12절도사를 설치할 때 봉국군(奉國軍)이라 하여 관내도(關內道)에 예속시켰다. 1012년(현종 3) 절도사를 폐지하여 안무사(安撫使)를 설치하였다가, 1018년 12목을 8목으로 변경할 때 다시 광주목이 되었다.

4. 조선시대

고려말의 사회문제는 크게 경제적으로는 농장(農莊)의 발달로 인한 국가재정수입의 감소와 민에 대한 지배력 약화, 사상적으로는 불교의 체단으로 대표된다. 신홍무왕 이성계는 1392년 위회도 회군 후에 정권을 장악한 후, 신홍사대부(新興士大夫)와 연합하여 조선왕조를 건설하였다. 새 왕조를 건설의 주인공으로 여발선초(麗末鮮初)의 권문세족(權門勢族)과 대비되는 신홍사대부는 고려말의 사회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경제적·사상적 개혁을 단행한다. 즉 경제적으로는 과전법(科田法)을 시행하여 농장을 혁파함으로서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켜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이

고 10분의 1세 및 경작권의 보호 등을 통해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였고, 사상적으로는 주자학을 도입하여 불교의 문제점을 시정하려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광주목은 1393년(태조 4) 경기 좌도에 소속되었다. 세조 때 진관체제(鎭管體制)의 시행에 의해 광주에도 진(鎮)을 두어 광주목사가 종3품인 병마첨칠제사(兵馬兼七制使)를 겸하였으며, 광주목의 소속 진관은 여주목(驪州牧)·이천도호부(利川都護府)·양근군(楊根郡)·지평현(砥平縣)·음죽현(陰竹縣)·양치현(陽智縣)·죽산현(竹山縣)·과천현(果川縣)이었다. 1466년(세조 12)에 완성된 진관체제는 행정조직인 읍(邑)을 동시에 군사조직인 진으로 편성하여 각 읍의 수령에게 군사지휘관의 임무도 겸하게 함으로써 국가방위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일원화하려 한 것이었다. 아울러 진관 체제는 평시에는 절제사(節制使)·절결제사(僉節制使)가 최고지휘관인 진관(거진: 巨鎮)으로 하여금 소속 읍의 군병을 조련시키고, 유사시에는 진관에 소속된 읍의 군사를 나누어 주장(主將)의 호령을 듣게 함으로써 비록 한 진관이 힘들더라도 다른 진관이 계속해서 방어에 힘써 빠른 시간에 넓은 지역으로 적이 진출하는 것을 막는 밭어전술을 구사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진관체제는 고정적 도식적인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규모의 적이 침공하거나 적이 상습적으로 침입하는 루트가 있을 경우, 많은 병력을 집중시켜 유능한 장수를 과연함으로써 수령이 군사지휘관이 되는 것에서 야기되는 군사지휘 체계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유사시에는 제승방략(制勝方略)의 방어체제가 주로 활용되는 변화가 삼포왜변(三浦倭變)을 계기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1592년(선조 25)에 발생한 임진왜란(壬辰倭亂)은 전면전(全面戰)이므로 특정 지역에 병력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전선을 고루 방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임진왜란 때 대구전선은 중앙에서 군사지휘관이 전쟁터에 도착하기 전에 왜군이 먼저 도달함으로써 아군이 와해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병력을 집중시켰던 대구와 출주 밭어선이 무너지자 빠른 속도로 넓은 지역에 적이 진출하는 문제점 등이 표출되었다. 아울러 수령이나 관찰사가 군사지휘관이 됨으로써 야기되는 군사지휘상의 문제점도 임진왜란에서 노

출되었다. 이에 정부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전관체제와 계승방략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전문 무장을 주요 군사거점에 상주시키는 영장제(營將制)를 시행하여 전쟁에 임해 장수를 갑자기 파견하거나 수령이 군사지휘권을 겸하는 문제점을 시정하려 하였고, 중군(中軍)을 설치하여 관찰사를 군사적으로 보좌하게 하였으며, 여러 개의 진영(鎭營)을 중심으로 훈련과 방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관체제의 방어전술을 복구하려 하였다.

1505년(연산군 11)에 광주목의 사람이 난언(亂言)을 하였다고 하여 본주(本州)가 혁파되었다가 중종 초년에 복구되었으며, 1511년(중종 6) 광주가 폐해지지 판관을 폐지한 바 있다. 1559년(평종 14)에 목사를 두었고, 1566년 방어사(防護使)를 겸하게 하였다. 방어사는 조선전기에 병법을 잘 모르는 수령이 군사지휘권을 겸하거나 병사나 수사가 전쟁에서 자주 패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된 종이품 무장이다. 실제로 중종대의 삼포왜변 및 명종대의 을묘왜변(乙卯倭變) 등에서는 군사적 실전이나 경험의 풍부한 방어사를 중앙에서 파견하여 지방군을 효과적으로 지휘함으로서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극대화시키려 하였다. 따라서 투장을 방어사로 파견하지 않고 광주목사로 하여금 방어사를 겸임하게 한 조치는, 의적의 침입으로부터 도성을 방어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73년(선조 2) 광주목사는 토포사(討捕使)도 겸하게 하였다. 토포사는 종2품 관직으로 도적의 폐포를 주로 담당하는 직책인데, 조선후기 지방은 중앙의 포도청처럼 별도의 치안기구가 없으므로 진영의 영장 등이 토포사의 역할을 겸하였다. 1577년 광주목은 광주부로 승격되었고, 1592년 임진왜란 때 광주목사는 수어부사(守御副使)를 겸임하였다. 이어 1623년(인조 1) 광주목사는 유수(留守)로 승격되어 수어청의 수어사를 겸직하였다. 수어청의 설치는 후금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측면과 함께, 쿠데타로 집권한 인조대의 서인정권이 역부대를 방지함으로써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 도성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창설된 군대이다. 1626년에는 남한산성을 수축하여 이듬해인 1627년 주치(州治)를 성내로 옮겼고, 1637년 광주부윤(廣州府尹)

으로 승격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으나, 강화도가 함락되어 왕자가 포로가 되었고 청군의 포위로 인하여 쇠랑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군주적인 항복을 하게 되었다. 광주의 수령은 1652년(효종 3) 수어부사에서 1655년 부윤이 되었고, 1683년(숙종 9) 유수겸 수어사로 승격되었다. 1690년 부윤겸 방어사·토포사가 되었다가 1694년 부윤이 되었고, 1750년(영조 26) 유수로 다시 승격되어 수어사를 겸하다가 1759년 부윤이 되었다. 1795년(경조 19) 다시 유수겸 수어사로 승격되어 1895년(고종 32)년 지방관제를 고칠 때까지 존속하였다. 이렇듯 조선후기 광주의 수령은 도성의 방어 및 도적의 제포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그 역할이나 지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관교와 관련된 내용이 앞 시대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 교통의 요지인 관교에는 공공 숙박시설인 관교원(板橋院)을 비롯하여 낙생 애(樂生驛) 등이 주목되며, 조선후기 농업생산력의 향상 등으로 인한 상품화 폐경계와 교역기구의 발전 등과 관련하여 지방 장시(場市)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개시(開市)된 낙생장 등에 관한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더욱이 관교의 대표적 인물인 연안 이씨 등이 크게 활약하는 것도 조선시대라는 점에서, 근대 이전 관교의 역사적 성격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여겨진다.

5. 근대~현대

1895년 광주군은 한성부의 관할이 되었고, 이를 통해 경기도 광주부가 되었다가 다시 1906년 광주군이 되었다. 1917년 남한산성 안에 있던 군청을 광주 면으로 옮겼다. 1895년 민비시해 및 단발령 등으로 인하여 의병운동이 발생하였는데, 1896년 광주와 이천을 중심으로 불기한 경기 의병은 남한산성을 거점으로 활약하였다. 일제의 '무단통치(武斷統治), 토지조사사업으로 대표되는 경제수탈, 원순의 민족자결주의 및 사회주의의 사상의 유파, 2·8 독립

선언, 고종의 '독살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우리민족의 거족적인 독립운동인 3·1운동이 1919년 발생하였다. 광주에서도 3월 27일 중부면·동부면·서부면에서, 3월 28일에는 광주읍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다.

1946년 2월 성남출장소의 설치로 광주군 중부면에서 관할하던 남한산성 6개리가 단일 행정구역이 되었으며, 1968년 서울시 무허가 건물 일소에 따른 50만 철거민 정착 주택단지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광주군 중부면이 철거민 정착 주택단지로 결정된 이유는 서울시와 일일생활권이면서 단천의 수원이 풍부하여 20만명을 수용하더라도 물이 부족하지 않으며, 농경지가 적어 식량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와진 곳이라 불법 건축 등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의 노출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개발에 대해 해당 지역의 관청이나 주민들이 환영할 것이며, 국공유지가 많아 예산이 적게 드는 등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69년에는 주택단지 조성 작업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철거민이 이송되어 가수용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1971년 8월 10일에는 서울시의 전매입주자에 대한 '시가일시불보지불화방침'과 경기도의 '가옥취득세 부과조치'를 시정해달라는 소요로 인해 8·10 사건이 발생하였다. 1971년 9월 13일에는 급격히 팽창하는 도시규모와 주민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 출장소가 설치되어 중부면 6개리와 대왕면·낙생면·돌마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1971년 10월 30일 성남출장소 관할 지역 및 용인군 수지면 일부를 포함한 지역에 성남도시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1975년 시로 승격되면서 과도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기행적 성장을 지향하려 하였다.

한편 조선시대 광주군 낙생면(樂生面)을 판교리(板橋里)라고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너분배를 병합하여 판교라고 하였다. 판교는 1971년 경기도 성남 출장소에 편입되었고, 1973년 7월 판교동으로 성남시에 소속되었다. 1975년 3월 낙생출장소에 관교·삼평·백현의 3개동이 편입되었다가, 1989년 5월 중원구에 속했다가 1991년 9월 분당구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판교는 현재 1·2·3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1동 너더리(판

교) 마을이 바로 주막거리와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판교원과 창(站)이 있었으며, 2동은 너븐바위(廣岩) 마을으로 양반이 거주하였다고 하고, 3동은 1980년경부터 중소공장들이 입주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이상의 내용을 「민족문화대백과사전」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410쪽'을 참고하여 연표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판교 연표

시대	현대	주 요 사 람
구석기~청동기		
삼국시대	백제 고구려	남한산성 한산군
통일신라	664년(문무왕 즉 570년(문무왕 10) 756년(감태왕 15)	'한산주'로 개칭 '남한산주'로 개칭 '한주'로 개칭
고려	940년(태조 20) 963년(성종 2) 996년(성종 14)	'금주목'으로 개칭 '금주목'으로 개칭 봉국군할도사 설치 민나드에 소속
조선	1012년(현종 2) 1018년(현종 8) 1310년(충선왕 2) 1356년(공민왕 5) 1386년(태조 4) 세조 1509년(연산군 11) 충종 초 1550년(apy 14) 1560년(영종 21) 1577년(선조 10) 1626년(인조 4) 1627년(인조 5) 1636년(인조 14) 1652년(효종 2) 1750년(영조 28) 1759년(영조 28) 1886년(고종 32)	안무사설치 금주목으로 개관 지주서로 강동 목으로 복구 검기화도에 소속 진 설치 고을이 학마원 복구됨 목사설치 검방어시 설치 금주부로 승격 남한산성 수축 주지를 남한산성 안으로 이동 영지호란으로 민족 이어(移避) 수어부사 설치 문수로 승격. 수어사를 겸함 부운 설치 한성부 광주군
근대		

	1896년(고종 33)	남한산성에서 경기 폭발 활동
		경기도 광주부
	1900년(광무 10)	광주군으로 개칭
	1917년	군집을 광주안으로 이전
	1919년 3월 27일	중부면 원서운동
현대	1946년 3월 3일	광주군 충무면 성남출장소 설치
	1960년	서울특별시 꾸리가 권리를 침해한 한국주택단지경영사업 민가
	1968년	침해민 이송
	1971년	8·10사건 발생
	1971년 9월 13일	경기도 성남출장소 설치
	1973	성남시승격
	1975년 3월	낙동출장소에 관교·삼정·백현 의 3개동 편입
	1980년 5월	충동구에 관교 속장
	1991년 9월	분당구로 관교 편입

III. 조선시대의 교통로와 판교

1. 조선시대의 교통로

조선시대에는 육로는 물론이고 해로와 연로(沿路)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통로가 있었으며, 도로는 군사·교역·여행·통신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조선시대 도로에 필요한 도로에 관한 전반적이 고도 정확한 지식을 제공한 대표적 자료로는 실학자 신경준(1712-1781)의 「도로고(道路考)」와 「사연고(四沿考)」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전국 각 지역의 육로·해로·연로는 물론이고 조식(潮汐)·바람을 예측하는 법·개시(開市) 등을 수록하였다.

먼저 조선시대 육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로(御路)로는 능원묘(陵園墓) 및 온천 행궁어로(行宮御路)가 있는데, 건원릉(健元陵)을 비롯한 34개 능원묘와 서방고 앞의 나루부터 혼양 혼천까지의 행궁 등 어로의 위치 및 경유지 간의 거리 등이 마르 그것이다. 둘째 일반 민의 교통로와 관련하여 판도의 6대로(大路)와 그에 소속된 계읍(諸邑) 및 역원간(驛院間)의 이수(里數)가 주목된다. 판도의 6대로는 의주제일로(義州第一路)·경흥제이로(慶興第二路)·평해제삼로(平海第三路)·동래제사로(東萊第四路)·제주제오로(濟州第五路)·강화제육로(江華第六路)인데, 판교는 동래제사로에 속한다. 아울러 역참(驛站)과 관련하여 전국의 기발(騎發)은 25리

마다 역참을 두었는데 경기의 경영참(京營站)으로부터 외주의 소곶참(所串站)까지 41개의 역참이 있었으며, 보발(步撥)은 30리 마다 역참을 두었는데 경기의 광주로부터 초량참(草梁站)까지 34개의 역참이 있었다. 또 경기도 광주에는 양재도(良才道)·경안도(慶安道)·봉안(奉安) 등에 역제(驛遞)가 있었는데, 그 중 양재도는 낙생(樂生)에 소속된 역체였다. 그 밖에 중국으로 간 사신이 암복강을 건너 북경에 도착하기까지 유타는 1,900리였고, 일본에 간 통신사가 남해를 건너 후 장기(長崎)부터 강호(江戶)까지의 유타는 1,310리였다.

다음으로 해로로는 '제주해로·중국살통해로·일본상통해로·유구국해로(琉球國海路)' 등을 비롯하여 연해로가 있다. 먼저 중국의 조공해로(朝貢海路)는 선천(宣川) 선사포(宣沙浦)로부터 해로로 3,760리였고, 조공로는 1629년(인조 7)부터 변경되었으며 여러 삼에는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기 위해 영송지관(迎送之館)이 설치되었다. 반면 일본과의 해로는 부산 영가대(永嘉臺)로부터 장기(長崎) 그리고 강호(江戶)에 이르기까지 수로 3,290리였다. 한편 연해로 중 '서해지연(西海之沿)'은 외주의 해안부터 해남 등산곶(登山串) 우수령까지 3,300여리이고, '동해지연(東海之沿)'은 경흥의 해안부터 동래관까지 3,050여리, '남해지연(南海之沿)'은 동래관으로부터 해남관까지 1,080여리였다. 그밖에 팔도의 연해에 인접한 군현위치·군현간의 거리·바다와 군현간의 거리 및 군현에 소재한 산·포구·곶·섬·강 등에 관한 지식, 그리고 수세(水勢)·성·필물과 샘물·풍우첨(風雨占)을 통한 바람과 비의 예측 등을 활용하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거나 항해하는 사람들은 무사한 항해를 하려 하였다.

끝으로 연로(沿路)와 관련하여서는 암복강과 두만강이 경유하는 함경도와 평안도 군현의 숫자 및 두 강의 총 길이, 암복강·두만강이 발원하여 끝나는 지점까지의 여러 군현의 위치 및 거리 그리고 강에서의 거리 등이 주목된다.



'도로고'의 간표지

2. 판교원(板橋院)과 낙생역(樂生驛)

판교는 교통의 요지로서 관도의 6대로 중 '동래제사로'에 속하며, 낙생역 및 여행객에게 숙박을 제공하였던 판교점(板橋店)·판교원도 이곳에 설치되었다. 우선 조선시대 관교가 속해 있었던 광주 등 '동래제사로'의 군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경기도의 용인·양지·양성·안성·죽산·광주·이천·용죽·여주, 이어 충청도의 충주·진천·괴산·연풍·음성·청안·단양·제천·영춘, 이어 경상도의 문경·대구·청도·밀양·양산·동래·봉기·영천·봉화·순흥·예안·용궁·예천·안동·진녕·영해·청송·영양·영덕·함창·상주·성주·현풍·칠원·함안·진해·고성·거제·개령·지례·거창·안의·금산·선산·고령·초계·합천·삼가·의령·창녕·영산·찰원·옹천·비안·군위·신령·영천·경주·울산·의성·의홍·하양·언양·홍해·청하·영일·장기·인동·경산·자인·김해·기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으로 제4로에 설치된 점(店)·역 등을 경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로부터 한강에 이르기까지 10里 지점에 신원점(新院店)이 있고, 신원점

으로부터 30리 지점에 현천현(懸川縣)이, 현천현으로부터 10리 지점에 관교점이, 관교점으로부터 10리 지점에 험천(險川)이, 험천으로부터 15리 지점에 열원(列院)이, 열원으로부터 10리 지점에 용인(龍仁)이, 용인으로부터 5리 지점에 박군이현(朴君伊縣)이, 박군이현의 10리 지점에 직곡점(直谷店)이, 직곡점 10리 지점에 금령장(金嶺場)이, 금령장 10리 지점에 양지(陽智)가, 양지 10리 지점에 좌찬역(左贊驛)이, 좌찬역 10리 지점에 기안점(機鞍店)이, 기안점 20리에 진촌(陣村)이, 진촌 10리 지점에 광암(廣岩)이, 광암 20리에 석원(石院)이, 석원 20리 지점에 모도원(慕道院)이, 모도원 30리 지점에 승선점(崇善店)이, 승선점 10리에 용안점(用安店)이, 용안점 7리에 겸단점(檢丹店)이, 겸단점 20리에 달천진(達川津)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관교에는 '점(店)'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조선후기의 「사연고」·「대동지지(大東地志)」 등과 달리 조선전기의 「태조실록」·「태종실록」·「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서는 1396년(태조 5)에 관교에 '원(院)'이 설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점'은 음식을 팔거나 나그네를 묵게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집이므로 '원'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그렇지만 '원'은 공적인 업무를 떠고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나 사신은 물론이고 상인 등 일반 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공공 여관이었다. '원'은 公務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에 왕래하는 관리나 군인 등에게 人馬를 제공하거나 통신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에 인접하여 설치되었다. 특히 관교는 경기도의 여로(驛路) 중 대로이며, 12역 중 낙성역이 있었으므로 '원'이 설치되기에는 적격이었다. 때문에 관교는 삼남에서 올라오는 길목이라 하여 삼남대로라 하였고, 관리나 상인 등 여행객이 관교에서 숙식하면서 달도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 이렇듯 관교에는 숙박시설 및 왕래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관교에는 남쪽과 북쪽 길에 이문(里門)을 세워, 도적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밤 10시에 문을 닫고 아침에 문을 열음으로써 주막이나 관교원에 숙박한 여행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려 하였다. 이문은 일제시대 화재로 인하여 남쪽의 아랫문이 소실되고, 북쪽의 윗문도 철거되어 현재는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한편 판교가 속해 있던 제4로는 일제시대 아래 그 기능이 점차 약화되게 된다. 즉 험준한 조령을 피해 추풍령을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영남으로 가는 국도가 호남으로 가는 국도와 합쳐졌고, 경부선도 그 노선을 따라 시흥-수원-오산-평택-천안 등으로 연결되면서 판교- 용인-안성 등의 교통로는 점차 쇠퇴하게 된다. 아울러 1969년부터 둔대문으로부터 팔진교-천호동-신장-경안을 경유하는 도로망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양재-판교-용인간의 도로도 그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양재에서 판교에 이르는 도로가 대부분 경부 고속도로에 편입됨으로써 양재-판교간의 교통로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감소하였다.

IV. 조선시대의 장시(場市)와 낙생장(樂生場)

1. 임진왜란 전후 상품교역의 발달과 시장권의 확대

16세기 조선사회는 생산력과 토지사유제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교환경재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여러 조건이 성숙하였다. 즉 조선전기 이래 농법의 발달과 목면(木綿) 등 선풍종의 보급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발전은 농민들에게 농산물의 임여축적을 가능하게 하여, 자신의 생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 아울러 꾸물보다 이익이 많이 남는 작물을 침증적으로 생산하였는데, 공식적인 화폐로 사용되었던 면포(緝布)를 생산하거나 양말 등에 종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창사길에 나설로서 자급위주의 농업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교역을 전제로 한 농업경영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지배층 역시 관리가 되면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금 받아 농민들에게 세금을 받는 특권이 연산군대에 사라지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간척·개간이나 토지의 매입 등을 통해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막대한 양의 곡물을 축적하여 상품화하였다. 또 군역을 비롯한 각종 부세수탈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이 농촌에서 이탈하여 상업 및 수공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일부는 도성으로 이주하여 도시빈민층을 형성하여 일상 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됨으로써 도심의 물가가 오르고 물건이 귀해지는 현상까지 초래하였다.

그런데 교역기반의 확대는 공물(貢物)의 상품화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물제도는 관청이나 왕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으로 납부하게 한 것인데, 세월이 흘러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또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본래부터 그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공물로 납부하게 하는 조치 등으로 다른 지역에서 공물을 구입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1583년(선조 16) 이이(李珥)가 올린 「만언봉사(萬言封事)」에 잘 나타나 있다. 아울러 권문세가(權門勢家)가 일반 민들이 공물을 생산하던 산지(山地)와 해택(海澤) 조차 차지함으로써, 일반 민들이 공물을 표(布)를 주고 사서 납부하는 가운데 공물의 상품화는 더욱 촉진되었다.

한편 교역기반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상업인구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1526년(중종 12년)의 『충종실록』을 보면 그 이전에는 다른 산업이나 교역기반이 형성되지 못하여 농민들이 흥년이 들어도 상업으로 전업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상업에 종사하면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영시(領事) 남곤(南袞)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천이 들으니 지난해 6·7월 사이의 한발로 인하여 흥년이 들자, 농민들이 모두 소파 말을 사서 행상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것은 겨울을 지낼 끼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흥년이 들어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바꾸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시가 잘 되지 않으면 곧바로 상업으로 직업을 바꾸고 농사에 힘쓰지 않는 폐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울러 상업이 농업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농사를 포기하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방 장시와 도성(都城)의 시장에 몇십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성부근에서는 소유 전답을 팔거나 남에게 병작(並作)시키면서 상업에 나서기도 하였다. 따라서 상업인구의 증가는 단순히 토지사유 계의 발달이나 부세수탈 등으로 인하여 몰락한 농민이 상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농업보다 상업이 훨씬 이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이므로 전문적인 상인층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농업 수공업 생산물의 상품화 및 상업인구의 증가는 기존의 교역기구와 교역망의 발전을 초래하여 장시가 전국적으로 발달하고 이를 토대로 도성집중적 유통망이 수립된다.

15세기 후반에 등장한 장시는 소상품 생산자들이 물품을 매매하여 이익을 취하고, 자기 고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공물의 구입이나 농촌을 떠난 농민이 상업이나 수공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16세기 중엽 장시는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으며, 대체로 10일장이었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겪은 후 장시의 수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개시일수(開市日數)도 그 간격이 좁아져 5일장으로 된다. 임진왜란기 장시의 발달은 첫째 전쟁으로 인한 유동 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커다. 전란으로 생업을 잃은 농민들이 생계를 위해 군대에 들어갔으나, 별의 군사와 관료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외방으로 흘어져 상업에 종사하는 현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장시의 발달은 중앙 정부나 지방관청의 재정확보 및 관방(關防)과 관련하여 새로 장시를 개설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관영(官營)을 판매하는 염장(鹽場)이 1595년(선조 28) 황해도 용진·충청도 태안·전라도 무장 등에 개설되었고, 임진왜란 중 충무공이 군대를 모으고 군량을 운반하기 위해 심진강변의 월강촌(越江村)에 장시를 개설한 것 등이 그러한 예이다. 특히 임진왜란 중 서울에서 수명의 남녀 노비를 거느리고 충청도 임천에 피난온 양반 오희문(吳希文)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곡물을 비롯하여 포·가축 등을 한 장시에서 구입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른 장시에서 되팔아 이익을 남겼음이 그의 저서 『쇄미록(墮尾錄)』에 잘 나타나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겪은 후 전국적인 장시발달을 토대로 도성의 상권이 형성되었다. 원래 조선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정부의 수요와 도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어용·상업기구인 시전(市廛)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도성으로의 물품 유입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장시가 개설되고 있었던 16세기 말까지도 개설을 제외한 경기지역에는 장시 개설을 첨자하게 금지하였다. 그렇지만 15세기 중엽 도

성은 이미 11만명의 대규모 소비도시로 성장하였으므로 도성과 전국의 각 군현 장시를 직접 연결하는 도성중심적 교역권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형성되었다. 16세기 이후 도성과 지방간의 원격지 교역은 잠신곶 만홍항 등과 같은 해상교통로의 위험이 극복되고, 지주제의 발달과 부세수탈 등으로 물 농민이 도성으로 몰려 들면서 더욱 활성화된다. 소비층의 증가는 곡물을 비롯하여 닭·생선·채소·과일 등 외방으로부터 보다 많은 물품의 공급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도성인구가 증가하게 되자 전축을 위한 목재도 급증하였다. 더욱이 도성은 공물이 절절되는 곳이었으므로 각 지방 군현은 자기 고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품의 구입을 도성의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납(訪納)이 확산되면서 도성중심적 교역망은 더욱 발달한다. 그밖에 도성과 지방사이의 원격지 교역은 지방에 거주하는 양반 지배층이 획득한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은 오희문의『쇄미록』('백승칠, 『조선후기 상업사연구·상업사, 상업정책-』, 혜안, 2000)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오희문은 임진왜란 당시 아들이 수령으로 있던 강원도 평강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경작한 농산물과 각종 물품을 운송하여 도성에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성에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16세기 도성은 이처럼 인구증가로 인한 곡물 등 각종 물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과의 원격지 교역이 확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원격지 교역은 기존의 시전상인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경강(京江)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던 선상(船商)들이나 방납업자 등 새로운 상인층이 주도하였다. 경중(京中) 부상대고들은 도성은 물론 지방에까지 그 활동범위를 넓혀가면서 민간유통을 장악, 전국적인 교역망을 형성해가고 있었다. 이와같은 교역 체계는 기존의 시전상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역체계와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교역체계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부상대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인들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전쟁을 피해 안전한 지방에 정착하여 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많이 올렸으므로, 도성이 수복한 후에도 되돌아오지 않아 일부 지방에서의 상품교역은 활발하였다. 아울러 임진왜란기 전쟁

의 피해를 입지 않은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장시는 5일장 체제로 발전하였으며, 1600년(선조 33)『선조실록』의 기사를 보면 장시의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경기도에까지 장시가 설립되어 물화(物貨)가 서울에 반입되는 데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장시는 한 군현에 적어도 3-4개 정도 개설되고 있었으며, 인접한 몇 개의 군현을 하나의 유통권으로 하여 장시와 수가 급증하였다. 더욱이 임진왜란·병자호란 후의 경제재건을 위해 개간·간척은 물론이고 농법·이앙법의 전국적인 보급 등으로 인한 농업 생산력의 향상과 자유 상공업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조선후기 장시는 더욱 활성화되게 된다.

2. 경기지역의 장시와 낙생장

17세기 이후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경지지역에서도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서울 근교 '황심리의 무, 석교의 가지·오이·수박, 청파의 미나리, 이태원의 토란' 등이 바로 그것이며, 18세기 후반 이후 도시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수원에서도 미나리와 채소를 재배하고 있음이 우하영(禹夏永)의 『천일록』(고등환, 「상공업발전과 장시의 확대」, 『경기도 역사와 문화』, 1997)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서울 근교에서는 밭·보리 등 주곡보다는 채소나 과일 등을 생산하여 높은 이익을 남긴 것이다. 아울러 농촌지역에서도 개성의 인삼, 여주·이천에서의 미곡의 상품화 등 특정 농산물을 전업적으로 생산하는 농업지역이 형성되어 상업적 농업의 발달은 경기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더욱이 상업적 농업의 전전과 더불어 농촌지역의 수공업도 상품생산화 되었다. 이것은 농업에서의 전업화 및 17세기 이후 관영수공업 체계가 붕괴되고 민간 수공업이 발전한 것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른바 '강화의 화문석, 양주·가평의 제사업(製絲業), 안성의 유기, 광주 분원의 사기(沙器)'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수공업 생산이 활발해진 것은 전국적 시장권의 중심 도시인 서울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며, 조선후기

경기도 지역에서의 상품생산의 발전은 결국 경기지역 내의 상품유통시장의 확대 즉 농촌장사를 확대 발전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농촌의 장시는 농촌의 소상품 생산자가 상품유통을 매개하는 출발점이고, 또한 장시를 주변으로 한 주변 촌락은 생산자이며 소비자로서 기능하였다. 대체로 농민들은 교통 등을 고려하여 출입하는 장시가 정해져 있었고, 각 장시는 이러한 고객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장시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경기 지역에 확대되었다. 원래 국가에서는 경기지역의 장시 설립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경기지역이 장시를 허가하면 외방의 물자가 경기지역에서 유통되어 서울로 반입되는 물자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기 지역의 농민들은 정부의 금합정책을 극복하였고,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전국의 장시는 1000개 이상을 헤아리게 되었으며 5일장체계가 된다. 아울러 군현을 단위로 한 시장권을 넘어서 몇 개 고을을 묶는 시장권이 형성되고, 일부는 지역적 시장권을 벗어나 전국적 범위로 확대되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을 참고하면 전국에서 가장 큰 15개의 장시 중 경기도 광주와 사평장과 송파장, 안성의 읍내장·교하의 공릉장이 꼽히고 있는데, 대규모 장시 중 30%가 경기도 지역에 몰려 있었다는 점에서 경기지역의 상품유통이 활발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송파는 18세기 이래 전국적인 유통로의 발달로 인하여 영남으로부터 충청 내륙을 경유하는 상경로와 명남 내륙지방인 태백산 통화와 관동지방에서 여주 이천을 경유하는 상경로가 만나는 한강변의 유통거점이었고, 송파장은 한남부의 관할이 아니었으므로 시전상인들이 금난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난전상인들은 송파장을 통해, 상품을 서울을 거치지 않고 삼남지방까지 유통시킬 수 있어 시전중심의 상업체계의 불과 및 자유상인 등에 의한 상업체계를 발달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한편 장시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물품은 미곡·면포·어물 등이었고, 그 다음은 바포·연초와 콩·보리 등 캡곡류 등이었다. 미곡이나 면직류에 비해 술 등 수공업제품의 전국적 유통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판교에서도 조선후기의 장시의 발달과 더불어 낙생면 판교리에 낙생장이 '성내(城內; 2일) · 경안(慶安; 3일) · 세파천(細皮川; 1일) · 풍덕(楓豎; 4일) · 송파(松坡; 5일) · 사평(沙坪; 2일) · 곤지암(龜池巖; 4일) · 팔곡(八谷; 5일)' 등과 함께 18세기에 광주지역에 개사(開市)되었음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165, 부(附) 향시(鄕市)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낙생장은 탄천 유역의 세촌 · 대왕 · 낙생 · 둘마면의 중앙에 위치하였으므로 이 지역 주민들이 낙생장을 주로 이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낙생장은 5일장이었고 개시일은 3 · 8 · 23 · 18 · 23 · 28 일이었다. 판교에 장시가 설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낙생장과 숙박시설인 관교원이 설치된 것에서 잘 알 수 있듯이 판교는 조선시대 6대로 가운데 '동래제사로'가 경유하는 지역이었고, 상인들이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교통로로 활용된 한강의 연안에 위치한 것 등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교는 상품을 교역하기에 유리한 지역이었으며, 그러한 사실은 판교 인근 송파에서 조선 후기 장시중 규모가 15번 째 안에 들었던 송파장이 5 · 10 · 15 · 20 · 25 · 30 일에 열렸다는 점 등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한편 낙생장은 1871년 소멸되었다가, 1938년경 1 · 6 · 11 · 16 · 21 · 26일장인 판교장으로 부활하였다. 해방 이전 주막거리 서쪽 회나루 주위의 우시장을 중심으로 장이 셨으며 1970년까지 성남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성남 주민들은 이곳 판교시장에서 각종 농산물과 생활필수품 등을 구입하였다. 하지만 1960년경 단대천 변에 피난해 온 이주민의 정착촌이 조성되면서 신설되었던 모란장(4 · 9 · 14 · 19 · 24 · 29일)이, 1971년 이후 광주 대단지에 이주해 온 사람들로 인하여 큰 규모로 발전하면서 판교장은 점차 쇠퇴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V. 판교의 인물

1. 판교의 성씨와 인물

판교에는 나주 나씨가 처음 자리잡은 아래 “김해 김씨·순천김씨·평산
신씨·연안 이씨” 등이 세거하였다. 판교동에 최초로 정착한 나주의 나씨는
6·25 때 족보가 불타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고려중엽 때 처음 정착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21대손 나철재씨가 살고 있다. 김해 김씨는
김길(金吉)·김수업(金守業) 형제가 살기 시작한 아래 8대손 김완길에 이르
고 있다. 순천김씨는 통훈대부 상의원정 김사원(金嗣源)이 처음 정착한 이후
후손이 세거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원은 연안 이씨 이군건의 사위로
처가(妻家) 근처에 살았다. 그런데 사원의 차남 윤탁(允濯)과 그 자손이 여수
동으로 분가하여 그들의 묘역은 여수동에 있고, 사원 이하 9대의 묘가 판교
연안 이씨 종산에 있었다. 사원의 아들 윤제(允濟)는 평안병사 부총관, 윤탁
은 울진현령, 손자 자호(自號)는 군자감판관이다. 평산 신씨는 기록이 없어
언제 정착하였는지 연대는 모르고 후손 6가구가 살고 있다.

한편 연안이씨는 춘천부사를 역임한 이숙(李璣)의 차남 근건(根健; ?~
1456) 때에 정착한 아래 판교에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근건의 아들 인문
(人文)은 침자중추부사를 역임한 후 연안군(延安君)에 추봉되었고, 인충(仁
忠)은 청백리로 선정되었다. 인문의 아들 오(梧)는 진위현령, 진(敬)은 경주부

윤, 광(光)은 상의원 별좌, 근(坤: 1462-1524)은 종이품 품계의 가선대부(嘉善大夫) 오위장(五衛將)으로 연성군(延城君)에 추봉되었고, 맙(撝)은 삼척도호부사·강릉진 병마동첨첨제사를 지내는 등 자손이 번성하고 현달하여 집성촌을 이루며 관교의 원주민으로 세거하고 있다. 연안 이씨의 사회적 위세는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점차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장은 연안 이씨 이외에서도 선출되었고, 과거 자신들보다 신분이 떨어졌던 다른 성씨들과도 제(契)를 함께 결성하는 일도 많았으며, 가정 형편이 꾸준한 후손 중에서는 상여를 베는 일도 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주파거리의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두례를 결성하자 연안 이씨가 두례의 운용비용을 지원해주었다는 데에서 신분적 우위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으나,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연안 이씨의 사회적 우월성은 거의 무너지게 된다. 전쟁 후 너더리 마을 주민들이 종전과는 달리 상여를 베주지 않자, 수원 상부도 가에서 일꾼을 불러다 쓰게 된 것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잘 입증한다. 현재 판교에는 연안 이씨의 16대손 이의권(李義權) 등 후손이 세거하고 있다.

2. 중종반정(中宗反正)과 정국공신(靖國功臣) 이근(李坤)

중종반정이란 연산군(燕山君)을 물아내고 진성대군(晋城大君)을 왕으로 추대한 일을 일컫는다. 연산군은 즉위 후 '성종에 대한 불사(佛事)'의 일종인 수륙재(水陸齋)의 거행·외척의 중용·재상의 험명' 등을 둘러싸고 대간(臺諫)들과의 갈등이 야기되었고, 무오사화(戊午士禍)를 통해 김종직(金宗直)의 조의제문(弔義節文)을 구실로 사망한 김종직뿐만 아니라 그의 문인들이 처형하는 등 사립 세력을 탄압하였고, 갑자사화(甲子士禍)에서는 생모 윤씨의 폐비(廢妃)와 사사(私死)에 관련된 신하를 제거하는 가운데 新·舊 개상이 임금을 능멸하고 不敬하는 풍조를 혁파함으로써 연산군 1인의 전제왕권을 구축하게 된다. 그리하여 왕의 실정(失政)에 대해서 적간하는 언관·언론 기능을 대대적으로 축소시키고, 춘추관(春秋館)의 기사관(記事官)을 혁파하

고 연산군 당대의 시정기(時政記)나 일기의 수찬(修撰)에도 일일이 간여함으로서 사관이 임금에 대해 할부로 서술할 수 없도록 통제하였으며, 관직의 신설이나 외척(外戚) 내관(內官)에 대한 가자(加資) 등을 통해 왕의 친위 세력을 육성하려 하였다. 그밖에도 성균관을 연락(宴樂)의 장소로 활용하거나 미녀를 선발하기 위해 전국에 채청·채홍사(採青·採紅使)를 보내 西色雜技를 일삼았으며, 사대부의 부녀자를 놓락하고 사냥을 하기 위해 도성 밖 30리의 민가를 절거하여 민의 원망을 야기하는 등 폭정(暴政)을 저질렀다. 이러한 연산군의 비정(私政)으로 인하여 1506년(연산군 12) 전 이조참판 성회안(成希願)과 지중추부사 박원종(朴元宗) 등이 주축이 되어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진성대군을 옹립하는 반정(反正)이 결행되었으며, 같은 시기에 전라도에 유배되어 있던 사림계의 유빈(柳賓)·이파(李顥)·김준손(金俊孫) 등도 거병을 계획하여 각처에 과문을 따우고 있었다. 더욱이 박원종 등이 주도한 반정에 참여하여 절국공신이 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연산군이 총애하는 신하였다. 점을 감안하면, 연산군의 비정(私政)에 의해 신권이 극도로 위축되자, 신료들 내부에서 잘못된 정치를 초래한 군주는 언제라도 갈아치울 수 공연한 불위기가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줄줄은 즉위한 후 반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봉하였다. 1등 공신에는 박원종·성회안·유순종·유자룡·신윤무·박영문·장정·홍경주 등 8명, 2등 공신에는 심순경·변수·최한홍·윤형로 등 13명, 3등 공신에는 고수정·심정·채수 등 83명 등 104명 이었다. 그러나 계정 형편을 고려하여 3등·변준·이하 53명을 4등으로 격하시켰고, 원균·김준손·반우형·이곤·후정·김무 등 6명과 내관 문치·서생생·김계공·김숙손·김온·임원산 등이 4등에 추가되었다. 이어 윤상로가 3등에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1등은 8명, 2등은 13명, 3등은 31명, 4등은 65명 등 모두 117명으로 확정되었다. 이들의 출신성분은 종실 5명·환관 6명을 비롯하여 훈구계 33명·비훈구계 70명이었으며, 공신 중 4촌 이내의 근친만도 45명이나 되었다. 또 이를 위한 입사경로(入仕經路)는 문과 35명·무과 28명·유서 32명·미상 11명이

았다. 하지만 연산군의 뚝정으로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공신집단의 존재는 중종이 새로운 정치를 티는데 장애가 되었는데, 사립 세력은 조광조(趙光祖)를 중심으로 정국공신이 너무 많음을 강박히 비판함으로서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76명의 훈장을 삭탈시켰다. 그러나 위훈 삵제(鷹勳削除)는 중종과 반정공신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켜 조광조 등 사립 세력을 숙청하는 기묘사화(己卯土禍)를 야기하게 된다. 특히 중종은 조광조의 개혁을 후원하여 공신을 중심으로 한 훈구세력을 견제하려 했지만, 조광조 및 그를 추종하는 사립세력의 집단행동이 중종의 존립기반인 반정공신의 핵심인물들까지 소인배로 배척함으로써 왕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간주되었으므로 조광조 등을 제거한 것이다. 그 결과 향약이 중지되고 현량과가 폐지되는 등 조광조가 추진한 개혁은 실패하게 되었지만, 삭제되었던 공신들의 훈장은 다시 복구되게 된다.

한편 판교 출신 이坤(李坤)도 중종반정에 참여함으로서 공신으로 책봉된다. 이坤은 1492년(성종 23) 쇡년 문과에 별과로 급제한 후 병조과랑 등을 거쳐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살(杖) 70의 처벌을 받았으나, 1506년(연산군 12) 중종반정(中宗反正)에 참여한 공로로 4등 문의정국공신(奮義靖國功臣) 65명 중 1사람에 책봉되었고 아울러 연성군(延城君)에 봉해졌다. 비록 1519년 대사헌 조광조 등이 정국공신에 대한 삭훈을 주청하여 같은 해 11월 위훈삼제(鷹勳削除) 때 삭록(削錄)되었지만, 기묘사화 이후 다시 훈장이 복구된 후 여주목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제3장

판교의 생활과 문화

1. 판교의 의식주 생활

1. 의생활

현재의 의생활은 이 글에서 논외(論外)로 하고 과거 한복이 의생활의 중심이 되었을 때(1960년대 이전)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본다. 의생활과 식생활은 주민 이순덕(여, 70세)의 계보에 의한 것이다.

1) 평상복

(1) 유아복

아이가 태어나면 몇 일 후부터 '비냇저고리'를 입힌다. 이것을 '음치고리'라고도 하는데 '용'(목화심의 가는 털)을 넣어 만든 옷이다.

(2) 아동복

아이가 스스로 용변을 볼 때쯤부터 4·5살 때까지 남자아이의 하의(下衣)는 '풍차바지'이다. 풍차바지는 무명이나 명주, 광목으로 지어 입힌다. 상의(上衣)는 기장이 긴 '짚다리옷'('짜기저고리'라고도 하며 분홍이나 흰색 등 화사한 색을 사용함)을 입힌다.

여자아이의 경우, 밑에는 '꼬장바지'('고쟁이바지'라고도 함)를 입히고, 위

에는 기장이 짧은 저고리(깃다리옷과 같이 화사한 색을 사용)를 입힌다. 아동
복은 대님을 배지 않는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는 바지·저고리를 입고 대님을 뱀다. 여자는 치
마·저고리를 입는다.

(3) 섬인복

남자의 경우, 겨울에는 솜을 넣은 바지·저고리(솜바지·저고리)를 입고,
여름에는 삼베나 모시로 만든 중의 적삼(上, 下依)이나 모시적삼(上衣)을 입으
며, 춘추(春秋)로는 바지·저고리를 겹으로 만든 겹바지·저고리를 입는다.
여름에 입는 옷은 저고리라고 하지 않고 '적삼'이라고 한다. 저고리에는 솜
을 넣고 고를과 동전이 들어가지만 적삼에는 솜을 넣지 않고 동전도 달지
않는다.

여자의 경우, 겨울에는 치마·저고리(치마는 겹으로 하지 않으며 저고리
속에는 솜을 넣음)를 입고 행주치마를 두른다. 여름에는 베옷(베나 모시로
만든 치마저고리)을 입으며, 춘추(春秋)로는 치마·저고리(저고리는 겹저고
리)를 입는다.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 옷을 많이 입는데 보통 4벌을 입는다. 여자의 경우
를 보면, 下衣는 속에 고챙이를 입고 그 위에 단속곳을 입고, 위에 속치마,
속치마 위에 겹치마를 입는다. 上衣는 속적삼을 입고 그 위에 저고리를 입고
저고리 위에 망고자를 입는다. 여름에는 밑에 고챙이와 치마만 입으며, 위에
는 적삼 하나만 입는다. 과거에는 브라자(?)가 없었으므로 치마끈으로 가슴
을 둉여맸다.

2) 외출복

성인남자의 경우, 외출할 때 겨울에는 솜바지·저고리 위에 겹두루마기를
입는다. 겨울에는 옷감을 겹으로 하거나 속에 솜을 넣는다. 여름에는 적삼
위에 모시두루마기를 입으며, 봄·가을에는 겹바지·저고리 위에 두루마기
를 입는다.

성인여자의 경우, 외출할 때 겨울에는 치마·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입는다. 여름과 봄·가을에는 치마·저고리만 입는다.

3) 노동복

평상복과 동일하나 주로 금은 옷을 입는다.

4) 웃감과 길쌈

겨울철 웃감으로는 무명(목화에서 추출함), 광목(무명을로 서양목처럼 폭이 넓게 짠 배, 목화에서 추출하나 고와서 비싸다), 비단(명주실로 광택이 나게 짠 피, 누에고치에서 추출하나 명주보다 곱다), 명주(누에고치에서 추출함)가 사용된다. 무명(가장 싸다)은 가격이 저렴한 편이며 광목, 비단, 명주 순으로 가격이 비싸다. 따라서 과거에 부잣집을 제외한 서민들은 무명으로 옷을 해 입었으며, 명주는 혼수감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옷을 할 수 있었다.

여름철 웃감으로는 살베(대마에서 추출함), 모시(모시풀에서 추출함)가 사용된다. 모시는 가격이 비싸 부잣집에서나 옷을 해 입을 수 있었으며 서민들은 주로 삼베로 옷을 해 입었다.

6.25전에는 직접 길쌈을 하여 웃감을 짜서 옷을 해 입었다. 6.25무렵부터는 길쌈을 하지 않고 포목점에서 웃감을 사와서 지어 입었다. 그 후 시장에 양장옷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집에서 옷을 지어 입는 풍속은 점차 사라지고 시장에서 사 입는 경향이 일반화되었다. 해방 이전에는 시장에 옷이 나오지 않았다. 해방 무렵부터 시장에 양장옷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무렵만 하더라도 길쌈을 하여 옷을 치어 입고 간간이 시장에서 옷을 사 입었다.

5) 모자와 신발

남자들은 상투머리에 말건을 쓰고 그 위에 갓을 썼다. 일제시대 때부터 중절모가 나오기 시작하여 외출할 때 갓 대신 중절모를 쓰는 사람도 있었다. 여자들은 겨울에 '조바위'를 썼다.

대가집에서는 가죽신을 신었으나 대부분의 서민들은 평소에 절신('짚세기'라고도 함)을 신었으며 비가 올 때는 나막신을 신었다. 신발 속에는 남녀 누구나 버선을 신었다.



한교의 마주마니들(1960년대 초)

2. 식생활

1) 일상음식

(1) 주식

가. 밥류

밥류로는 쌀밥, 보리밥, 조밥, 나물밥(깻나물밥, 콩나물밥), 무밥, 고구마밥, 콩밥, 팔밥, 감자밥, 밀밥, 잡곡밥, 오곡밥을 먹는다. 과거에는 주식이 잡곡밥과 보리밥, 조밥이었다. 쌀밥은 부잣집이 아닌 경우에는 흔히 먹을 수가 없었다. 70년대 이후에는 쌀이 흔해져서 쌀밥을 주로 먹는다.

나. 면류

면류로는 국수와 냉면을 주로 먹는다. 과거에는 밀을 지었기 때문에 밀을 수확하면 맷돌에 갈아 칼국수를 해먹었다. 특히 과거에는 밀가루가 귀해서 메밀국수를 많이 먹었다. 결혼식 때도 주로 메밀국수를 했다. 메밀국수도 집에서 메밀을 맷돌에 갈아 재로 쳐서 반죽을 하여 만들어 먹었다. 근래에는 메밀이나 밀농사를 짓지 않으며 국수도 시장에서 사온다.

과거에는 냉면을 만들 때 감자를 갈아 녹말가루를 만든 후 밀가루를 조금 넣어 반죽을 하여 국수를 빼는 틀에 넣어 냉았다. 또한 메밀냉면을 할 때는 메밀에 녹말가루를 조금 섞어서 만들어 었다. 요즘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없다. 다들 시장에서 사온다.

다. 죽류

과거에는 쌀이 부족하여 죽을 주식대용으로 많이 먹었다. 주로 팔죽과 콩죽을 많이 먹었다. 아플 때는 녹두죽이나 잣죽을 먹었다. 요즘에는 아플 경우나 입맛이 없을 때 잣죽 등을 해먹는 경우가 있으나 평소에 식사대용으로 먹지는 않는다. 가끔씩 밀가루를 반죽하여 수제비를 해 먹기도 한다.

(2) 부식

가. 국류

• 자주 먹는 국 - 시래기국(무우청을 팔려놓았다가 삶아서 함), 콩나물국, 무국, 배추국, 김치국, 된장국, 둥태국, 비역국, 감자국

• 가끔 먹는 국 - 조개국, 쑥국(봄철에 쑥이 날 때), 버섯국, 순두부국, 곰국, 닭고기, 쇠고기국, 돼지고기국, 명태국, 아오국(여름철에 막음), 선지국, 토란국(추석에 많이 끓여 먹음)

파거에는 대보를에 국을 먹으면 여름에 물에 빠진다고 하여 먹지 않았으니, 김치를 먹으면 산에 가서 쇠기에 쏘이다고 하여 먹지 않았다.

나. 찌개

• 자주 먹는 찌개 - 된장찌개, 김치찌개

• 가끔 먹는 찌개 - 두부찌개, 쇠고기찌개, 돼지고기찌개, 닭고기찌개, 봉어찌개, 조기찌개, 청어찌개, 풍치찌개, 고등어찌개, 개웹

파거에는 육류와 생선이 귀하고 비싸서 부잣집이 아닌 경우에는 자주 먹을 수 없었으나 요즘에는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 먹는다.

다. 조림

• 자주 먹는 조림 - 멸치조림, 감자조림, 마늘쫑조림

• 가끔 먹는 조림 - 멜태조림, 콩조림, 쇠고기 장조림

라. 구이

• 자주 먹는 구이 - 김구이

• 가끔 먹는 구이 - 풍치구이, 갈치구이, 고등어구이, 명태구이

마. 무침 · 절임

• 자주 먹는 무침 - 배추무침, 무무침, 콩나물무침, 시금치무침, 열무무침

• 가끔 먹는 무침 - 미나리무침, 산나물무침, 파(절임)무침, 숙주나물무침, 쑥갓무침, 도라지무침, 고사리무침, 땃잎절임

바. 뛰겨 먹는 음식

고추, 다시마, 야채 등을 뛰겨서 먹는다.

(3) 저잔음식

가. 장류

•**된장 달그기** - 음력 9월 중·하순에 매주를 쟁다. 이때 매주를 뿐어 방의 시렁이나 벽에 매달아 두었다. 선달 그룹('손 없는 날'이므로 이날을 택한다. 9·10, 19·20, 29·30일에는 손이 없을)에 떼어서 밤 아랫목에 채어 놓는다. 매주를 채어 놓을 때는 매주 사이에 절을 짙여서 채인다. 장을 담그는 것은 음력 첫월이나 2월, 3월에 손이 없는 말날을 택하여 한다. 장을 담글 때는 아랫목에 채어 놓은 매주를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항아리에 넣는다. 여기에 소금물을 붓고, 고추 3개, 숯 3개, 참깨를 조금 넣어 두껑을 덮어 놓았다가 3일 후에 두껑을 열어 놓는다. 45일 정도가 지난 후에 매주를 건져(이때 매주를 건지면 항아리 속에는 소금물이 남는다. 이 물을 솔에 넣어 끓이면 간장이 됨) 다른 항아리에 넣고, 소금을 약간 뿌리고, 물을 조금 넣어 약간 무르게 하여 한 달 정도 두면, 된장이 막기에 알맞을 정도로 쪘는다. 이때부터는 된장을 먹을 수 있다. 한편 과거에는 된장을 담그면, 항아리 밖에 고추와 숯 그리고 버선모양으로 오린 창호지를 원색끼에 달아 둘러놓았다. 이순덕씨는 20년까지는 이렇게 했으나 근래에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 한다.

•**간장 달이기** - 된장을 만들기 위해 항아리에서 된장을 건지면 항아리 속에는 소금물이 남는다. 이 소금물을 솔에 넣어 물이 3분의 1 정도 줄어들 때까지 끓인 후 식혀서 항아리에 저장한다. 간장은 이때 식힌 후부터 곧 바로 먹을 수 있다.

된장을 담글 때 간장도 같이 담그기 때문에 된장과 간장은 같은 날 담근다. 제보자 이순덕씨는 요즘도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직접 된장과 간장을 담근다 한다. 이순덕씨 댁에서는 주로 음력 1월 20일 경 말날에 장을 담근다.

•**고추장 달그기** - 고추장을 음력 1, 2, 3월에 주로 담그며 된장 담그는 시기

와 같다. 그러나 고추장을 담글 때는 날을 가리지 않고 아무 날이나 시간이 날 때 한다. 고추장은 1, 2, 3월의 봄절에 담아야 맛이 좋아 과거에는 봄에 주로 담았으나 요즘에는 음력 9월 경에 담그는 사람도 있다.

• 막장 담그기 - 메주를 빻아 채로 쳐서 굽은 고춧가루를 섞어서, 보리밥과 소금을 넣어 버무려 항아리에 담아 한 달 정도 식힌 후 먹는다. 주로 음력 1, 2, 3월에 담으며 특별히 날을 가리지는 않는다.

• 텁복장 담그기 - 메주를 긁적하게 부수어 항아리 속에 넣고, 소금물을 적당히 넣어(짜지 않게 해야 한다. 된장보다 짜지 않으면 물게 함) 10일 가량 약한 후 먹는다. 텁복장은 원장 담그는 시기에 담근다.

• 청국장 담그기 - 콩을 대나무 소쿠리에 담아 아랫목에 넣어 2-3일 정도 두면 끈다. 이것을 절구에 넣고 소금을 넣어 찔는다(간은 텁복장 정도로 하며 짜지 않게 함). 절구로 찔은 후 항아리에 담아 놓으면 끈 바로 막을 수 있다.

나. 김치류

• 자주 먹는 김치 - 배추김치, 무김치, 파김치, 갓김치, 다래김치(총각김치라는 말은 이 지방에서 사용하지 않음), 짹두기, 부추김치, 물김치(무를 썰어 넣어 담근다)

• 가끔 먹는 김치 - 고들빼기, 오이김치

김장을 일동이 10일 정도 지난 후에 담근다. 담그는 날은 특별히 날을 가리지 않고 적당한 날에 한다. 김장을 할 때는 배추김치, 짹두기, 갓김치, 다래김치, 둥치미(물김치와 차이가 있음) 등을 담근다. 김장을 담그면 여러 개의 항아리에 종류별로 넣어 이듬해 3월까지 먹는다.

다. 지류

마늘지(마늘장아찌), 고추지, 개장

다. 말랭이

- 자주 먹는 말랭이 - 호박말랭이, 고추말랭이,
- 가끔 먹는 말랭이 - 무말랭이, 가지말랭이, 박말랭이, 고추잎말랭이, 시래기

마. 젓갈류

- 자주 먹는 젓갈 - 새우젓
- 가끔 먹는 젓갈 - 명란젓, 창란젓, 조기젓, 오징어젓, 볶어젓, 뱃댕이젓, 멀치젓(김치를 담글 때 사용). 가끔 새우를 구입하여 직접 젓갈을 담아 먹는 흐름이 있으나 다른 젓갈은 시장에서 사온다.

(4) 가공음식

가공음식으로는 끈(도토리, 녹두청포, 베밀 등으로 만듬), 두부를 주로 먹는다. 파거에는 흐름에서 해 먹었으나 근래에는 시장에서 사온다.

2. 특별음식

(1)벌식

가. 백류

송편(추석), 시루파(설), 인절미(설), 백편(제사상에 사용, 팥의 캡질을 벗겨내고 고물로 편을 한다), 젤편(제사상에 사용), 경단(찹쌀을 빻아 둥글게 빚어 물에 삶아서 팔고물을 물인다), 증편(멥쌀을 빻아 막걸리와 콩물을 넣어 반죽하여 부풀게 한 후 솔에 넣어 진다), 쑥떡(정월과 봄철에 해 먹음), 가래떡(백국用), 칼떡('차설기'라고도 함, 찰쌀을 빻아 층층이 팬으로 켜를 놓아 진다. 고사나 잔치 때 사용), 팔떡('봄은설기'라고도 하며 팔을 위해 넣어 진다) 등을 해 먹는다.

아이의 백일 때나 돌 때는 백설기('흰무리'라고도 함), 수수떡('수수팔단지'라고도 하며, 수수를 빻아 둥글게 빚어 물에 삶아서 건진 후에 팔고물을

둔힌다), 송편을 한다. 과거 집을 짓기 전 지정을 다질 때(터를 다질 때)는 고사를 지냈는데 이때는 수수비과 꽈딱(고사딱, 붉은설기)을 했다.

나. 파자甬

약과와 강정을 주로 먹는다. 과거에는 직집 집에서 엎을 피어 만들어 먹었으나 요즘은 시장에서 사온다.

다. 화채粥·음료粥·주粥

식혜, 수장과, 차, 둥동주, 국화주, 술(松)주, 모과주, 대추주 등을 주로 먹는다. 차의 경우 과거 서민가정에서는 침뿌리를 캐어 만든 침차나 꿀물, 숭늉 등이 전부였으나 요즘은 갖가지 차를 시장에서 구입해 와서 먹는다. 식혜와 수장과는 찬차 때나 평절에 해 먹는다. 둥동주의 경우, 과거에는 가정에서 많이 담가 먹었으나 요즘은 집에서 담가 먹는 점이 드물다. 둥동주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밀가루를 갈아서 반죽하여 누룩을 만드는 데에 넣어 다져서 아랫쪽에 사용 정도 두어 누룩을 만든다(근데에는 누룩을 조금만 넣고 술약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함께 넣기도 함). 이 누룩을 밥과 물로 혼합하여 항아리에 넣어 뚜껑을 덮어 1주일 정도 두면 술이 된다. 항아리 속에 고인 물은 '둥동주'라고 하여 제사 때 사용한다. 헐아리 밑에 가라앉은 쪽끼기도 짜서 술로 이용하는데 쪽끼기를 판 술은 '박걸리'라고 한다. 요즘은 청주(清酒)를 시장에서 구입하여 제사상에 올리는 경우가 흔하나, 과거에는 제사 때 직집 집에서 담은 둥동주를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했다. 가끔 집에서 소주를 만드는 집에서는 소주를 올리기도 했다.

라. 화류

최고기축회, 민물고기회, 문어회 등의 각종 회는 특별한 잔치 때나 만들어 먹는다.

마. 탈粥

삼계탕, 곰탕, 보신탕, 닭백숙, 닭도리탕 등은 가끔씩 집에서 해 먹거나 식당에 가서 사 먹는다.

3. 주생활

1) 한국의 민가 건축

선사(先史) 시대부터 인류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피난 시설을 찾게 되었고, 최초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을 의지하여 살았다. 도구와 지능의 발달로 사람들은 자연의 재료를 가공하여 인공적인 주거를 만들게 되었으며 이는 처음에 바닥에 땅을 까고 나뭇가지와 짚으로 엮어 만든 움집으로 나타났다. 이어 좀더 발달된 건축기법을 바탕으로 목조가구를 빠대로 하고 그 위에 기와를 얹은 형태가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우리나라의 민가는 대략 고려시대부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전통민가의 형태와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민가에는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모습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에 발달했던 건축 기법을 포함하여, 사회 사상, 민간 신앙, 생활 풍속 등이 그것이다.

민가의 기본적인 구조는 초가삼간(草家三間)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방과 대청, 즉 마루와 부엌으로 이루어진 단일 건물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건물이 필요에 따라 증축되고 확대되거나 또 이웃하여 새로 지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에 각 지역의 기후와 습성이 반영되어 지역별로 독특한 건축 흐름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지역의 민가는 대부분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ㅁ'자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함경도 등 추운 곳에서는 이중으로 방이 배열된 겹집의 형태를 띠고 있다.

민가의 기본적인 건축형태는 전후면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보를 걸치고 도리를 얹은 이른바 5량가이다. 여기에 전후에 회반을 달고 마루를 놓거나 하여 5량가의 구조를 이루기도 한다. 지붕은 대부분이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사찰 건물에서 볼 수 있는 복잡한 기둥 위의 공포를 생략한

민도리 형태가 대부분이다. 건물내의 경면은 크게 두 건물로 분류되는데, 유교 관념에 따라 바깥쪽 혹은 전면에 놓여 남성들의 생활공간이 되었던 사랑채(혹은 바깥채)와 안쪽에 놓여 여성들의 생활공간이 되었던 안채로 나뉜다.

이러한 민가는 최근 들어 그 원형이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가장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민가 건축은 큰 변화를 맞이한다. 그 하나는 한국전쟁으로 경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국토의 대부분이 전쟁터가 되면서 많은 민가들이 파손되었다. 그리고 전후 복구 사업을 거쳐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으로 인하여 그나마 남아 있던 전통 민가들은 기존의 형식을 버리고 블록 담과 슬레이드 지붕으로 재건축되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각 지역별로 이전의 생활관습과 가옥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소수의 민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관교의 연안 마을 중가도 그러한 민가 중 하나이다.

2) 관교지역의 민가

관교의 주택은 대부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파괴되어, 60년대를 전후하여 신축된 집들이거나 그 이후에 건축되었다. 역사적 으로도 관교 앞을 지나는 길목은 임진왜란 시에도 폐군이 서울로 향하는 길목이었다고 한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수령이 약 550년인 느티나무가 자리잡고 있어 이 마을의 역사를 대변해 주고 있다.



관교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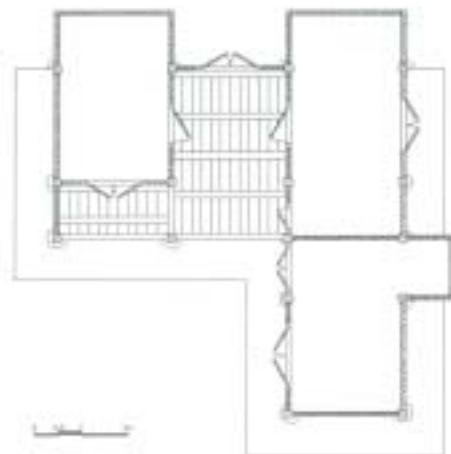
관교동의 옛 지명은 너른바위 마을로 현재도 주민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는데, 그 명칭은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느티나무 밑에 놓여진 넓적한 바위에

서 따온 것이라 한다. 그 가운데 연안(延安) 이씨(李氏) 종가(宗家)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로 알려져 있으며, 그와 함께 연안 이씨 사당(祠堂)은 그보다 앞선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다. 이 두 건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모두 1950년대 이후에 건축된 주택이다. 주택의 대부분은 전통 목조건축이 아닌 현대식 벽돌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으며, 여기서는 전통 목조건축기법이 남아 있는 연안 이씨 종가와 사당 및 주택 가운데 한 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마을 민가의 대부분은 'ㅁ'자 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ㄱ'자형 건물과 'ㄴ'자형 건물로 이루어진 듯 '자'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혹은 '-'자형 건물과 'ㄱ'자형 건물로 구성된 형식도 있다. 연안 이씨 종가의 경우 좌우대칭형의 3칸 건물에 중앙에 대청을 두고 좌우에 안방과 전년방을 배치하였으며 부엌을 안방의 남쪽으로 확장하여 배치시켰다.

전체적으로 관교의 민가는 경기도 지역 민가의 일반적 형식인 얀마당을 중심으로 한 'ㅁ'자 형태를 기본으로 다양한 변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관교의 지리적 위치가 서울 남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 연안 이(李)씨 종가

연안 이씨 종가는 성남시 분당구 관교 2동 20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길 입구에 자리잡고 있다.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랑채인 전면의 '-·'자형 팔작지붕 건물과 안채인 'ㄴ'자형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건물의 구조는 5량가로 안채의 경우는 중앙에 대청 바루를 두었다.



면면 미씨 졸가 안채 평면도

사당체는 4칸 건물로 중앙 좌측의 칸을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벽체와 지붕은 각각 블록벽과 개량기와로 되어 있었으나 기본적인 티대는 목조 5량 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좌측 후면 안채 방향으로 증축하였다. 안채는 원래 좌우 대칭형의 5칸 건물이었으나 후대에 개축하면서 좌우 한방과 전년방의 후면으로 확장이 되고, 전년방 남쪽으로 덧달아 부엌 등을 내었다. 대청에 해당하는 안채의 어칸 상부

줄도리·잘혀·밀바닥에는
‘昭和十七年三月二十日酉時立柱上樑壬午向右主
王辰生’이라 쓴 상량목서
명이 적혀 있어, 이 건물이
1942년에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면면 미씨 졸가

안채는 안방에서 주인 부부

가 거주하고, 견년방은 손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된 식사와 관련된 일상 생활은 대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엌 상부에 다팔을 설치하여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당은 모두 3개로, 대규모의 작업은 사방계 밖. 즉 주택의 밖에서 이루어지고, 일반적인 생활과 관련된 작업은 안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안채 동측으로는 창동대와 함께 걸마당이 자리잡고 있다.

(2) 연안 이씨 사당

이 건물은 연안 이씨의 시조인 이곤(李坤, 1462~1524)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종가 후측면에 약간 떨어져, 전체 주거군 가운데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건물은 전면 3칸, 측면 1칸의 판작지붕 건물로, 전면에 회간 마루를 둔 3량가의 구조로 되어 있다. 전면에 원기둥을, 나머지는 네모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기둥머리에 사과를 트고 바로 도리를 받았다. 후면은 약간의 경사지를 절개하여 전축한 까닭에 축대를 놓았고, 마당 공간은 매우 협소한 편이다. 전면 3칸은 모두 창호를 두었는데, 우측부터 2·4·3으로 창호의 문짝 개수를 달리 한 점이 특이하다. 특히 어칸 창호는 제사시의 편의를 위하여 좌우에 틈틈을 하여 들어낼 수 있게 하였다. 전면 어칸 상부에는 ‘延城君廟(연성군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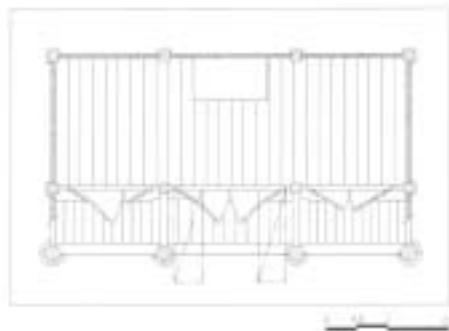


연안 이씨 사당

쓰여진 현판이 걸려 있으며, 좌우에는 ‘別廟重建 永慕詩(별묘 증전 영모시 : 별모시의 말미에는 ‘前略)...府君沒四百十四年戊寅二月...’로 되어 있어, 시조인 이곤의 생몰 연대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사당 건물이



관교동 풍가



관간 이색 사설 평면도

로 둘러져 있다.

1937년에 건립되었고, 영 모사는 이듬해인 1938년에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음.)와 '廷威君別廟 重建記(연성군별묘 중건기)'가 걸려 있다. 내부는 반자 없이 서까래가 노출되어 있으며, 아カン 종도리 하부 장혁 밀바닥에 '太歲丁丑甲辰 月己巳日壓柱壬申日戊申 時上樞'이라는 뚝서명이 있어 이 건물이 1937년에 건립된 간물임을 알려주고 있다. 내부에는 또한 다수의 편액이 걸려 있으며, 위 채를 모신 감실(藏室)은 어akan 후벽 상부에 후면으로 들출 되어 설치되어 있다. 전면에 사당으로 들어가는 일자문이 있고 시멘트 담으

(3) 기타

연안 이씨 종가의 맞은편에 자리잡고 있는 이 주택은 한국전쟁 이후 지어진 주택 가운데 가장 오래된 주택이라 한다.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시멘트 벽체 위에 놓여진 서까래와 기본 뼈대가 목조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마을 주택 가운데 상당히 오래된 주택으로 보인다.

건물은 5랑가 구조에 판자지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벽체는 시멘트블

록으로 되어 있다. 건물 배치는 'ㅁ'자형으로 되어 있고, 바깥채는 출입문을 포함한 'ㄴ'자형 건물이 놓여져 있고 안채는 따로 'ㄴ'자형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이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를 불어 놓았다. 마당은 연안 이씨 종가에 비하여 험소한 편이다.

II. 세사와 놀이

1. 세사풍속

[1월]

(1) 설

• 차례 : 설날 아침에는 차례를 지낸다. 차례상에는 주로 떡국을 올리는
길이 많다. 주민 윤기병씨 대온 떡국을 올리며 밤은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주민 김애자씨의 집안에서는 남편이 이복 평양사람이므로 이복식으로 하는
데 떡국과 밤을 같이 올린다. 차례를 지낸 후에는 집안 어른께 세배를 드린다.

• 성묘와 세배 : 차례 후 부모 등 가까운 어른께 세배를 한다. 세배를 하고
식사를 한 후 성묘를 간다. 성묘를 갔다 온 후 과거에는 동네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러 다녔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 청참(聽蟲) : 설날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는 말이 있다. 설날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까치소리를 들으면 손님이 온다는 말이 있다. 다른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는 기억나는 것이 없다.

(2) 정초

• 정초 12제일 : 예전에는 보름 안에 여자들은 바깥출입을 하지 않았다. 하늘에는 쥐를 없앤다고 하여 풍을 볶아 먹었다. 또한 논두렁, 밭두렁 등에 쥐풀을 놓는 풍속이 있는데 근래에는 소방서에서 못하게 하여 하지 않는다. 이날 아이들은 요즘도 불합통을 돌린다. 과거 소를 기를 때는 소날 소죽에 풍을 많이 주었다. 또한 이날 칼질을 하지 않는다. 이날 칼질을 하면 소머리 다친다고 했다. 톱날(토끼날)은 여자들 바깥출입을 삼가했다. 또한 남의 집에 가서 오줌을 누지 않았다. 톱날에는 장도 탐지 않았다. 전에는 이날 남자가 먼저 대문을 열어야 재수가 좋다고 하여 남자가 대문을 연 후에야 여자들이 밤을 지으러 나갔다. 융날에는 여자들이 일찍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왔다. 또한 이날 칼질을 하지 않았다. 칼질을 하면 용머리를 자르는 것으로 여겼다. 달날에 바람이 많이 불면 그해 바람이 많이 분다는 말이 있다. 지금도 탈날에 창을 닫근다. 전에는 말날 창을 닫아 원세끼에 고추, 솔가지, 속김청을 창단지에 풀려놓았다. 지금은 이런 풍습은 하지 않는다.

• 귀신닭날 : 16일 날은 귀신닭날이라고 한다. 이날 전에는 신발을 방안에 들여놓았으며 문 앞에 티를 걸어 놓았다. 또한 목화씨와 고추씨를 문밖에 터워서 냄새를 내어 광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 토정비결과 신수점 보기 : 정초에는 토정비결을 보아 1년 신수를 점친다. 토정비결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보고 모르는 사람은 볼 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본다. 만신을 찾아가서 1년 신수점을 보는 사람도 많다. 정초에 토정비결이나 신수점을 보는 풍속은 전처럼 많이 하지는 않으나 요즘도 보는 사람들이 있다.

• 복조리 철기 : 근래에는 정초 마을에 외부상인이 들어와서 복조리를 판매 하러 다닌다. 복조리는 방문 위에 복이 들어오라고 걸어둔다.

• 삼재막이 : 길간난씨의 경우, 근래에는 수원에 있는 무당집을 단골로 간다고 한다. 전에 삼재가 든 해에는 무당집에서 삼재막이를 했다. 무당은 나이 수대로 동전과 입던 옷웃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가지고 갖더니 그릇에

동전을 담아놓고, 입던 웃옷을 불에 태웠다하며 또한 점을 치며 축원을 하면서 삼재불이를 해주었다고 한다. 요즘에는 절에서도 삼재부적을 준다. 불자들은 절에 가서 삼재부적을 얻어오기도 한다. 삼재부적을 얻어오면, 하나는 배가 밑에 넣고, 하나는 몸에 지니고 하나는 벽에 붙인다.

•홍수막이 : 홍수막이는 만신집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초에 만신집에 가서 한다. 홍수막이는 정초 보름 안에 한다. 주로 정월 초사흘에 많이 한다. 만신집에 갈 때는 쌀 3되 초, 만수향, 사고지를 가지고 간다. 만신은 점을 치며 축원을 해주고 소지를 올려 준다. 홍수막이를 굽(홍수막이굿)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怍나무 걸기 : 대문 위에 엄나무를 걸어 놓는 집이 전에는 더러 있었다. 동네에 열명이 들어오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이 있다. 과거에 전염병이 들면 원새끼에 엄나무를 걸어 두었다. 한편 이사갈 때는 달이 없으라고 '소코두례'를 이사가는 집 안방에 먼저 걸어둔다.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가서 첫날밤에 잘 때는 결구공이를 빼고 거꾸로 누워 자면 좋다고 그대로 하는 풍습이 있다.

•정초의 놀이 : 고사반 - 정초가 되면 고사반을 본다. 전에는 마을에 두레가 있어 두레꾼들이 풍물을 치며 고사반을 들았으나 지금은 노인정의 노인들이 대보를 날 하루 몇 집만 끌라 다닌다. 고사반을 들 때 복색과 고합, 살모, 무등, 소고, 갈색, 탈이 있다. 고사반이 들어오면 주인집에서는 대청 앞 안마당에 삶을 짧고 그 위에 쌀을 담은 팔말통이나 양푼을 올리고 그 위에 숟가락을 꽂고 실타래를 감아 둔다. 복어도 팔 말통에 꽂는다. 촛불은 켜지 않는다. 이 지방에서는 풍물배가 가가호호를 둘 때 집안으로 들어와서 부엌, 창독 등 집안 구석구석을 전부 들며 고사반을 하지는 않는다. 바탕에 들어와 집안을 한바퀴 돌고 후풀이 있는 집에는 우물에 잠시 들렀다가 고사반 앞에서 딱답과 고사소리를 라고 풍물을 치면 끝난다.

•연날리기 : 겨울철에 연 날리기를 하고 정월 14일이 되면 연싸움을 하거나 연출을 끊어 '액연'을 날려보낸다. 요즘에는 연날리는 사람을 볼 수 없으

나 전에는 많이 했다. 전에는 창초에 옮놀이, 널뛰기, 팽이치기, 자치기 등의 놀이도 했는데 지금은 이런 놀이들이 단절되었다.

(3) 입춘

• **입춘축** : 입춘날 대문이나 방문 위에 붙인다. 집에서 직접 붓글씨를 써서 붙이는 사람도 있고 절에서 구해서 붙이는 사람도 있다. 입춘축은 立春時에 맞추어 붙인다. 입춘날에 삼재부적도 같이 붙인다.

• **보리뿌리풀** : 이 마을에서는 30년 전부터 보리농사를 짓지 않았다. 과거 보리농사를 지을 때는 입춘날 보리뿌리를 캐어 보았다. 보리의 뿌리가 세 가닥이 나면 줄작이 되며 뿌리가 적게 나면 흥작이 된다. 현재는 보리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이러한 풍속이 없다.

(4) 대보름

• **불밝히기** : 정월 14일 저녁에 들판을 넓은 접시에 솜을 말아 심자를 만들어 불을 밝힌다. 접시불은 부엌, 대청, 화장실, 문 앞 등 집안곳곳에 밝혀둔다. 이 풍속은 과거에는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하는 사람이 없다.

• **잣불캐기** : 14일 밤에 잣을 가족의 나이 수만큼 갖다놓고 주부가 바늘ぐ이 한 개씩 꽂아 불을 태워 본다. 불을 태울 때는 해당하는 가족의 이름을 대며 축원을 해준다. 주부가 이렇게 가족들의 잣불을 켜보고 그해 운수를 본다. 잣이 막게 타는 사람은 그해 운수가 좋은 것이라고 그을음이 많이 나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다. 요즘은 이 풍속이 사라졌다.

• **밤새기** : 정월 14일 밤에 잠을 자지 않는 풍습이 있다. 이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선다고 한다. 과거에는 잠을 자지 않고 밤새 놀았으나 지금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14일 밤에도 잠을 잔다.

• **오곡밥과 묵은 나물 먹기** : 정월 14일은 점심 때 오곡밥을 해서 저녁까지 먹는다. 보름밥을 먹으면서 김치를 먹으면 일할 때 눈에서 생고자리 쏘이는 말이 있다. 15일 아침은 막은밥(백반)을 지어 먹고 오곡밥은 먹지 않는다. 아침 이후의 밥은 아무 밥이나 상관없다. 15일 아침밥을 먹을 때는 흰쌀밥에

김을 싸먹는다. 15일 아침밥은 새벽 일찍 불을 켜놓고 먹는다. 이날 아침밥을 일찍 먹어야 일찍에 일을 할 때 부지런하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보름날 아침에 떡국을 먹거나 흰떡을 먹는 집도 있다.

• 보름밥 흄처먹기 : 14일 저녁에 천에는 아이들이 보름밥을 흄처먹기 위해 이집 저집 다니며 흄처먹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했다. 근래에는 이런 풍속이 사라졌다.

• 제홈 버리기(허재비 버리기) : 제홈을 이 마을에서는 '허재비'라고 한다. 14일날 저녁에 그해 수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허재비를 짚으로 만들어 그 속에 돈을 넣어 둔다. 이렇게 해 두면 동네 아이들이 와서 달라고 한다. 허재비를 만들어 놓은 집에서는 이것을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은 허재비를 가지고 가서 논바닥 등에 버리고 돈을 꺼내어 가지고 간다. 허재비는 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제보자 이점순은 전에 자식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몇 번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다.

• 아홉 번 행동하기 : 14일 날 '밥 아홉 그릇 먹고 나무 아홉 짐 하기', '메 아홉 번 맞기' 등 무슨 일이든 아홉 번 행동한다는 말이 있다. 이날은 밥도 많이 먹고 일도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

• 과일나무 장가보내기 : 14일 오후에는 과일나무 가재이에 나무나 돌을 엎어 놓는 풍습이 과거에는 있었다. 조밥은 올려놓는 것은 보지 못했다. 대추나무, 감나무, 살구나무 등 주로 울안에 있는 과일나무에 이렇게 했다. 과수원에 있는 나무에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

• 달맞이 : 15일 또는 16일 망월드는 날 마을 앞 논이나 밭으로 나가 달맞이를 한다. 달이 뜨면 망월대(조짚 또는 조짚이 없을 때는 짚에 나이 수만큼 뱃들을 끓여 만든 것)에 불을 붙여 달뜨는 곳을 보고 자기 소원을 빌고 불이 다 빛 때까지 소원을 빌면서 절을 한다. 이것은 주로 젊은 사람이나 아이들이 한다. 여자들은 마을 뒷산으로 달맞이를 간다. 달맞이를 가서 달을 보고 절을 하고 소원을 빈다. 지금은 단절된 풍습이다.

• 보름달 보고 풍흉첨치기 : 망월이 들 때 '달이 청명하면 농사가 잘되고
붉으면 가뭄다'는 말이 있다. 과거에는 농사가 중요한 생업이었으므로 보름
달을 보고 이런 말을 많이 했으나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다.

• 소밥주기 : 15일 아침에 소에게 키에 오곡밥과 나물을 담아 가지고 가서
소죽통에 준다. 소가 오곡밥을 먼저 먹으면 그해는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먹으
면 흉년이 든다는 말이 있는데 전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지금은
마음에 소를 키우는 사람이 없다.

• 개보름쇄기 : 15일 낮에는 개를 긁힌다. 이날 낮에 긁겼다가 저녁이 되어
서 밥을 준다. 요즘도 개를 기르는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 부럼 깨물기 : 대보름날 아침에 부럼을 한다고 하여 석사하기 전 잣,
호두, 밤, 땅콩 등을 깨문다. 부럼은 지금도 메년 한다.

• 귀밝이술 마시기 : 귀밝이술은 귀가 맑아지라고 하는 것인데 15일 아침
에 석사를 하기 전에 마신다. 술은 막걸리보다 청주를 사용한다. 지금도 이
승습은 지켜지고 있다.

• 더위팔기 : 보름날 더위를 판다고 하여 해뜨기 전에 보는 사람에게 이름
을 불러 상대방이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고 하며 더위를 판다. 요즘에는
더위팔기를 하는 사람이 드물다.

• 세쫓기 : 과거에는 15일 아침에 아이들이 해뜨기 전 마당에 서서 지붕으
로 가마귀가 못 날아가게 쫓았다. 이날 지붕으로 가마귀가 날아다니면 좋지
않다는 말이 전해진다.

• 쌍용줄다리기 : 내용은 놀이부분 참조

[2월]

(1) 이월 초하루

• 여자들 남의 집에 일찍 안 가기 : 이날 "여자들이 남의 집에 일찍 가면
닭이나 짐승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또한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집안의
가축이 되지 않는다". 이날 "바람이 많이 불면 불에 바람이 많이 분다"는

만도 있다.

• 나이먹기 : 초하루날 아침 송편을 할 때 빵을 숟가락으로 가족의 나이 수만큼 떠서 빚는다. 송편은 아침밥을 먹을 때 자기 나이 수만큼 담아서 먹는다. 전에는 주민들이 초하룻날 이 풍속을 많이 지켰으나 요즘은 하는 경우 드물다.

(2) 경칩

• 도룡이알 먹기 : 경칩 무렵부터 이른봄에 도룡이알을 먹는다. 현재 남서울 골프장이 있던 자리에 과거 도룡이알이 많이 있었다. 도룡이알이 신경통, 요통에 좋다고 해서 지금도 도룡이알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

(3) 원종

• 쯔생이점 : 2월 6일 쯔생이별이 달에서 멀리 떨어져 가면 배가 고파서 가는 것이고 쯔생이별이 달과 가까이 따라 가면 배가 고파서 밥을 얻어먹으려고 가는 것이다. 쯔생이별이 달과 가까이 가면 그해에 흉년이 든다는 말이 있다.

[3월]

(1) 삼진날

• 처음 본 나비색깔로 점치기 : 삼진날 “흰나비를 보면 상계가 되고 호랑나비를 보면 칠하다”, “별과 같은 날짐승을 보면 그해는 둘이 가볍다”는 말이 있다.

• 느티나무 잎 피는 것 보고 풍흉점치기 : 이 마을에는 1동과 2동에 각각 느티나무가 있다. 이 느티나무를 보고 풍흉을 점친다. 느티나무의 잎이 높은 곳이 먼저 피면 높은 자리의 모를 먼저 내고 낮은 곳이 먼저 피면 낮은 자리의 모를 먼저 심는다고 한다. 한꺼번에 많이 피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다.

(2) 한식

연안 이씨(延安李氏)의 이의동의 집에서는 과거에는 한식날 산소에 가서 한식차례를 지냈으나 지금은 집에서 신주를 써놓고 차례를 지낸다. 이의동의 집에서 한식차례를 지낼 때도 송편, 과일, 고기 등을 올리며 밥이나 국은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차례보다 한식차례는 간소하게 한다. 지금도 이마을에서는 한식차례를 산소에 가서 지내는 사람이 있다.

▶ 한식날 날씨 보고 풍흉점치기 : 한식에 “천둥이 치고 비가 오면 흉년이 들어 큰일난다”고 하며, 이날 “서리가 오면 땅이 석 자 세 치가 된다”는 말이 있다.

(3) 월중

▶ 놀이 : 예전에는 이밥때 버들가지 물오른 줄기를 틀어서 아이들 풀피리 만들어 불었다. 또한 풀싸움을 했는데 토크풀의 뿌리를 뜯어 서로 끼워 당겨서 떨어지는 사람이 진다.

(4월)

(1) 초과일

절에 가는 사람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등을 탄다. 절에서는 여러 가지 불교행사가 거행된다. 절에 안 가는 사람은 이날 일상생활을 한다.

(5월)

(1) 단모

▶ 약쑥 배기 : 단오날 약쑥을 베어 달려둔다. 약쑥은 산모가 있을 때 산모와 아이를 췋기는데도 사용되며 약쑥을 삶아 오강 속에 넣어 산모가 앓아 몸에 쪐기도 한다. 또한 품을 뿐 때도 사용하며 여름에는 모기향으로도 사용한다. 약쑥이 독하여 불을 괴워놓으면 모기향으로 좋다. 과거에 성냥이 없을 때는

부싯돌에 갈아 불을 피우는 데도 사용했다. 과거에는 집안에 불을 끄뜨리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여 화롯불을 여러 개 준비하여 그 속에 약쑥을 넣어 항상
불을 피워놓았다. 특히 '여느리들이 불씨를 끄뜨리면 시집살이 못한다'라고
하여 불씨를 소중하게 다루었다. 요즘은 약쑥을 제취하는 사람이 드물다.

▶ 익모초(육보초)즙 마시기 : 단오에 익모초(주민들은 육보초라고 발음함)를
수확해 두었다가 여름에 더위를 먹거나 배앓이할 때 이슬에 맞추어 마늘을
넣어 즙을 내어 먹는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다.

▶ 쑥떡 빚어 먹기 : 단오날 쑥떡을 많이 만들어 먹는다. 약쑥과 함께 일반
찹쌀도 단오경에는 많이 난다. 지금도 쑥떡을 빚어 먹는 사람들이 있다.

▶ 상추잎에 맷힌 이슬로 블바르기 : 전에는 단오날 상추잎에 맷힌 이슬을
받아서 장분(옛날 가루분)에 섞어 얼굴에 발랐다. 이렇게 하면 "얼굴에 바침
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 청포(창포)에 머리褰기 : 단오가 되면 여자들은 청포일 삶은 물로 머리를
감는 풍속이 있었다. 요즘은 삼푸 등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

▶ 놀이 : 단오가 가까워오면 느티나무에 그네를 만들어 뺨다. 그네를 만드는 것을 '그네 들인다'고 한다. 그네를 둘일 때는 젖을 세 가닥으로 만들어
세 명이 서서 돌려가며 그네줄을 끈다. 과거에는 마음청년들이 이렇게 그네
를 만들어 놀아주면 주민들이 타고 놀았다. 지금은 사라진 풍속이다.

(6월)

(1) 월중

▶ 창외발 고사 : 유두 무렵에는 창외농사를 많이 짓는 집에서는 창외밭에
터줏가리를 해놓는다. 그리고 일부침개를 해서 기름냄새를 풍기면서 터줏가
리 앞에 막걸리와 밀떡을 올리고 고사를 지낸다. 이것은 창외가 많이 열리고
창마에 빠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과거에 창외농사를 할 때는 고사를 많이
지냈다.

• 新雨풍속 :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심하면 천에는 부녀자들이 채를 들고 개울로 가서 물을 까물었다. 지금은 단절된 풍속이다.

• 두레 : 예전에는 마을에 두레가 있었다. 여름에 일터에 나갈 때 특히 모심기나 김베기를 할 때는 두레째가 아침에 모여 함께 풍물을 치면서 일터로 나갔다. 일터에 농기를 세워놓고 선소리꾼은 논가에서 선소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논에 들어가서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추어 뒷소리를 받으면서 일을 했다. 일터에서 식사는 참 두 번, 식사 두 번이 나왔다. 항상 밥이나 음식을 먹을 때는 먼저 논에 고시례를 하고 먹었다. 과거에는 두레가 번성했으나 40여 년 전 단절되었다.

• 봉선화 물들이기 : 봉선화물을 들이는 것은 요즘의 젊은 아이들도 많이 한다. 보통 음력 6월 무렵 봉선화꽃을 따서 여자아이들이 손톱에 물을 들인다.

[7월]

(1) 칠석

• 칠석맞이 :

- 민간 - 예전에는 부녀자들이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이날 치성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다.
- 무속 - 무속을 믿는 사람들은 칠석날 만신집에 가서 가족들의 수명장 수를 빈다. 만신은 단발을 위해 축원을 해 준다. 칠성날이 되면 요즘도 이렇게 한다.
- 불교 - 절에 가는 사람들은 칠성날 절에 가서 치성을 드린다.

• 칠석고사 : 칠석날 집안의 성주, 위하던 항아리 등에 고사막을 올리고 고사를 지내거나 간단히 터줏가리에만 밀떡과 참회를 올리고 비손을 하는 집이 있었다. 칠석날 터줏가리에 밀떡과 참회를 올리는 풍속은 과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풍속이었다. 요즘은 칠석고사를 지내는 집이 드물다.

(2) 백중

• 백중장 가기와 머슴대접 : 전에는 백중날 판교시장에서 백중장이 열었다. 너디리다리 밑에는 씨름관이 형성되어 씨름을 했다. 과거에는 시장에 소장(牛市場)도 있었다. 전에는 인근의 분당장, 고등동장 등과 비교해서 판교장이 가장 커다. 머슬이 있는 집에서는 머슬에게 이날 종의적살과 노잣돈을 주어 백중장에 가서 하루 놀다오도록 했다. 머슬들에게는 1년에 옷을 두 번 해주는데 백중 때 한번 해 주고 가을에 일이 끝난 후 세경을 줄 때 솜옷 한 벌을 해주었다.

(3) 월중

• 복날 : 지금도 복날에는 '복대래미'한다고 하여 개나 닭을 잡아먹는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이날 수박이라도 사서 먹는다.
• 벌초 : 음력 7월 중순에서 말까지 이 기간 안에 벌초를 한다. 지금은 직장인들의 사정으로 주로 중순에서 말 사이 휴일에 많이 한다.

[8월]

(1) 추석

• 차례와 성묘 : 추석날 아침 8-9시경에 차례를 지낸다. 延安 李氏 이외동의 집에서는 차례상에 송편, 과일, 죽, 향, 고기 등을 올리며 밤은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차례는 종가집의 경우는 4대조 즉 고조부까지 차례를 모시며 宗家가 아닌 집에서는 기제사 때 모시는 조상을 차례 때 모신다. 차례가 끝나면 식사를 하고 성묘를 간다. 성묘를 갈 때 이외동의 집에서는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성묘 때 음식을 가지고 가는 집도 있다고 한다.

[9월]

(1) 월중

• 산제 : 9월 그믐에 산제를 치낸다. 내용은 민간신앙 부분 참조

[10월]

(1) 월중

• 시향(시제) : 같은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유파의 경우 집안마다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 마을의 대표적 토착양반이며 토박이로 살아온 연안 이씨(延安李氏)의 시향을 소개해 본다.

10월에는 5대 이상 조상들의 산소에 가서 자손들이 함께 시제를 치낸다. 마을의 연안이씨들의 경우 宗家의 5대 이상 직계조상 15-16位 정도는 이곤의 사당에서 시향을 치내고 나머지 방계자손들은 각자 자손들이 산소에 가서 시향을 치낸다. 연안 이씨들은 과거부터 판교와 화산운동에 뿌리를 내려 살아왔기 때문에 화산운동과 판교 인근의 산에 많은 선산이 있다. 宗家의 시향을 치낼 때는 인근의 많은 연안 이씨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제를 치낸다. 종가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일일이 산소에 찾아가서 시향을 치냈으나 산소가 너무 많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제를 치내기 힘들어 현재는 한꺼번에 연성군 이곤의 사당에서 시향을 치낸다고 한다.

조사자는 1998년 11월 30일 이곤의 사당에서 연안 이씨(延安李氏)一家가 모여 시향을 치내는 것을 참여관찰하였다. 제사상은 홍동백서로 차렸다. 특히 이한 것은 제사상에 한꺼번에 제물을 올리지 않고 焯炙, 肉炙, 鱼炙은 초현, 아현, 종현관이 차례로 잔을 올리고 배례를 한 후에 각각 하나씩 올렸다. 먼저 초현관이 잔을 올리고 배례를 한 후 익을 올리고, 축관이 축문을 읽고 난 다음, 아현관이 잔 올리고 배례하고 익하나를 올리고, 다음은 종현관이 잔 올리고 배례하고 익하나를 올렸다. 이날 종가의 시향은 종가에서 모셔온

한 15-16명 정도의 조상을 전부 모셔야 하므로 제상을 세 번 바꾸어 세 차례 제를 올렸다. 첫째 상에는 연성군 이곤과 그의 부친 연안군 李仁文, 조부 침의공 이건전을 모시고 먼저 제를 지내고 둘째와 셋째 제사에는 그 아래 조상들을 차례대로 모셨다.

이곤은 종종 반정 때 참여하여 공신이 되었다. 따라서 종종은 이곤에게 '부조묘'를 허락했다고 한다. 이의동에 의하면, 부조묘(不遷之位)는 4대가 넘어도 계속해서 자손들이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이 허락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특별히 국가에 공훈이 있어 임금이 허락할 때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곤의 기제사는 宗家의 밭에서 지내며 정월 초하루와 추석에는 사당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관교 2통에 있는 이곤의 사당은 종종이 別廟로 내린 것으로 그 동안 약간의 보수는 있었으나 건축한 이후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 왔다고 한다. 이곤은 국가로부터 이 지역의 뒷산과 마을 앞 토지, 집터 등을 하사 받아 지금도 같은 토지가 연안이씨의 소유다. 뒷산은 문중의 공동소유다.

▶ 안택고사 : 내용은 민간신앙 부분 참조.

[11월]

(1) 봉지

▶ 팔죽 : 이 마을은 과거부터 대대로 팔죽을 쓰지 않았다. 조상 중에 장티푸스 즉 "염병(염병, 열병)을 앓아 죽은 사람이 있으면 팔죽을 쓰지 않는다". 옛날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 지방에 있었으므로 전부터 쓰지 않았다.

[12월]

(1) 날달그림

▶ 북은세례 : '북은세례'라고 하여 그믐날 집안어른들과 동네어른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올 때 일년동안 감사했다는 마음으로 북은세

배를 하고 나온다. 또한 가까운 산소에도 찾아가서 절을 하고 온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으나 지금은 사라진 풍속이다.

•수세 : 선달 그들에 참을 자면 눈썹이 선다고 하여 전에는 이날 밤을 지새었다. 애들이 자면 밀가루로 눈썹에 칠타는 장난도 쳤다. 지금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2) 월중

•참새잡이 : 겨울철에 참새를 잡으려 예전에는 많이 다녔다. 마을 주위에 참새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잡았다. 지금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 읊달 】

요즘도 “산소의 면례(縮禮, 주민들은 ‘밀례’라고 발음함)나 오래 된 산소를
파내어 화장하는 일”들은 윤달에 많이 한다. 이 마을에서도 금년 윤3월에
오래 된 산소를 파내어 화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일은 주로 윤달에
한다.

•조사일자: 2001년 5월 16일, 제보자: 김대자(74세, 여), 유키방(80세, 여), 이현숙(60세,
여), 이희봉(79세, 남, 709-1734, 연안 이씨로 이 마을에서 집안 대대로 살아왔음), 김종용(70
세, 남, 709-1397, 김씨(金氏)로 고조 배부터 판교 1동에서 거주해 왔음), 정인철
(남, 71세, 2000년 봄에 매 달주), 이근태(80세, 여), 이생방(70세, 남, 707-1369), 안종천(64세,
남)

2. 놀이

쌍용풀다리기

월별 놀이에 관해서는 세시풍속에서 언급했으므로 여기에서는 판교의 대
표적인 짐단놀이인 쌍용풀다리기를 소개한다.

대보름에는 마을 시장통의 큰 느티나무(판교1동에 수령이 500년 가량 된

보호수)에 고사를 지내고 출다리기를 한다. 보름이 되기 몇 일 전부터 마을의 남정네들은 마을 앞 느티나무 아래 넓은 시장통 앞(고속도로가 나기 전에 그곳에는 신작로가 있었으며, 신작로를 따라 길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5일마다 장날이 되면 인근의 주민들도 이곳에서 장을 보았다)에서 줄을 끈다. 쌍용줄다리기라고도 하는 이 출다리기에는 큰 용과 간이 짚고 수십 미터가 넘는 긴 줄을 꼬아야 한다. 전에 농사를 지을 때는 마을 청년들이 길길마다 절을 한두 단씩 거두어 출다리기에 사용했다. 과거 100호일 때 두 단씩이면 200단 정도 된다. 즉 출다리기에 절이 100-200단 정도 사용되었던 줄은 3가닥으로 절을 짚어 7명이 각각 한 가닥씩을 잡고 꼬는 데 전부 21명이 3일 정도 꼬아야 한다. 줄의 길이는 50미터가 되며 암줄과 숫줄을 합치면 100미터 정도 된다. 줄에는 사람들이 잡아 당길 수 있는 계줄을 만들어 놓으며 출다리기가 시작되면 암줄과 숫줄 사이에 비녀목을 넣는다. 출다리기는 많은 사람들의 협동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보름날 저녁(6-7시) 주민들은 느티나무 앞으로 모인다. 느티나무 앞에서 새해의 풍작을 기원하면서 폐를 지낸 후 시장통 도로에서 주민들은 출다리기를 한다.

풀풀때는 출다리기를 할 때 옆에서 풍물을 친다. 과거에는 인근의 화산운동, 운중동, 백현동은 물론 멀리서 구경온 사람들도 있어 마을은 인산인해(2동 주민 이광범에 의하면, 과거 1,2통을 합치면 100호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출다리기가 벌어지면 한길에 5-6명씩만 나와도 5-600명은 되었다고 함)를 이루고,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주머니들은 느티나무 앞 공터에 큰 가마솥을 걸고 국을 끓이고 음식을 준비하여 참여자들을 대접한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하던 출다리기는 3년에 한 번이 되고 5년에 한 번이 되더니 어느새 단절의 위기에 놓였다. 마을에서 출다리기를 마지막으로 한 것은 김종용이 18년 전 이장을 할 폐를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근래에는 경노당 노인네들이 정월 보름이 되면 노인정에 보관해둔 악기를

메고 아침 11시쯤 풍물을 치며 느티나무 아래로 가서 잔을 올리고 절을 하며 간단히 제를 올린다. 그리고 난 후 마을을 돌아다니며 고사반을 한다. 마을 전부를 물지는 않고 술상을 차려놓고 부르는 몇 집만 간다. 노인네들은 그 키 앞이며, 마당 등지에서 풍물을 쳐주고 음식을 대접받는다.

단절되었던 판교의 쌍용줄다리기는 2001년 대보름날 판교조합과 주민들의 협조로 재현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사자도 참석을 했는데 성남지역의 유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날은 저녁 7시경에 줄다리기를 했다. 성남시에서는 판교 줄다리기를 금년부터 이 지역의 지역축제로 매년 경례화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날 줄다리기는 판교 마을 안 2차선 도로에 암줄과 수줄을 양쪽에 놓고 고사를 지낸 후 신랑, 신부가 나와 줄 위(암줄과 수줄의 머리부분 즉 ‘용머리’에 단다)에 올라타서 힘겨루기(암줄의 줄머리에 수줄을 끼우려고 하면 한참 동안 암줄은 파해 다니면서 베된다)를 하고 암줄에 수줄을 넣어 피니목을 끼운 후 줄을 당겼다. 편은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미혼남자는 여자편에 섰다. 예로부터 남자가 이기면 흉년이 들고 여자가 이기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었다 한다. 이날은 세 판을 해서 여자가 두 번을 이겼다. 줄 당기기를 끝내고 풍물패가 신령나게 풍물을 치며 노는 가운데 줄을 메고 주민들은 마을 시장통을 지나 마을창고에 줄을 보관하러 갔다. 과거에는 줄 달기기를 한 후 줄은 볶음을 막는데 사용한다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나 금년에는 가을에 성남시민축제 때 다시 한 번 더 사용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해 두기로 했다 한다. 줄다리기를 하기 위해 짚을 구하는데 현재는 대로사람이 많다. 과거에는 낫으로 벼를 베어 깊이 깊어 줄을 끼는데 적합했으나 지금은 벼를 대부분 기계로 베게 됨에 따라 바탕한 짚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따라서 금년에는 타지역에서 줄을 끼기에 적합한 짚을 구입해 왔다.



줄다리기를 하기 위해 줄을 켜어 거리에 내놓았다



줄다리기를 하기 전에 풀풀대가 줄풀을 하고 있는 모습



풀풀대 줄에 달을 끈 접식의 모습



줄다리기를 하기 전 고사당 제풀자리



줄다리기를 하기 전 고사를 지내는 모습



소를 머리 위에 한 신부



말을 머리 위에 한 신부

III. 일생의례

1. 혼례

이 글에서는 이순덕(전주 이씨)·이호석(평창 이씨) 부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기술한다. 이순덕은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서면 외수리가 고향이다. 20세 때 6.25를 맞이하여 판교지역으로 피난을 와서 살다가 1952년경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호석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 두 명을 두었으며 32세 때 남편과 사별하였다. 결혼할 당시 신부의 나이는 22세, 신랑의 나이는 29세였다. 주민들간에 사례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려되나 이 글에는 이순덕의 제보를 중심으로 1950년대 초반 판교지역 혼례풍속의 일부분을 규명해보는데 의미를 둔다.

1) 혼례전의 절차

- 중매·맞선 : 이순덕이 결혼할 당시에는 맞선을 볼 때 당사자들은 대면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순덕의 경우에도 중매가 들어와 양가의 어른들이 만나서 혼례를 결정하고 날(혼례일)을 받았다.
- 고사 : 날을 받기 전에 신부집에서는 신부의 모친이 시루떡을 찍어서 안방에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절을 두 번 하고, 혼사가 이루어졌음을 고한다. 고사

의 절차는 일반 안택고사 때와 동일하다.

• 함 보내기(納幣) : 혼례인이 가까워 오면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신부의 저고리갈과 혼서지를 넣은 함을 보낸다. 함이 도착하면 신부집에서는 마루에 상을 펴고 함먹(벽은 참쌀가루를 넣고 팔고물로 켜를 충충이 하여 만든 활막)을 올려놓고 함을 받는다. 신랑집에서 함을 보낼 때 나무로 만든 오리를 함께 가지고 오는데 신부의 모친은 먼저 오리를 받아서 방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마루로 나가 상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난 후 신랑은 함을 올려놓은 상에 절을 두 번하고, 신부의 모친은 함을 지고 온 일행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함은 신랑친구들이 지고 오는데 신부집 근처에 다다르면 들어오지 않는다고 얼포를 놓고 심술을 부린다. 이렇게 하면 신부집에서는 돈을 건네주며 들어오기를 원한다. 전에는 함을 진 사람이 신부집에 다다르면 신부집에서는 함을 진 사람의 얼굴에 검정숯을 얼굴에 칠했으나 근래에는 얼굴에 오징어를 쓰는 사람도 있다. 함이 들어와서 신부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에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신랑·신부와 혼례식 전까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다.

2) 혼례식과 그 후의 절차

• 신랑의 신부집 가기(親迎) : 초례는 신부집에서 한다. 신랑집이 먼 경우에는 혼례일 전날 마을에 들어와서 이웃집에서 대기했다가 혼례식에 참석하나 가까운 경우에는 당일 아침에 온다. 신랑은 혼례식을 하기 위해 신부집에 올 때 과거에는 당나귀나 말을 타고 신부집으로 왔다. 이호석의 경우에는 당나귀를 타고 왔다.

• 혼례식 : 신부집에서는 마당에 대례상을 차려놓고 신랑을 맞이한다. 신랑이 도착하여 대례상 앞으로 들어올 때 동네청년들이 신랑에게 재를 뿌리며 장난을 친다. 신랑이 대례상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바가지를 엎어놓는다. 신랑은 바가지를 밟고 들어온다. 이것은 잡귀를 피치하기 위한 것이다. 대례상은 신랑·신부가 동서(東西)로 볼 수 있도록 놓는다. 대례상에는 장닭과 활

닭을 올려놓는데 혼례식이 끝나면 닭을 내려서 닭의 입에 대추를 물리고 둑었던 것을 풀어주어 지붕 위에 던진다. 이때 사용하는 닭은 집에서 기르던 닭을 사용하므로 이렇게 하여 닭을 다시 풀어주는 것이다.

• 신랑집으로 가기(新行) : 대례가 끝나면 신부는 식사를 하고 활옷을 벗고 (목도리와 비녀는 첫날밤에 신랑이 풀어줄 때까지 그대로 둔다) 노랑저고리와 다흥치마를 입고 가마를 타고 신랑집으로 간다. 신랑은 신부집에 올 때와 같은 차림으로 신부를 데리고 자기집으로 돌아온다.

• 신부가 신랑집으로 들어올 때의 풍속 : 신랑·신부가 신랑집 동네어귀로 들어오는 것이 멀리서 보이면 신랑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집의 주녀 밖으로 나간다. 만약 이때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신부가 신랑집으로 들어올 때 '주당살을 맞는다'는 말이 있다. 신부가 신랑집 마당에 들어설 무렵에는 마당에 소금을 뿌려놓는다.

• 차례 : 신랑집에 와서 폐백을 드리기 전 먼저 대청에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낸다. 차례상에는 국수(밥은 올리지 않음), 술, 과일, 맥 등을 올린다. 신랑·신부는 폐백 때의 복장과 동일하게 입고 함께 절을 한다. 이것은 혼례가 이루어졌음을 조상께 고하기 위한 것이다.

• 폐백(幣帛) : 신랑·신부가 집안으로 들어오면 신랑집 일가친척들에게 폐백을 드린다. 폐백은 시부모→조부모… 등 가까운 가족, 친척들 순으로 모셔놓고 신랑·신부가 함께 절을 한다. 시부모에게 폐백을 드릴 때는 시부모가 신부의 치마에 밤, 대추를 던지며 '아들딸 몇 만나라'고 한다.

• 식사 : 폐백을 드린 후 신랑·신부는 식사를 한다. 이때 신랑은 바가지에 국수를 담아 굴뚝 옆에 가서 긴 막대기갓가락으로 먹는다.

• 신방(新房) : 신랑·신부가 신방에 들어가면 신랑은 신부의 족두리와 비녀, 웃고배를 풀어주고 신부는 신랑의 두루마기 고름파 대님을 풀어준다. 신방에는 신방상과 체를 차려놓는다. 신방상에는 쌀, 물, 술, 풍, 판, 소여물을 한 주발씩 올려놓으며, 둥근 체에는 밤에 먹으라고 과일, 꽂감, 대추, 밤을 담아놓는다. 술상은 차려놓지 않는다. 신랑·신부가 신방에 들어가면 구경

문들이 문구멍으로 보면서 신랑에게 신부의 입에 '음식을 넣어 주라', '맛있냐고 물어 보라', '웃을 벗겨라' 등 농담을 하며 장난을 치다가 신랑·신부가 불을 끄고 차면 돌아간다. 3일 도박 : 신랑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3일 도박'이라고 하여 신랑은 혼자서 신부집에 가서 장인·장모 및 친척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다. 이날은 하루밤을 자고 돌아오는데 저녁에 치갓집 동네 청년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근친(覲親) : 신부는 시댁에서 1년을 넘긴 후 친정으로 '첫 근친'을 간다. 이때는 떡을 해서 소에 찬뜩 실이 가지고 간다. 친정집에서는 이때 온 떡을 동네 사람들에게 들린다. 신부는 친정집에서 한 달 정도 죽 쉬었다가 시댁으로 돌아온다. 신부가 시댁으로 돌아갈 때도 친정집에서는 떡을 해서 소에 실어 보낸다. 시댁에서도 이때 들어온 떡을 동네사람들에게 들린다.

3) 혼례용품

(1) 혼례복

- 신랑 : 속에는 바지·저고리를 입고 사모(紗帽)를 쓰고 단령(團領)을 입고, 품대(品帶)를 두르고 목화(木鞋)를 신는다.
- 신부 : 속에는 연두저고리에 분홍치마를 입고 겉에 활옷을 입는다.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쪽두리를 쓰며 양 복에 연지를 찍는다.

(2) 혼례음식 및 물품

- 대례상 : 대례상은 신부집 마당에 동서(東西)로 신랑·신부가 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꽃병	꽃병
스니두	스니두
꽃대(謁)	꽃대(謁)
김단	김단
밥	밥
굴진	대추

『대례설』

▶ 주안상 : 주안상은 대례 때 신랑·신부 양쪽에 하나씩 놓으며 작은 상에 술잔과 안주, 젓가락을 올려놓는다. 주안상 옆에는 대야와 수건을 준비해 놓는다.

▶ 폐백상 : 폐백음식은 신부집에서 준비하여 신랑집에 보내는데 통닭에 음식으로 꽃장식을 하고 대추, 밤, 약과 등을 실로 케이 모양을 보기 좋게 만든다.

▶ 신방상 : 신랑·신부가 첫날밤을 맞이하는 신방에는 신발상과 과일, 꽃감, 대추, 밤 등을 담아놓은 등근채를 넣어준다. 신방상에는 쌀, 물, 술, 품, 팔, 소이물을 한 주발씩 달아 무경을 덮어 올려놓는다. 신부가 첫날밤에 신방상의 주발을 두 개를 열어보는데 팔과 물을 열어보면 가장 좋으며 술을 열면 좋지 않다. 특히 팔주발을 열어보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 하객접대 음식 : 신랑집과 신부집에서는 혼례찬치 때 하객들이 오면 국수를 대접한다. 신랑집에서는 벼, 강정, 약과, 고기, 부침개 등을 빼서 하객들이 갈 때 하나씩 나누어준다.

▶ 혼례시 운반도구 : 신랑은 말이나 당나귀를 탄다. 말은 인근에서 돈을 내고 빌려온다. 신부는 가마를 탄다.

▶ 혼례용품 보관 : 과거에는 마을회관에 혼례용품(사모판대, 가마 등)을 보관했다. 5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마을회관에 보관했으나 그 후 혼례식을 예식장에서 하게 됨으로 전통 혼례식 때 사용한 혼례용품은 없어졌다.

▶ 혼수물 : 신랑집에서는 환을 보낼 때 신부가 혼례 때 임을 치마·저고리감(노랑저고리·다홍치마)을 보낸다. 신부집에서는 시부모와 친척들의 옷 한 벌, 시부모 이부자리(요, 이불, 배개), 신랑·신부의 이부자리, 신랑의 바

지·처고리를 흔수물로 준비하며 신부가 시집가서 사용할 화장품(분) 등도 준비해 간다. 신부는 차녀 때 시집갈 때 가지고 갈 이불보 등에 수를 놓는다. 혼례 때 비용은 남자보다 여자쪽이 더 많이 들어간다.

과거에 일반 가정에서는 혼례 때 반지 등의 패물이 없었다. 반지 등의 패물은 부잣집에서나 주었다.

4) 이웃과의 관계(사회적 측면)

• 부조 : 친지가 있으면 이웃사람들은 친지집에 와서 음식장만 등 각종 일을 도와주며, 과거에는 돈이 귀하여 하객들은 부조로 국수를 한 간씩 사서 부조했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주로 돈으로 부조를 하였다.

• 통혼원 : 과거에는 통혼원이 가까운 이웃마을이나 수원, 용인 등의 인근의 군지역에서 혼인이 이루어졌다. 중에는 주로 친척들이 사는 마을에서 들어왔다.



김종윤 부부의 혼례 패모습(1960년대)

2. 회갑

• 회갑을 하지 않는 경우 : 회갑 잔치는 61세 생일에 한다. 회갑을 맞이하는 사람이 그 해 수가 좋지 않거나 삼재가 들면 회갑 잔치를 하지 않는다. 부부가 두분 모두 생존해 있을 때는 대개 남편의 회갑은 크게 하나 여자의 회갑은 간단히 동네사람을 불러 식사를 한꺼 대접할 정도다. 과거에는 이때도 국수를 대접했다. 회갑을 맞이하는 사람이 남편이나 부인과 사별을 했을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바지·저고리, 신발을 준비하여 회갑상을 받을 때 옆에 두었다가 잔치가 끝난 후 깨끗한 곳에 가서 태운다.

• 돌아가신 분의 회갑 : 회갑 전에 죽은 조상이 있는 경우에는 회갑이 되는 해 아침에 '회갑차례'라고 하여 동네사람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며 잔치를 한다.

• 선물 : 자손들은 회갑을 맞이하는 분에게 반지, 목걸리, 옷 등을 해 드린다. 회갑을 맞이하는 사람은 이날 자신에게 절을 하는 자손들에게 옷을 한 벌씩 전부 해 준다. 이승덕은 회갑때 자손들에게 해 준 옷이 전부 65벌이라고 한다.

• 회갑차례 : 회갑 잔치날 아침에 대청에서 조상님께 차례를 지낸다. 차례상에는 절편, 인절미, 콩설기, 약식, 김주, 수정과 등 잔치상에 올리는 음식과 같은 종류로 올린다.

• 회갑상 차림 : 회갑을 맞이하는 사람은 자손들에게 회갑상을 받는다. 회갑상에는 앞줄에 과일과 과자 등을 꾸어 보기 좋게 올리고 뒷판에는 인절미, 절편, 송편 등을 올린다.

• 회갑상 받기 : 회갑상을 받는 것도 때를 보고 받는다. 때는 책력을 보거나 만신에게 물어본다. 때가 되면 회갑상에 앉아 자손들에게 절을 받는다. 장남부터 잔을 올리고 절을 하며 자손들이 순서대로 절을 한다. 이때 주는 잔은 받아서 술을 마시는 최 입에 대었다가 끼주그릇에 쏟는다. 회갑상을 받고

난 후 모인 사람들은 풍물을 치면서 논다.

• 장조 : 과거에는 회갑잔치를 집에서 했으나 20년경부터는 음식점에게 많이 한다. 요즘은 주로 성남에 나가서 한다.

• 잔치음식 : 회갑상에 차릴 음식과 하객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위해 빙을 및 말찌하며 봉迥지를 팝고 여러 가지 음식을 충분히 장만한다.

• 하객 : 회갑이 다가오면 청첩장을 끌려 하객들을 칭한다. 과거에는 회갑 전날이 되면 일가친척, 사돈 등 가까운 친지들이 왔다. 이때 친지들이 오면 몇 일간 머물렀다 가기 때문에 몇 일 동안 잔치 분위기였다. 동네사람들은 회갑날 점심 무렵에 온다. 이때 와서 바쁘지 않은 사람들은 저녁까지 먹고 간다. 전에는 혼례 때와 같이 회갑 때도 하객들에게 국수를 주었다. 하객들이 갈 때는 음식을 끝고루 넣어 종이에 싸서 준다. 나무 도시락이 나았을 때는 나무 도시락에 음식을 넣어 주기도 했다.

• 부조 : 요즘에는 돈을 주지만 전에는 동네사람들이 빙, 김주 등 잔치음식을 해왔다. 공장국수가 나온 후로는 결혼식 때는 주로 국수를 부조로 했으나 회갑에는 공장국수가 나온 후에도 음식을 가져갔다. 동네아주머니들은 와서 천을 부쳐주거나 설걸이 등을 해준다. [제보자 : 이순덕]

3. 상례

1) 상례의 진행과정

(1) 입종 직후의 절차

• 경제수사(整齊收斂) : 입종하면 먼저 칠성관을 가지고 온다. 칠성관 위에 시신을 올리고 손발을 묶은 다음 흙이불을 덮어 웃목에 둔다. 그리고 방풍이나 듯자리로 가려놓는다. 이때 방안의 장풍 등 가구는 밖으로 내놓는다. 방풍 앞에는 촛불과 향을 피워놓고 술 한잔(막걸리)을 놓는다. 과거에는 입관 후부터 문상객을 받았으나 요즘은 이때부터 문상객을 받기도 한다.

▶ 사자상 : 절구통이나 키 위에 밤 세 그릇, 절신(요즘은 고무신을 사용하기도 함) 세 퀸체, 동전 등을 올려서 대문 근처에 둔다. 사자상은 이렇게 한번 차려 놓으면 깊지 않고 출상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출상하는 날 상여가 갈 때 동네 아주머니 중 한 사람이 상여가 가는 쪽으로 조금 뒤따라가다 길옆에 버린다.

▶ 고복(臘復) : 적삼을 들고 초혼을 부른다. 이것은 동네사람 중 한 사람이 하는데 안마당에 절구통을 옆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복, 복, 복' 한 후 '어디 살찌 적삼 가지고 가시오'. 가령 망자가 전주 이씨(全州李氏)이면 '전주 이씨 적삼 가지고 가시오'라고 한다. 이렇게 복을 하고 적삼을 지붕에 던져놓는다. 이때 올린 적삼은 출상하는 날 망자의 옷을 태울 때 내려서 함께 대운다.

▶ 암종 적후의 상주 복장 : 상주들은 두루마기를 입고 한 쪽 팔은 소매에 넣지 않고 소매는 뒤로 묶는다. 성복제를 할 때까지는 이런 복장을 한다.

▶ 호상(護喪)선정 : 호상은 삼례의 격식을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동족촌의 경우에는 같은 집안 내에서 선정하나 판교 1통의 경우에는 '각실받이'마을이므로 주민 중에서 선정한다. 보통 상주와 친하고 자식을 많이 두고 격식을 잘 아는 사람에게 상주가 부탁한다. 호상은 상주가 아니지만 전(巾), 모자(帽)을 쓴다. 일종이 되면 적후에 호상을 선정하며 호상은 곧바로 장례에 관련된 일 즉, 필요한 물품구입과 부고 등 제반 일들을 한다.

▶ 부고 돌리기 : 부고는 동네사람들이 호상의 지시를 받아 돌린다. 각자 한 끝음식 부고를 들고 이웃동네를 찾아다니며 돌린다. 판교 1통에는 친목회가 있어 친목회 회원 중에喪을 당하면 도와주는데 친목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친분이 있으면 가서 도와준다. 부친이나 모친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작고한 후에 또 한 분이 사망했을 때는 출상전날 산소에 가서 부고를 놓고 사망했음을 산소에 알리고 온다. 즉, 모친이 작고를 하면 먼저 돌아가신 선친의 산소에도 부고를 돌린다.

(2) 습(襲)과 염(殮)

습과 염(조사자 註 : 습(襲)은 시신을 씻는 절차를 말하며, 소령(小殮)은 시신에게 수의를 입히는 절차를, 대령(大殮)은 시신을 입관하는 절차를 말함)은 사망한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한다. 사망한 후 깨어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이 지난 후에 한다.

▪ 시신씻기(襲) : 요즘은 장의사가 와서 알콜(과거에는 향물로 했음)로 시신을 씻기고 솜으로 귀와 코를 막는다.

▪ 반합(飯合) : 시신을 씻기고 물에 담구어 둔 빨을 베드나무 숟가락을 이용하여 입에 넣어 준다.

▪ 웃입히기(小殮) : 수의의 웃감은 삼베(웃뿐만 아니라 요나 이불 등도 전부 삼베로 할)로 한다. 삼베로 해야 잘 썬다. 시신을 씻고 난 후 속옷(팬티)이 달린 바지를 입히고, 위에도 속옷(직삼)이 달린 치고리를 입힌다(속옷을 치마와 치고리 속에 넣어 같이 입하는 것은 한꺼번에 웃을 입히기 위한 것임). 치마, 치고리를 입한 후 두루마기를 입힌다. 가루매(시신을 싸고 묶기 편리하게 넓은 배를 좌우 7폭으로 늘어놓고 7폭을 다시 3배씩 되게 하여 좌우 모두 함께 42개가 되도록 한 것)를 깔고, 그 위에 장대를(시신을 세로로 묶기 위해 배의 양쪽 끝부분을 3폭으로 나누어 놓은 것)을 한 다음 시신을 올린다. 그리고 삼베로 된 견으로 시신의 머리와 얼굴을 써운다. 이렇게 한 후 장대를 묶고 가루매를 묶는다.

▪ 입관(大殮) : 시신을 관에 넣은 후 관은 웃목에 놓고 앞에 병풍을 친다. 병풍 앞에는 초와 향을 퍼워놓고 삼색과일, 전, 막걸리 등을 준비하여 床을 차려놓는다(이때는 임종 후에 시신앞에 차려놓은 것보다 잘 차려놓음).

(3) 성복과 성복제

▪ 성복 : 염습이 끝나면, 상주와 일가 친척들은 고인과의 춘수(寸數)에 맞추어 상복을 입는다. 또한 상주는 남자가 사망했을 때는 대나무, 여자가 사망했을 때는 미루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 성복제 : 상복을 입고 성복제를 지낸다. 계상에는 편(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과일, 고기, 술, 떼와 탕 등을 차린다.

• 상식 올리기 : 입종 후 성복제를 지낼 때까지는 상식을 올리지 않으나 성복제를 지낸 후로는 말인 때까지 아침, 점심, 저녁식사 시간이 되면 상식을 올린다. 음식은 평소에 먹는 식사음식과 같다. 상식을 올릴 때마다 상주는 床앞에서 곡을 한다.

(4) 출상(발인)

과거에는 5일장을 하는 집도 있었으나 요즘은 대부분 3일장을 한다.

• 새벽제 : 출상하는 날 새벽에 새벽제를 지낸다. 새벽제를 지내고 아침 상식을 올리고 출상을 준비한다.

• 관을 방에서 내울 때의 풍속 : 출상시간이 되어 관을 방에서 내울 때는 먼저 관을 몇 명이서 들고 머리 부분을 밤의 네 귀퉁이로 돌리며 절을 시킨 후 방문턱 쪽에 바가지를 엎으놓고 맨 앞에 선 사람이 바가지를 밟아 깨뜨리고 나온다(요즘도 이렇게 함). 관을 방에서 가지고 나오면 상여에 텐다.

• 발인제 : 관을 상여에 맨 후에 상여 앞에서 발인제를 지낸다. 계상에는 뼈, 과일, 밤, 탕 술 등을 올린다.

• 상여 떠날 때의 풍속 : 발인제가 끝나면 상여를 텐다. 떠나기 전에 상여가 킵을 보고 절을 세 번하도록 한다(상여를 맨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은 서있고 앞에 있는 사람은 무릎을 굽히는 식으로 함). 상여가 킵을 보고 절을 할 때 상주도 상여 맞은 편에 서서 상여를 보고 절을 같이 한다.

• 상여 출발시 대열순서 : 명정(붉은 비단에 관리과 성씨를 적음, 이것은 하관할 때 관 위에 묻는다), 공포(심폐로 되어 있으으며, 앞에서 이것을 훈들어 도로의 사정을 알려주며 상여의 길잡이 역할을 함), 가족(흔백상, 이것은 주로 사위가 들고 간), 상여, 상주, 만장 순으로 간다. 상여 앞에는 천소리꾼이 복을 떼고 치면서 상여소리를 한다. 이렇게 상여소리를 하면서 가야 힘이 들지 않고 상여가 잘 간다. 장지로 가는 도중에 길이 험하거나 개울 등을 건널 때는 상두꾼들이 상여를 멈추고 상주에게 돈을 둔다.

• 노제 : 상여를 떠고 가는 도중에 형제 등 가까운 친척집에 이르면 그 집에서 원하는 경우에 노제를 지낸다. 제물과 지내는 방식은 밭인제 때와 같다. 이때 제물은 친척집에서 정성껏 준비한다.

(5) 장지에서의 절차

• 묘터잡기와 땅파기 : 출상 전에 치관에게 부탁하여 묘터를 잡는다(근래에는 사례비로 치관에게 보통 20만원 정도 줌). 요즘은 출상 당일 장지에 가서 치관이 일러주는 방향과 위치를 보아 포크레인으로 파는 경우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러나 전에는 출상전날 동네사람들이 연장을 들고 장지에 가서 땅을 미리 파놓았다. 땅을 파기 전에 먼저 통북어와 박걸리를 차려놓고 묘터 위쪽에 올라가서 산신체를 지낸다. 땅을 판 후에 짐승이 구덩이 위에 건너다니면 좋지 않다고 하여 과거에는 일꾼들이 밤새 천막을 쳐놓고 그곳을 지켰다. 제보자에 의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지만 과거에는 막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풀삯을 주지 않아도 이런 일에는 술과 밥만 주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한다.

• 하관 전 :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평지에 판을 내려놓고 판 앞에는 술을 한 잔 부어 놓는다. 상주는 판 앞이나 근처에 영좌를 설치해놓고 문상객을 받으며 하관 할 시간을 기다린다.

• 하관 : 하관시간이 되면 구덩이에 시신을 넣는다(관을 그대로 넣는 집도 있고 관에서 시신만 끼내어 넣는 집도 있다. 제보자의 집에서는 시신만 넣는다고 함). 이때 '폐상'이라고 하여 요즘도 그때 일진파 맞지 않은 사람은 하관 때 오지 못하도록 한다.

시신을 구덩이에 넣고 '홍대'(横帶을 주민들은 홍대라고 발음함)라고 하여 잘 빼지 않는 소나무를 7개(5개나 3개를 옮리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7개를 한다. 전에는 장지에서 베어서 했으나 요즘은 미리 집에서 준비해 감) 준비하여 시신 위에 올린다. 마지막 홍대를 넣을 때는 일꾼들이 가족들에게 돈을 뜯는다. 홍대를 넣은 후 세 번째 홍대를 다시 꺼내고 시신 위에 청실과 흥실을 넣은 후에 홍대를 다시 집어넣는다. 청실과 흥실은 상복 예단을 해 올 때

준비해 놓는데 발인 때 상주가 주머니 속에 넣어 참지까지 가지고 와서 이때 묘 속에 묻는 것이다. 홍대 위나 시신 옆에 영전을 넣는다.

• 회달이 : 회와 흙을 섞어 먼저 달상주가 삽으로 세 삼을 홍대 위에 넣는다. 그리고 다른 상주들과 가족들도 이렇게 한다. 이어서 일꾼들이 흙을 어느 정도 다져 넣고 회달이를 한다(회달이는 흙수로 하는데 묘를 전부 만들 때까지 3번이나 5번 혹은 7번 정도 함). 회달이를 한 번하고 나면 구덩이의 네 귀퉁이에 숯을 넣는다(숯은 썩지 않으므로 후에 맨해나 합장 등을 할 때 시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해 놓는 것임). 회달이를 하면서 일꾼들은 회달이소리를 하며, 간간히 가족들에게 돈을 듣는다. 묘봉이 다 만들고 나면 위에 폐를 입힌다. 묘봉 주위를 전부 입히고 묘봉의 가장 자리에는 마지막에 입하는데 이것을 입힐 때는 마지막(마지막에 입히는 폐를 '상량폐'라고 함)이라고 하여 가족들에게 돈을 듣는다.

• 평토체 : 묘봉이 완성되면 평토체를 치낸다. 체물로는 떡, 술, 전, 과일, 배, 향 등을 올린다. 평토체를 치내고 난 후 상주들은 산소를 한 바퀴 돌고 산을 내려온다.

(6) 하신과 그 후의 절차

• 사위놀리기(이것을 '싸리가마' 또는 '싸리말이라고 함) : 묘에서 집으로 올 때 동네 젊은이들이 나무를 X자로 만들어 사위를 위에 태운다. 나무를 양쪽에서 꽂으면 사위의 다리가 꽂여서 사위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린다. 이렇게 하여 사위를 괴롭히면 사위는 술을 사겠다고 약조하며 마을에 내려와서 술을 얻어먹는다.

• 상주일행을 집에서 맞이할 때의 풍속 : 상주일행이 묘에서 돌아오면 안상주(효증은 안상주들도 산소에 가는 경우도 있음)들은 대문 밖으로 마중을 나와 곡을 한다.

• 영좌설치 : 이 마을에서는 영좌를 '상청'이라고 한다. 상청은 산에 가지 않고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산에 간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마루나 방자 가 기거하던 방에 꾸민다(주로 마루에 많이 설치하며 방향과 위치 등은 인근

의 만신에게 물어보고 함).

• 초우제(初虞祭) : 산소에서 돌아오면 상청에서 제를 치낸다. 제물은 멱, 과일, 배, 탕, 술 등을 올린다.

• 천도굿 : 이것을 '자리걸이'라고 하는데 초우제를 치내고 나면 곧바로 천도굿을 한다. 자리걸이는 만신(무당을 이 지방에서는 '만신'이라고 함)이 주도한다. 만신에게 망자의 혼이 살리면 만신은 가족들에게 망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여준다. 제보자에 의하면, 전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초우제를 치내고 나면 반드시 자리걸이를 했다 한다 (요즘도 이날 자리걸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처럼 많지 않다고 함). 김종용은 조부모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빠지지 않고 이날 자리걸이를 했다 한다.

• 상식과 사망(朝望) : 상례를 치낸 후부터 상청을 없애는 날까지 상청에 朝夕(아침, 저녁)에는 상식(일반 밥상과 동일)을 올린다. 또한 초하루와 보름에는 사망이라고 하여 음식을 많이 준비하여 粽를 치낸다.

• 삼우제(三虞祭) : 출상한 후 3일째가 되면 삼우제를 치낸다. 아침에 상청에서 祭를 치낸 후 산소에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다시 한 번 祭를 치낸다.

• 졸곡제(卒哭祭) : 돌아가신 후 100째가 되면 졸곡제를 치낸다. 요즘도 졸곡제를 치내는 집이 있다.

• 소상 : 돌아가신 후 1년이 되는 날을 '소상'이라 하며 이날은 음식을 많이 차려서 동네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

• 대상 : 돌아가신 후 2년이 되는 날을 '대상'이라고 하며 이날도 소상 때와 같이 음식을 장만하여 동네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

• 달상 : 과거에는 보통 소상 때까지 상철을 모셨으며, 집안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대상 때까지 모셨다가 달상을 했다(과거에도 아주 가난한 집에서는 삼우제를 치낸 후 달상하는 경우도 있었음). 요즘은 삼우제를 치낸 후나 49개 때 달상을 많이 한다. 김종용의 집에서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49개 때 달상을 한다고 한다.

2) 의례용품

- 수의 : 집안에 노인이 있을 때는 윤달에 수의를 장만해 놓기도 하고 준비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초상이 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의를 짓는다.
- 철성관 : 철성관은 망자 키만큼 길게 자른 송판으로 임종하면 시신을 철성관 위에 올리고 묶어 놓는다.
- 상여 : 전에는 고속도로 건너편 별관에 상여질이 있었으나 상여와 함께 없앴다. 요즘은 1회용 상여를 사서 사용한다. 1회용 상여는 4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다. 상여는 보통 6정으로 12명이 묵는 것을 사용한다.
- 상복 : 임종 직후에 삼주들은 두부마기를 입고 한 쪽 팔은 소태에 넣지 않은 상태에서 옷소매는 둘뒤로 묶는다. 설복제를 할 때까지 이런 복장으로 있다가 설복제를 할 때는 상복을 입는다. 말상주는 새끼(새끼에는 사고지를 끼워 넣음)를 두른 건(巾)을 쓰고 상복을 입고 다리에는 행전(行纏)을 두른다. 말안상주는 사고지를 끼운 새끼줄을 머리에 두르고 상복을 입는다. 말안상주가 아닌 아래 안상주들은 상복만 입는다. 안상주들은 임종 후에 머리를 묻다. 말안상주는 임종 후에 머리를 풀었다가 삼우제를 지낸 후부터 탄상 때까지 흰 템기로 머리를 묶어 상주입을 나타낸다. 상주가 아닌 친지들은 머리에 건을 쓰고 다리에 행전만 두른다.
상복은 삼례로 짓는다. 윤달에 수의를 만들 때 준비해 두는 경우도 있으나 노인이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삼례감을 평소에 준비해 두었다가 임종 직후에 동네아주머니들이 모여 바느질을 하여 수의를 짓을 때 함께 한다. 상복은 탄상 후에 태워버린다(다시 사용하지는 않음).

3) 이웃과의 관계(사회적 측면)

- 부조 : 과거에는 돈이 귀했기 때문에 이웃집에 초상이 나면 물건을 갖다 주거나 일을 도와주었다. 보통 이웃집에 초상이 나면 팔죽을 한 등이 해

가지고 가거나 박걸리를 사다 주었다. 이렇게 가져온 팔죽은 성복제 전까지 상주나 상가집에 모인 사람들이 막는다. 또한 장례식 때 들어온 물건은 장부에 적어 두었다가 나중에 그 집에喪을 당하면 보답한다. 50-60년대까지는 이렇게 부조를 했는데 그 후로는 주로 돈으로 부조를 한다. 요즘은 가까운 친척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5만원 정도 부조금을 낸다. 한편 친목회가 있어 친목회원 중에 상을 당하면 최근에는 쌀을 다섯 되씩 갖다준다(상례 때 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충하라고 하는 것임). 60년대에는 가난하여 한 되씩 갖다 주었다.

•문상 : 이웃집에 초상이 나면 문상을 간다. 가까운 집인 경우에는 가서 인을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나 이웃동네인 경우에는 부고를 받으면 문상을 간다. 상청에 가서 향을 피우고 절을 두 번하고 상주와 맞절을 한 후 상주를 위로한다.

•상가집에 가지 않는 사람 : 요즘도 부모제사가 일박한 사람이나 가족 중 혼례식 날짜를 잡아 놓은 사람은 상가집에 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상가집에 가지 않는 사람은 다른사람을 통해 부조금만 전달한다.

•상가집에 다녀올 때의 풍속 : 문상을 갈 때 집에 계장이 있으면 계장에서 계의 앞다리를 하나 꺼내어 줄이에 싸서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다. 상가집에 서 문상을 하고 나올 때 계의 앞다리를 상가집 문앞에 던지고 온다.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문상을 다녀온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의 몸에 가족 중 한 사람이 소금을 한 주먹 끼얹는다. 그리고 난 후에 화장실부터 먼저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한다. 김종은은 지금도 반드시 이렇게 한다고 한다.

•상두꾼 : 1동에서는 주민들이 상여를 빤다. 2동 연안 이씨들은 양반이라고 하여 상여를 빼지 않는다. 과거에는 1동 주민들이 연안 이씨들의 상례 때도 상여를 빼어 주었으나 충간에 내려오면서 빼어주지 않자 그 후로는 연안 이씨들은 수원에 있는 전문 상두꾼들을 불러왔다.

요즘도 초상이 나면 상여를 빼는 경우가 있지만 차로 하는 경우도 있어 천과 같이 많이 하지는 않는다. 천에는 부잣집의 경우, 상여를 빼는 사람들에게

개도 건(巾)을 주었다. [제보자 : 김종용]

4. 제례

여기에서 소개하는 제례는 연안 이씨 이희동의 제보를 통해 판교 연안 이씨 댁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례(家禮)가 집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판교의 모든 가정이 이와 동일하지는 않음을 밝혀둔다.

1) 차례

• **봉사대상** : 종손의 경우에는 4대조까지 모시며, 종손이 아닌 기차(其次)들은 자기집에서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을 모신다.

• **시기** : 설, 한식, 추석에 지낸다(차례는 아침에 지냄).

• **장소(祭場)** : 설과 추석은 집(대청 또는 안방)에서 지낸다. 한식차례는 과거에는 산소에서 지냈으나 10여 년 전부터는 집에서 지내는 집도 있다.

• **참가자** :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 함께 차례를 지내는데 종가에서 먼저 차례를 지내고 기차 순으로 내려가면서 지낸다.

• **제물진설** : 설에는 떡국을 올리며 메는 올리지 않는다. 한식에는 메와 탕을 올리며, 인절미와 송편을 올린다. 추석에는 밥과 빵, 송편을 올린다. 적(炙)은 육지(肉炙)을 올리며 과일, 나물 등의 기타 음식들은 일반 기제사 때와 동일하다.

• **절차** : 신위봉안(神位奉安), 진설(陳設), 분향강신(焚香降神), 헌작(獻爵), 재배(再拜), 개반잡시정제(開飯挾匙正箸), 부복(仆伏), 재배(再拜), 철상(撤床) 순으로 진행된다.

차례는 여러 조상을 모시고 제를 지내므로 첫대조상부터 순서대로 지낸다. 종손의 경우에 고조부와 고조모를 먼저 모시고, 중조부모, 조부모, 부모 순으로 모신다. 즉, 위의 절차로 고조부모의 제를 지내고 나면, 祭床의 메와 탕을 새것을 올리고(다른 음식은 그대로 사용) 다시 위의 절차와 같이 중조부

모의 제를 지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차례 때는 축문을 읽지 않는다.

2) 기제

- **봉사대상** : 4대봉사를 원칙으로 하여 종손의 경우에는 고조부와 그 이하 조상들을 모신다.
- **시기** : 조상의 사망 전날을 기일로 하여 이날 제사를 지낸다. 제사시간은 과거에는 자시초에 했으나 요즘은 저녁 9시경에 한다.
- **장소** : 이의동의 턱에서는 대청마루에서 제를 지낸다.
- **참가자** : 인근에 사는 8촌 이내 자손들이 모인다(보통 20여 명 정도 모임).
- **제물진설** : 떡은 편과 인절미를 올리며, 매, 탕, 파일, 전, 술, 육식(肉炙, 소고기炙) 등을 올린다.
 - **절차** : 신위봉안(神位奉安), 진설(陳設), 분향강신(焚香降神), 초헌(初獻), 축문(祝文), 아헌(亞獻), 종헌(終獻) 개반십시정자(開飯拂匙正箸), 부복(伏伏)을 한 후 잔을 내리고 숭늉을 올리고 칠상(撤床)한다. 칠상 한 후 음복을 한다. 잔을 올린 사람이 많을 때는 종헌 후에 침작을 한다. 제를 지낼 때는 지방을 써서 계상에 모시며 제가 끝나면 지방은 태운다. 근래에는 지방 대신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

3) 시제(묘제)

- **봉사대상** : 5대조 이상의 조상을 모신다.
- **시기** : 음력 10월에 날을 잡아 낮 11시경에 지낸다.
- **장소** : 과거에는 조상들의 산소에 가서 지냈으며 산소에 가는 것이 원칙이나 근래에는 연안 이씨 종가집의 경우에는 사당에서 지낸다(관교에서는 요즘도 산소에 가서 시제를 지내는 집도 있다).
- **참가자** : 인근에 사는 연안 이씨 대부분이 참석한다.
- **제물진설** : 편, 인절미, 매, 탕, 3炙(魚炙, 肉炙, 雞炙), 파일, 전, 술 등을 올린다(관교에서 혐편이 여의치 못한 집에서는 肉炙만 올리는 집도 있다).

관교 연안 이씨 사당에서 지내는 시제 제물은 宗中의 돈으로 과거에는 묘지
기가 준비했으나 근래에는 묘지기가 없어 宗家에서 준비한다.

- 절차 : 연안 이씨 종가에서는 시제를 출기와 순서대로 지낸다.

芻記

○諸攝序立 ○行告禮禮 ○一祠西拜 ○行禮禮禮 ○諸者引加廟官點祝陳波 ○諸者引初
獻官酒禮洗位 ○盥洗西向立 ○仍詣香案承頭 ○奉香奉禮界 ○各奉香盒香爐置于獻官前
○獻官三上香前次 ○奉香奉禮界 ○司掌舉事酒酒 ○執事以爵受酒送於獻官 ○盥洗林君
三注酒下再拜 ○盥洗 ○奠手身 ○盥洗香案自提 ○奉香奉禮界 ○司掌舉事酒酒 ○執事以
爵受酒送於獻官 ○獻官取時酒送執事 ○執事尊于考位前 ○執事又以爵受酒送於獻官 ○
獻官執爵送執事 ○執事尊于妣位前 ○盥内炙 ○乃持板量 ○獻官以下一同前次 ○盥洗
獻官之左酒祝 ○獻官及觀門拜祝酒位 ○行亞獻禮 ○執事換考妣位前酒 ○諸者引亞獻官
盥洗洗位 ○盥洗西向立 ○盥洗香案前酒 ○奉香奉禮界 ○司掌舉事酒酒 ○執事以爵受酒
送於獻官 ○獻官執爵送執事 ○執事尊于考位前 ○執事又以爵受酒送於獻官 ○獻官執
爵送執事執事尊于妣位前 ○盥内炙 ○獻官再拜退座 ○行終獻禮 ○執事換考妣位前酒
○諸者引終獻官盥洗洗位 ○盥洗西向立 ○仍詣香案承頭 ○奉香奉禮界 ○司掌舉事酒
酒 ○執事以爵受酒送於獻官 ○獻官取時酒送執事 ○執事尊于考位前 ○執事又以爵受酒
送於獻官 ○盥洗林君退座執事 ○執事尊于妣位前 ○盥内炙 ○盥洗退著 ○獻官拜拜 ○退
位 ○執事換考妣位前酒送於獻官 ○獻官取時酒送執事 ○盥洗香案于案上 ○再拜 ○盥洗
事取內炙一串送於獻官 ○獻官受之貢于左次 ○再拜 ○盥洗 ○執事盥恭 ○盥洗恭 ○小
移故處 ○行盥洗禮 ○獻官及請逐一列再拜 ○盥洗 ○盥洗于初獻官之前告終成 ○諸子
却位 ○敬百福禮

4) 불천위제

- 풍사대상 : 이곤(연성군)
- 시기 : 이곤의 期日 밤 가시초에 지낸다.
- 장소 : 사당
- 참가자 : 인근에 사는 자손들이 참석한다.
- 제물진설 : 기제사와 동일
- 절차 : 기제사와 동일

IV. 판교의 민간신앙

1. 마을신왕

1) 서낭당

과거에는 남서울골프장 관리사무소 자리에 고목이 있었고, 그 앞에 물두더기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서낭당이라고 부르며 오가며 둘무대기 위해 들을 올려놓기도 하고, 가끔씩 밤에는 만신들이 와서 빌거나 떡을 실로 매달아 놓기도 하고, 오색 천 등을 때 무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집에서 고사를 지내고 나면 여기에 음식을 갖다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곳도 6.25 전후 사라졌으며, 그 자리에 골프장이 생긴 지도 30년이 넘었다고 한다. 경부고속도로가 나기 전 그 곳에는 신작로가 있었으며, 신작로를 따라 길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2) 산제

동제의 명칭을 주민들은 흔히 '산제'라고 부르나, 주민 김종용에 의하면 '도당제'라고도 불렀다 한다. 또한, 마을 제당에 대해서는 '산당' 또는 '산제사 지내는 곳'이라고 한다.

제당은 마을 옆 고속도로 길 건너편 산 정상에 있으며, 큰 참나무를 신체로 삼고 있다. 참나무 밑동에는 짚으로 작은 주저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터주 신을 모신 것이라고 한다. 원래 신체는 큰 고복 두 그루로 되어 있었으나 6·25 후 말라죽어서, 지금의 나무를 신체로 삼았다고 한다.

당신(草神)은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로 부른다고 김종룡은 말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당신에 대해 구체적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일은 매년 음력 9월 그믐으로 고정(매년 이 날 같은 시각에 운중동, 하산운 등, 판교, 분당의 정자동에서 모두 제를



신체를 지내기 위해 9월 그믐날 낮에 신체답에 터줏가리를 쪘고 만들고, 제상을 차리놓고 위에는 치밀을 저놓았다.

지냈다. 판교에서 산재 지낼 때 제당이 있는 산에서 보면 하산운동과 정자동의 불빛이 동시에 잘 보였다 한)되어 있으며, 제를 지내는 시간은 자정이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제일 선정 후 준비기간 안에 마을에 초상 또는 부정한 일이 있으면 5일 혹은 7일 후에 다시 날을 받아 지낸다고 한다.

제주를 '당주'라고 부르는데, 당주 선정은 천에는 보통 제사 지내기 5일 전쯤 마을 이장이 주선해서 했는데, 초상, 삼재, 부인이 월경 든 집 등 부정이 있는 집을 가리고, 인근의 만산무당에게 가서 생기불터를 맞추어 당주를



당주집 앞에 끌마놓은 화트

선정한다.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으로 축관을 선정하고, 그밖에 이장, 세마을 지도자 등 주민 대표자들이 제의에 참석한다고 한다. 제일 5일 천에 제주를 선정하는 것은 부정타는 기간을 최소 한 풀개 하기 위함인데, 제일이 선포되면 제주뿐만 아니라 주민들 모두 보고·먹고·팔하고·듣는 부질을 피

하여 근신하며 계주는 부부관계를 금한다.

당주 집에서 모든 음식을 비롯해 제의와 관련된 준비를 한다. 당주가 선정되면 제의 준비기간 동안 당주 집에 송침(松針)이 꽂힌 금줄을 치고, 대문 앞 좌우 양쪽에 황도를 놓아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2000년에는 당주로 정인철이 선정되었는데, 집 앞에 황도는 놓여 있었지만 금줄은 없었다. 당주의 말에 의하면, 지금은 집에 세들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 금줄은 생략한다고 한다. 마땅히 제물 준비할 집이 없어서 정인철은 3년째 이 마을 당주를 하고 있다.

전에는 제일 하루 전에 땅에 가서 주위를 청소하고 주변 우물물로 술을 빚고 신목 아래에 묻어두었으며(하루 전에 담갔으므로 좀 덜 익었으나 그대로 올린다고 함), 그 물로 즉석에서 밤을 해서 제사 메를 준비했다고 한다. 산사래로 물 뜨는 곳이 없어진 후 지금은 당주 집에서 미리 준비해서 올라간다고 한다.

2000년에는 9월 그믐날 낮에 주민들은 당에 올라가 주변청소를 하고, 당으로 올라가는 길을 닦았다. 젖으로 터줏가리를 다시 만들고, 제물 차린 상을 당 나무 앞에 놓은 다음 그 위에 철막을 쳐두었다. 전에는 철막을 친 후 등을 단아놓고 저녁에 불을 켜두었다고 하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그믐날 저녁 제주 및 주민대표 일행은 당주 집에 모여 있다가 자정이 가까워지면 각자 배낭에 제물을 넣고 홀수를 맞추어 제당으로 향하였다. 산에 오를 때는 홀수가 되어야 하는데, 보통 7명 정도가 간다고 한다. 시제를 보고 12시가 넘어 10원 상당 초하루로 접어들면 제물 지낸다.

진선을 할 때 가지고 간



제설의 제물 차림

통 북어와 한지는 신목 아래에 있는 터줏가리에 묶어둔다. 제물을 차리고 제주가 향을 피우고 찬을 올린 후 제례를 하면,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그리고 나서 일반 제사 때와 같이 찬을 올리고 절할 사람은 절을 하고, 맨 마지막에 다같이 절을 한 다음 경을 내리고 승능을 올린 다음 참여자를 모두가 한꺼번에 소리를 울리며, 통장이 대표로 마을의 발전을 기원하는 비손을 한다. 제사가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떼어 터줏가리에 끼워둔다. 제관들은 간단히 제주를 음복하고 당주 집으로 내려온다. 당주 집에서 다시 음복을 한다. 옛날에는 큰 통돼지를 나누어 폐지하고 두 균 정도에 떡을 함께 놓아 집집마다 돌렸으나, 지금은 제주 집에서 음복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

제사비용은 예전에는 집집마다 돈을 거두었다고 한다. 지금은 동네기금으로 하였는데, 1998년의 경우에는 25만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한다.

제물은 전에는 통돼지를 사용했으나 지금은 돼지머리로 대체되었다. 백설기, 전, 반대떡, '갈립'(반대떡보다 작은 떡), 두부부침, 북어포, 과일, 조기, 삼색나물, 소고기탕, 무탕, 다시마탕 등을 올리며, 음식 양념은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소금으로만 간을 한다. 전에는 떡을 세 빙 정도 해서 집집마다 돌렸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서너 되 정도만 한다. 밥, 국 2그릇, 떡, 삼색과일, 포, 테주 신께 올린 북어, 초, 향, 기타의 제물을 올린다.

제기는 예전에는 나무그릇과 유기로 된 제기가 있었으나, 낯그릇은 없어져서 지금은 스텐레스 그릇을 구입하여 마을회관에 보관해 두었다가 사용한다.

[조사일자 : 1998년 11월 18일, 2000년 10월 26일, 제보자 : 김종웅(남, 70세), 경인철(남,

71세)]

2. 가신신앙

1) 안종철씨 택

10월에 하는 고사를 '가을고사'라고 한다. 안종철의 모친 이창순(81세)은 용인 백암에 거주할 때부터 집안에서 조상 대대로 부녀자를 통해서 전해오던 방식대로 가신고사를 해왔다고 한다. 6.25 후 1953년에 판교로 이사와서 한동안 가신고사를 지내지 않았는데 40년 전쯤 집안에 우환이 잦자 家神을 모시지 않아 그런가 하고 그 후 가신을 모시고 가을고사를 지내왔다고 한다. 그러나 10여년 전부터는 고사의 규모를 줄여 간소화되었다고 한다. 안종철의 집에서는 모친 이창순(81세)의 경우에는 민간신앙을 매우 숭배하고 만신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가신고사를 지내는 것을 좋아하나 며느리는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창순의 사후에는 이런 것이 전부 없어질 것으로 안종철은 보고 있다. 가신고사를 할 때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심부름만 할 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창순은 민간신앙을 돈독히 믿어 매년 정월 초사흘날에는 만신집에 가서 시주를 하고, 家내가 평안하기를 빌고 가족들의 신수를 본다. 만약 가족 중에 그때 삼재나 액이 있으면 무당이 일러주는 데로 속옷을 멀리 갔다가 버리거나 기타 처방 등을 하고, 부좌를 불이기도 한다. 10월에도 만신(이 지방에서는 무당을 만신이라고 함)을 찾아가서 가정이 무고하게 해달라고 빈다고 한다.

현재 안종철의 집에는 신주단지가 있다. 신주단지는 대청 한쪽 벽 2미터 정도 높이에 선반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작은 항아리를 올려놓았다. 항아리 속에는 쌀을 넣고 그 위에 居住 廣州郡樂生面板橋里 二百七番地 辛酉六月 二十九日生 論中拾月拾七日 起 德水李氏라고 적은 무명을 곱게 걸어 두었다. 무명에 적은 글씨는 안종철의 모친 이창순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적어 둔 것으로 안종철의 선친이 살아있을 때 적은 글씨라고 한다. 선친이 살아있

을 때는 무명에 선친의 주소와 생년월일도 적어 함께 놓아두었으나 선친死後 선친의 것은 없었다고 한다. 선주단지 속의 빨은 매년 6월(밀레가 먹으므로)과 10월(햇쌀이 낫으므로) 두 차례 간다. 지금의 선주단지는 40년 전쯤 모친의 품속에 중조할머니, 시어머니 등 돌아가신 여자 조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봄이 아프기도 하여 떼날부터 모시던 선주단지를 모시지 않아서 그런가 하고 선주단지를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과거 안종철이 어려서 용인 백암에 살 때는 집안에서 예전부터 주부들이 모시던 터줏가리(장독대 옆), 선주단지 등을 볼 수 있었으나 지금 관교에 와서는 菩提는 선주단지 만을 두고 다른 것은 만들어 놓지 않았다. 이 무렵 아는 만인이 터줏가리를 해놓으면 좋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장독대 중앙에 넓적한 돌 하나를

두고 그 위에 경화수를 물려놓은 것이 있었는데 안종철에 의하면, 40년 전 안종철이 몸서 아팠는데 모친의 꿈속에 장독에 경화수를 뜨놓고 비니 창광이 끊더니 아들의 병이 나았다고 한다. 모친은 꿈에서 깨어 꿈에서처럼 장독에 경화수를 띠놓고 빌었드니 안종철의 병이 진짜 나았다고 한다. 그 후 지금까지 하루도 그르지 않고 매일 저녁 해가 지면 이곳에 물을 떠놓는다고 한다.

가을고사는 10월 중순 손 없는 날, 집 안의 여자를 중 생리가 없는 날을 정하여 한다. 고사는 주로 저녁에 아두

위 손님들이 오지 않을 때쯤에 한다.

과거에는 고사를 지내는 날 대문 좌우에 황토흙을 갖다 놓았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고사는 안종철의 모친이 혼자서 진행하며 머느리와 나머지 가족들은 옆에서 보조를 한다. 시루에 쌀을 서되 정도 빼서 대침에 조상단지 앞에서 상을 괴고 그 위에 올려놓는다. 시루 속에는 철화수를 올려놓는다. 촛불이나 햄은 사용하지 않는다. 床위에 진설을 하고 나면 안종철의 모친이 절을 3-5회 정도 하고, 대주부터 가족들을 순서대로 호칭하며 “누구누구 건강하고 하는 일들 잘되게 해주세요”하면서 집안식구들의 건강과 무고함을 빈다고 한다. 소지는 옮기지 않는다. 이렇게 비손을 5분 정도하고 모친이 떡시루의 떡을 나누어 어려개의 접시에 나누어 올려놓으면, 머느리(안종철의 부인)는 시어머니가 가리키는 곳에 접시를 갖다놓는다고 한다. 그 순서는 부엌(모셔놓은 조왕의 神體가 없으므로 떡을 가스란지 옆의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 →안방 위의 다팔 →장독 →우물(대문 밖에 우물이 있다) →동네 느티나무(마을 중앙에 있는 느티나무에 가서 떡 접시를 올려놓고 3분 정도 비손을 하고, 떡조각을 나무 주위에 조금 던지고 접시를 들고 온다) →자동차(현들 뒤에)하고 접으로 들어 올때는 떡조각을 대문 밖 세 방향에 던져 고수레를 하고 들어온다.

고사를 지낸 후 과거에는 온 동네에 전부 나누어주었으나 지금은 가까운 인척에만 떡을 나누어준다.

현재는 떡을 할 때 쌀 서되 정도만 하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떡을 서말(30kg)정도 해서 동네 접집마다 빠짐없이 주었으나 지금은 떡을 주어도 천처럼 잘 먹지도 않고 해서 떡을 조금만 해서 가까운 인척 5집 정도에만 준다고 한다. 과거에는 떡을 할 때 접에서 떡쌀을 담구어 점구통으로 찢어 시루에 빼서 했으나 지금은 방앗간에 가서 찢어 온다. 그러나 안종철의 접에서는 지금도 찢는 것은 팔가루를 시루에 얹혀 접에서 찢다고 한다.

고사떡은 팔찌과 팽을 넣어 윗부분을 불개 한 붉은설기를 한다. 안종철에 의하면, 떡은 접집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떡 두께가 두꺼운 접도 있고, 얇은 접도 있으며, 떡 속에 호박이나 무를 넣은 접도 있다고 한다. 안종철의 접에서는 가구나 철재물 등의 물건이 접안에 들어올 때는 그 물건에 王室上

을伐木이라고 종이에 써서 부쳐둔다. 안종철에 의하면 과거 선친이 살아있을 때 어느날 집을 수리하기 위해 목재를 들여왔는데 모친이 고춧가루와 소금을 목재에 뿌려 부정을 가셨는데도 가족 중에 한사람이 아팠다고 한다. 그래서 선친은 그 원인이 목재 때문인가 하고 목재에 玉皇上帝伐木이라고 써서 불이니 병이 날았다고 한다. 그후 지금까지 항상 집안에 목재나 철재들, 가구 등이 들어올때는 이렇게 한다고 한다. 안종철의 집에는 책상 밑이나 창문 등에도 이것을 부쳐놓았다. 안종철은 이러한 풍속은 과거부터 민간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일자 : 2001년 1월 14일, 제보자 : 안종철(남, 64세, 708-1189, 판교 2동)]

2) 이광범씨 댁

가신을 봄에는 음력 3월에 날을 갈아서 하고, 가을에는 음력 10월에 날을 침아 한다. 전에는 길에서 절구동에서 직접 쌈을 써어 고사미을 하며, 대청, 부엌, 대문 등지에 가서 비손 하였으나 지금은 대청에서만 간단히 한다고 한다. 이광범에 의하면 대체로 이 지방에 뿐이라 내렸던 토박이들은(특히 농사를 짓는 집들) 가신고사를 한다고 한다.

[조사일자 : 1999년 12월 13일, 제보자 : 이광범(남, 70세, 연안 이씨, 판교 2동)]

3) 김성배씨 댁

김성배씨 댁은 독실한 불교신자 집안으로서 한국의 민간신앙에 대해서도 매우 애착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을 때도 차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김성배의 집에는 성주를 거실 들어가는 출입문 위의 벽에 모셔두었다.

김성배의 처 이상숙에 의하면 음력 10월 상단 초에 시어머니가 택일하여 고사를 한다고 한다. 고사는 보통 오후 4-5시쯤에 밤잇간에 가서 고사미(쌀 한 팔 정도, 한 시루)을 하고, 북어, 실, 江水, 술(막걸리 2통), 파일 등으로 고사상을 준비하여 家長이 절을 세 번하고 대문, 창득, 부엌, 변소에 떡을

한 접시 놓았다가 떼어놓고 북어와 실을 현관 문 위에 달아 놓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상숙의 반대로 고사를 지내는 것을 본인이 직접 참여관찰하는 것
은 거부당하였다.

[▶조사일자 : 1999년 11월, 제보자 : 김성태(남, 53세, 관고 대생), 이상숙(여, 김성태
부인)]

4) 한옥순씨 택

예전에 한옥순씨가 시집왔을 때는 시부모님들이 터줏가리를 모셨다고 한
다. 장독대 앞에 터줏가리가 있었는데 향마리 단지였다. 범씨, 돈, 창호지
등을 넣고 매일 모셨다. 음식을 해서도 먼저 이곳에 바쳤는데 하물며 칼국수
를 만들어도 이곳에 올렸다고 한다. 이 터줏가리는 조상 대대로 대물려서
계속된 것 같지만 자신이 시집와서 없었다고 한다.

[▶조사일자 : 1998년 11월, 제보자 : 한옥순(여, 63세, 교회권사)]

제4장

판교 마을의 실태조사

I. 판교 마을의 개황

1. 판교 조사 마을의 자연적 조건

판교동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속한 곳으로 산지와 평지가 조화롭게 펼쳐진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라 할 수 있다. 운동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운중천이 중앙부를 가로질러 동류하고, 남동쪽으로는 단한변이 접하고 있지만 실제로 3면이 구룡성 산지로 둘러싸인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전근대 사회에서 판교는 전형적인 농촌사회로 존재하면서 그 기능상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근 지역인 성남의 분당과 용인의 죽전 지역이 활성화된 반면 판교는 일정 부분 소외된 지역으로 각인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상대 지역의 발전이라는 형평성에서 보면 판교는 주목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교차한다는 점에서 보면 판교동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중심부인 서울에 근접하고 산지가 직결하게 어울려져 주거 공간으로써 기능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교 마을은 개발 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장기간 사유재산권의 사용이 제약된 관계로 발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런 관계로 판교 분기점 주변에 일부 충소 규모의 공장이 들어서 있으나 전형적인 도시와 농촌의

중간자적인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판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판교 인터체인지 부근이 부각된 것은 판교 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거론되면서이다.

개발 대상지로 점토되고 있는 판교 마을은 분당 신도시와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경계에서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현재 2001년 8월을 기준으로 약 1,712세대에 4,73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용인과는 달리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비교적 녹지가 잘 보존되어온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녹지 보존을 위한 정책으로 판교 마을은 1976년부터 이른바 남단녹지라 하여 개발 제한구역에 준하는 행위 제한을 받아왔다. 70년대 초 수도권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판교지역은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경제적 행위의 제한을 받아온 것이다.

판교 마을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장기간 편입되어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금지되어 왔다. 1992년 5월 규제 대상에서 일시 해제되었으나 6개월 후 체차 자연경관 보존지역으로 고시되어 토지 이용 등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토지 형질변경과 건축 행위 등 모든 조건들이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거주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규제되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분당·시흥·금곡동의 중앙에 위치한 판교 마을은 도시와 농촌의 중간자적인 형태로 존속한 교통요지라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의 판교 인터체인지와 판교·구리간의 고속화 도로가 관통하여 조선시대 판교를 삼남대로라 칭한 이유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판교 마을은 교통의 중심으로 각광받아 온 것이 사실이며 자연녹지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었지만 한 편으로 마을 전체를 산들이 에워싼 형태여서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도 특이한 일면이라 할 수 있다.

2. 판교 조사 마을의 연구 구성

판교 마을의 역동성과 역사의 주체성을 유지하는 중심 요인은 역시 구성

원인 주민이라 할 수 있다. 인구 구성의 변화나 비중 등을 검토하는 것은 관교 마을의 위상 등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반적인 관교동의 인구 구성 비율을 검토하고 조사 마을의 인구 구성을 관해 접근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분당구에서 차지하는 관교 마을의 인구와 관교동의 인구별 비교표를 종합하여 경제 활동 인구를 추정하는 한편 월별 전출입의 상황을 조사하여 위장 전입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도표 1에 따르면 2001년 8월 기준 관교동의 인구수는 총 4,733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 중 남성이 2,520명이고 여성이 2,213명이다. 주택수는 555동이고 세대수로 보면 1,712세대이다. 2000년 12월을 기준으로 관교동의 인구는 4,669명으로 남자가 2,506명이고 여자가 2,163명이다. 1년 간의 인구 변화가 64명 정도로 변화가 미미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도시화에 따른 인구 이동이 급격한 편차를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교 마을은 일정 부분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도표 1: 관교동의 세대와 인구수

주택수	세대수	인구수		
		개인	남	여
555동	1,712	4,733	2,520	2,213

분당구의 인구 구성 관계를 조사한 도표 2에 따르면 관교동 인구 구성은 분당구 전체에서 비중이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분당구 전체 인구 341,371명 중 관교동은 4,511명으로 1%를 차지하고 있다. 분당구의 운중동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관교동인데 문제는 인구의 수가 평균치보다 낮은 것임이어서 관교동의 역할이나 위상이 저조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분당구에서 차지하는 세대수도 104,946세대 중 관교동은 1,535세대로 나타나는데 분당구 전체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관교동 전체에서 조사 마을로 설정한 관교 1·2·3동의 인구 구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 8월을 기준으로 관교 조사 마을인 관교 1·2·

3동을 기준으로 접근하여 인구의 상황을 보면 581세대로 판교 마을 전체 세대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는 조사 대상의 판교 마을의 경우 1,557명으로 32%에 해당한다.

판교동의 인구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판교동의 연령별 인구 분포도를 참조해보면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경제활동 인구는 14세 이상의 남녀를 치중하는데 노동기준법에 14세 미만 남녀의 노동참여를 금지하고 60세에 정년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기준을 적용시켜 판교동의 인구별 분포 상황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12월 기준의 통계 자료인 경기도 성남시 읍·면·동의 연령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전체 판교동의 인구 4,669명 중 0세에서 13세까지는 665명이며 14%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활동 인구인 60세까지의 인구는 3,351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0세 이상의 노인층은 653명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3%를 차지하고 있다. 도표 3에서 나타나는 판교동은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의 인구가 70%를 상회하는 것이어서 산업화 사회의 전형적인 인구 구성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노령화 사회 이전의 도시화 사회나 산업화 사회의 인구 구성 분포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표 2 : 분당구 인구 구성비표(1995년 12월)

구분	합계			한국인			외국인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계	남		계	남		계	남
분당구	104,348	341,571	170,064	171,307	104,089	340,244	169,508	172,736	857
분당동	6,081	21,387	10,029	10,758	6,485	21,985	10,579	10,786	76
수내동	1,449	11,823	5,692	5,551	3,425	11,586	5,877	5,908	29
초월동	5,038	16,517	8,212	8,308	4,877	16,400	8,194	8,286	66
내일동	3,633	12,055	5,941	6,114	3,587	11,970	5,893	6,007	66
청자동	13,482	52,340	30,948	31,291	19,370	62,183	30,886	31,317	112
서현동	9,324	30,796	15,145	15,621	9,218	30,568	15,049	15,519	106
사일동	5,987	19,500	9,759	9,241	5,911	19,405	9,734	9,711	46
0마동	8,025	26,189	13,006	13,074	7,874	26,123	13,062	13,041	91
터미널	4,946	16,474	8,167	8,307	4,873	16,425	8,145	8,281	33
0법동	5,425	17,546	8,381	8,648	5,376	17,473	8,336	8,237	57
종점동	5,637	28,594	14,231	14,353	5,629	28,571	14,223	14,348	8
8법동	5,169	20,533	10,214	10,359	5,126	20,467	10,182	10,275	80
민교동	1,535	4,511	2,421	2,990	1,515	4,480	2,415	2,075	20
금곡동	18,981	51,277	25,787	25,480	18,006	51,157	25,748	25,461	85
운현동	744	2,395	1,131	964	721	2,071	1,117	964	23

도표 3 : 관교동 연령별 인구 분포도

연령별	관교동			연령별	관교동			연령별	관교동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4,889	2,506	2,383	35~59세	384	212	172	70~79세	109	41	68
0~4세	227	113	114	59세	79	46	33	70~79세	27	10	17
5세	46	23	23	56세	73	40	33	71세	24	10	14
6세	30	14	16	56세	73	40	33	72세	23	10	15
7세	45	21	24	57세	82	47	35	73세	17	11	11
8세	47	23	24	58세	77	44	33	74세	11	6	11
9세	58	30	28	59세	100	50	50	75~79세	83	35	48
10~14세	327	130	127	40~44세	448	245	203	75세	25	12	14
10세	55	26	29	40세	81	45	36	76세	11	5	11
11세	42	21	21	41세	101	54	47	77세	15	7	14
12세	42	21	21	42세	89	46	43	78세	9	4	14
13세	31	15	16	43세	80	43	37	79세	14	6	24
14세	45	24	21	44세	79	41	38	80~84세	14	6	14
15~19세	229	107	122	45~49세	350	177	173	85세	11	5	11
10세	35	17	18	46세	87	48	39	86세	8	4	11
11세	35	17	18	47세	81	44	37	87세	11	5	11
12세	35	17	18	48세	87	45	42	88세	3	2	5
13세	37	17	20	49세	82	42	40	89세	-	-	-
14세	47	23	24	50~54세	303	158	145	90세	15	8	15
15~19세	394	177	217	55세	80	40	40	91세	-	-	-
15세	99	44	55	56세	86	43	43	92세	-	-	-
16세	70	31	39	57세	86	43	43	93세	-	-	-
17세	87	43	44	58세	80	40	40	94세	-	-	-
18세	97	49	48	59세	73	37	36	95세	-	-	-
19세	95	49	46	60세	75	38	37	96세	-	-	-
20~24세	419	214	205	61세	75	38	37	97세	-	-	-
20세	85	42	43	62세	75	38	37	98세	-	-	-
21세	83	41	42	63세	75	38	37	99세	-	-	-
22세	83	41	42	64세	75	38	37	100세	-	-	-
23세	79	37	42	65세	75	38	37	101세	-	-	-
24세	79	37	42	66세	75	38	37	102세	-	-	-
25세	79	37	42	67세	75	38	37	103세	-	-	-
26세	79	37	42	68세	75	38	37	104세	-	-	-
27세	79	37	42	69세	75	38	37	105세	-	-	-
28세	79	37	42	70세	75	38	37	106세	-	-	-
29세	79	37	42	71세	75	38	37	107세	-	-	-
30세	79	37	42	72세	75	38	37	108세	-	-	-
31세	79	37	42	73세	75	38	37	109세	-	-	-
32세	79	37	42	74세	75	38	37	110세	-	-	-
33세	79	37	42	75세	75	38	37	111세	-	-	-
34세	79	37	42	76세	75	38	37	112세	-	-	-

2001년 6월에 조사한 판교동 월별·전출입의 현황표에 따르면 2000년 전입 세대는 482세대로 월 평균 40세대가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전출한 세대수는 461세대로 월 평균 38세대이다. 전출입자 경우 일부는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아파트 분양권과 이전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전출의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서 탈퇴하는 피용과 부채의 부담감을 감내하기 어려워 일부 재산의 정리한 후 이주하는 형태로 파악할 수도 있다.

2000년 9월 개발 용지를 280만평으로 확대한다는 조치 후 9월의 전입 세대가 35세대에서 70세대로 배가 증가한 것은 판교 개발의 이익을 귀특하려는 성향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남시 판교동과 문중동사무소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판교 개발 예정지의 위장 전입자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307가구 630명의 위장 전입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교동의 경우 전입신고는 2000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3가구였으나 판교 개발이 임박하면서 하루 7~8가구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 중 실제 거주로 확인된 경우는 채 1가구가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위장 전입자는 외지인이 갖고 있는 주택 소유자의 친인척이나 친구들로 파악된다 는 것이다. 판교 마을의 개발과 더불어 야기되는 폐단으로 개발의 이익을 선점하려는 이런 위장 전입의 문제점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판교 마을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유실 수 등을 심어 놓고 방치하여 말라죽는 현실은 보상비만을 노린 속임수의 행위이다. 논밭에 나무가 심어진 경우 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이전이 불가능한 수종에 대해서는 수종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판교마을에서 야기되는 위장 전입과 위장 영농은 보상비를 노린 일부 계층의 투기 행위가 자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택지 개발지의 거주자는 이사 비용의 혜택이 주어지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진다. 나아가 아파트 분양시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장 전입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도표 4 : 판교동 월별 전출입 현황(2001년 6월 20일)

년도	월별	진입상황		전출상황		비고
		세대	인원	세대	인원	
2000	1	31	46	26	37	
	2	42	77	46	77	
	3	49	76	56	88	
	4	32	60	36	58	
	5	41	71	35	55	
	6	32	50	29	50	
	7	28	46	29	44	
	8	35	64	27	46	
	9	26	63	43	81	
	10	70	123	40	55	
	11	52	81	58	87	
	12	35	53	36	48	
2001	1	15	29	31	56	
	2	33	65	51	76	
	3	42	70	54	89	
	4	31	49	27	33	
	5	44	69	32	49	
	6	29	43	23	40	

3. 판교 조사 마을의 주요기관

판교마을은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낙생면(榮生面) 판교리(板橋里)라 지칭되어 왔다. 일제하 식민지 강화읍에서 나온 행정체계의 변화에 따라 1914년에는 너분배를 병합하여 판교리라 하였다. 해방 후 1971년 광주군 낙생면에서 성남출장소 낙생지소로 개편되어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다. 1973년에 비로소 독립으로 승격되어 개발 초기의 문제점과 기형적 성장 등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판교동은 성남시로 편입되었다. 1975년 3월 낙생출장소에 편입되어 판교·삼평·백현의 3개 동을 관할하다가 그 후 1989년 5월 중원구에

소속되었다. 성남시가 확장 발전되는 추세로 인해 판교동은 1991년 9월 분당구로 편입되었다.

행정구역의 측면에서 보면 분당구 관할인 판교동은 법정동인 판교동·백현동·삼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교동은 8동 31반의 세부적인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교동이 3동으로 구분되며, 삼평동은 3개동으로, 백현동은 2개동으로 분할되어 있다.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통사무소는 분당구 판교동에 위치하는데 행정구역을 8동 31반으로 분할하여 관찰하고 있다. 특히 2001년 10월을 기준으로 공무원 정원은 9명으로 공무원 1인당 약 516명의 주민을 상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와 소방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가 있어 기본적인 질서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나아가 낙생단위농협이 존재하여 판교 마을의 금융에 편의를 제공하고 삼남 판교동 우체국이 너머 리길에 위치하여 채신업무를 관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판교 마을에는 낙생초등학교와 낙생고등학교가 있다. 1922년 5월에 설립된 낙생초등학교는 교직원이 20명이며 총 학생수는 2001년 기준으로 532명이다. 남학생이 184명인 반면에 여학생은 148명으로 남학생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도 남아선호의 폐단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낙생학원의 학교 연혁을 살펴보면 낙생학원이 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1964년 11월이었다. 낙생고등학교는 남녀 공학으로 1975년 11월에 설립 인가되었으며 1976년 3월에 개교되었다. 이후 1986년 8월에 낙생학원 이사장으로 민성학이 취임하였고 남녀공학에서 남고인 낙생고등학교로 학적이 변경 인가되었다. 1990년에 학사관을 준공하여 학생들의 후생시설을 강화하였고 1994년에는 학교 설립 30주년의 기념행사도 거행하였다. 1997년 10월에는 정보화 사회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멀티미디어 교실을 설치하였으며 1998년 낙생중학교를 폐교하여 고등교육을 강화하였다. 현재 73명의 교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각 학년 별로 12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총 36개 학급이 운영되는 상황이며 총 학생수는 1,619명으로 관교 마을의 고등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열악한 시설에 기초한 초등학교 대상의 사설 학원도 존재하여 사설 교육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아탑 학원은 초등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사설 학원이었는데 실제로 규모가 영세한 것이어서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꼽힌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 환경의 여건으로 인하여 고등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은 전무한 형편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에서 요구되는 폐교유자들의 특구역은 주로 분당의 사설 학원에 의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교 마을 지역의 민간인 시민 단체는 관교지구 개발추진위원회와 관교시민 환경연합회의 활동을 주목할 수 있다. 관교지구 개발추진위원회는 관교 마을에서 발생하는 세반의 모순과 자신의 의지를 관찰시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성격을 지니면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남시 시의원인 김대진이 위원장으로 있는 관교지구 개발추진위원회는 관교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관교 마을의 주민들에 대한 권리와 개발의 당위성과 열악한 환경 조건에 대해 홍보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 관교 마을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관교 마을 주민들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진정하는 등 시위운동도 주도해 왔다. 특히 관교시민 환경연합을 조직하여 관교 마을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환경 오염을 감시하고 경제하는 일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표 5 : 낙생초등학교의 현황(2001년 10월 기준)

학년	총 개	1	2	3	4	5	6
빈 수	11	2	1	2	2	2	2
학 생 수	남	184	28	24	39	30	30
	여	148	20	22	29	22	27
	계	332	48	46	68	52	57

도표 6 : 낙동고등학교의 현황(2001년 10월 기준)

학년	총 계	1	2	3
반 수	36	12	12	12
학생수	1,819	529	515	575

□ 주요 유관기관 현황

- 행정기관 : 차관등록사업소
- 차 출 소 : 1개소(낙성파출소)
- 소 방 서 : 1개소(군교소방파출소)
- 학 교 : 2개소(낙성초등, 낙성고등학교)
- 우 체국 : 1개소(군교우체국)
- 기업체 수 : 8개 업체
- 노 인 접 : 8개소
- 금융기관 : 1개소(낙성단위농협)

II. 판교 마을 개발의 문제점

1. 판교 신도신 건설에 관한 논란

판교 지역은 76년 남단녹지로 고시되면서 그린벨트나 다름없는 개발 계획을 받아왔다. 전동 증·개축도 어려워 낡은 절들이 밀집해 있는 상태이다. 성남시는 이미 판교 개발 기본 구상을 끝냈으며 저밀도 개발로 폐적한 환경을 가진 주거단지와 펜차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결정이 나지 않아 주민들은 그 동안 막연한 기대만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발 의사를 흘리면서 판교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1998년에는 성남시에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지역을 향후 주거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예정용지로 결정하였다. 개발예정용지는 모두 210만평이고 이 중 주거용지가 190만평이고, 산업용지가 20만평으로 설정하였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발용지로 지정은 개발을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건교부의 신도시 계획안

건교부에서는 판교를 선진국 전원도시에 손색없는 국내 최저밀도의 폐적한 주거단지로 전설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거단지의 절반

이상을 단독·연립주택지로 조성하고 아파트도 10층 이하 저층반으로 건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으로 10만 평에 해당하는 절보통신 관련 벤처단지를 조성하여 벤처기업, 연구소, 창업지원센터 등을 입주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지의 24%는 공원·녹지로 만들기로 했다. 관교부는 이곳이 도시계획법상 개발 예정지로서 2002년부터는 주거단지로 개발이 허용돼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계획도시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현재 침체된 건설경기를 진작시키고 수도권의 주택 수급의 안정화를 해결하기 위해 관교 마을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즉 정부측인 전교부의 개발 논리는 저밀도 천원형의 신도시를 계획한 것이지만 중소 단위의 소규모 개발로 전국적인 건설 경기의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표면적인 개발 논리의 내면에는 실제로 개발부 담금을 확보하여 용인 등지의 수도권 남부 지역의 도로나 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 경기도의 지식기반 집적지안

경기도와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관교를 벤처단지뿐 아니라 연구소, 대학 등 연구·개발 기능을 갖춘 첨단 지식기반 집적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규모가 최소한 60만평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프랑스·일본은 물론 대만·중국 등 주변 경쟁국도 국가 차원에서 벤처단지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대규모 벤처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개발 예정지 282만평 중 100만평 이상을 벤처타운으로 조성하여, 도내 곳곳의 벤처기업을 입주시켜 이 지역을 첨단산업이 집적된 천원형 주거 복합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전체 개발면적 중 35만평을 주거용지, 10만평을 상업·업무용지, 65만평을 벤처단지 등으로 개발해 2만 4,000여 가구 7만 2,000여 명을 입주시킨다는 개발 구상안을 만들어 정부와 협의하였다.

경기도는 판교 지역을 주거 위주의 기능보다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첨단산업이 집중적으로 입주하는 환경 친화적인 벤처 및 주거 복합단지 형태의 전원형 자족도시로 개발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경기도가 첨단산업의 유통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주거 전용도시로 설계되는 경우 세수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폐단 때문이다. 나아가 경기도의 경우 교통에서 발생되는 문제나 교육 문제가 해결 과정으로 부상되어 특보다는 실이 크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의 유통을 강조하고 있다.

• 성남시의 입장

성남시에서는 판교 마을에 대해 1999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다시 이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판교개발 일부 등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회가 지연된 관계로 작년 12월 30일에 건축법상 최종적 으로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2001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동안에 개발방안을 확정짓기로 하였다. 이러한 계획 일정에 따라 판교 마을은 개발과 생태보존의 입장 차이로 논란의 여지를 불러일으켜 각 기관이나 개발 지역의 당사자들이 견해를 달리하는 현상이 야기되었다.

• 서울시의 판교 신도시 건설안

판교신도시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핵심적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다. 주택공급은 서울 도심에서 40km 외곽에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신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교통분석과 함께 광역 교통대책에 관한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과 판교지역 교통대책은 승용차 위주의 서울 접속도로 건설이 아니라 철도 위주의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고려 사항이다.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의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시장 자문기구인 도시 정책회의 위원들 명의로 반대 결의문을 제작한 데는 그대로 개발될 경우

일산, 분당과 같이 서울의 베드타운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교통 대안이 예상되는 등 염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교통분석과 함께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전제로 신도시 건설이 추진돼야 하고, 지금대로 강행될 경우 서울 내부의 심각한 교통혼잡에 따른 통행료 징수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할 정도로 강경하다.

• 분당시민의 입장

유인 수지·죽전지구, 팔주 등의 난개발로 포위되고 있는 분당 주민들에게는 신도시가 또 들어설 경우 수도권에서 일급 주거지역의 인기를 누려왔던 분당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 때문에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분당시민의 입장에서는 생태계를 유지하고 녹지지대를 파괴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환경시민단체의 반대안

원래 판교 개발 지역은 1976년 5월 수도권 남단 녹지로 지정되었으나 신도시 개발을 염두에 둔 성남시가 98년 관설교통부로부터 개발 예정용지로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성남 시민모임 등 수도권 지역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도권 살리기 시민 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신도시 구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판교 지역은 수도권 남부권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생태축이며 서울의 재생을 막아주는 발파제라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판교의 신도시 건설에 반대하고 있고 한편으로 수도권과 국토의 불균형 개발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나아가 판교가 개발될 경우 교통난도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 판교 마을 주민의 입장

판교 마을은 76년 녹지로 지정된 뒤 각종 토지이용 규제로 20여 년 동안 지붕 하나 제대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재산권 피해를 보아 왔다. 주민들은 "수도권의 질서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판교 신도시 개발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나서 토지를 매입하든지 건축규제를 해제하라"고 주장하여 대립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판교 마을의 주민들은 이러한 사정을 절부 부처에 호소하는 소극적인 투쟁에서 단체로 항의하여 시위운동을 주도하는 형태로 구사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2000년 10월 12일 낮 낙생농협 앞 바탕에서 시위 운동을 펼친 사건은 이러한 사태의 일단을 반영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피켓과 머리띠, 어깨띠를 두른 주민들은 "판교 지역의 건축 제한을 지금이라도 풀어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이 농민인 이들은 '20년이 넘는 규제에 남은 것은 빚더미 뿐'이라며 '전중 행정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 조건에 대한 미온적인 정부나 경기도의 태도에 불만이 누적된 판교 마을 주민들은 판교 신도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시위 운동을 계획하면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2001년 8월 26일 판교개발추진 위원회 위원장 김대진은 "판교신도시 개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 달간 장기 집회를 갖는다"고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집회의 세부 계획은 판교동 낙생농협 옆 광장에서 주민 1,200명이 참여하는 판교지구 개발화점 유보 규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경기도청, 과천 정부종합청사 등에서 번갈아가며 한 달간 장기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판교개발추진위는 지난 6월 개략적인 개발계획이 나온 뒤에도,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항의하는 한편 26년 간 개·보수도 못하고 사는 판교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침희를 통해 알리겠다는 부수적인 방침도 밝혔다. 나아가 판교 개발추진위는 "60만평의 벤처단지 개발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기도지사는 개발 자연의 책임을 지고 사퇴

할 것” 등도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98년 5월 1일 전설교통부가 개발 예정용지로 승인해 주었다가 장관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개발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관교는 성남시의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주민들의 분노는 또 다른 곳에도 있었다. 남단녹지에서 보존녹지로 계속 끊이면서 주민들은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었지만, 농수산물 견사소, 체육소 등 일부 투자기관은 9개나 들어왔다는 것이다.

관교 주민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관교 개발추진위원회의 의견 개진과 활동에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개발추진위는 “주민 권익을 배제한 어떠한 탄상 물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에 우선하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관교 개발의 자연으로 인한 정신·경제적 손실에 관한 사항이다. 개발추진위 대책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중 “개발 자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들이 안고 있는 부채 550억 원을 탕감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관교 지구는 도시의 기본 계획상 주거지역이므로 이 원칙을 고수하여 주민의 권리가 우선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각 부처 간 의견이 대립된 것은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충돌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설교통부인 정부와 성남시는 개발 부담금과 세수 확보를 고려하여 관교 바울의 경우 저밀도 주거천용 공간을 구상하고 있다. 반면에 경기도는 지역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여 면적타운의 형태로 개발하여 자족도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논란 줄 분담 및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하여 교통과 도시기반 모두 유리하고 서울과도 가까운 관교 신도시 개발은 장기적으로 건설 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설득력을 확보하였다. 나아가 수도권 남부 일대 아파트의 분양을 개선하는 간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에서 드러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1년 10월에 관교 개

발이 확정 발표되었다. 개발의 기본 계획에 따르면 판교는 전체 280만평 중 100만평을 택지로 개발하고 1만 9,700가구의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계획 인구는 5만 9천명, 인구밀도는 ha당 64명으로 분당이 198명, 과천의 경우 274명, 평촌이 329명임을 감안하면 낮은 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벤처단지는 10만평 규모로 기업 1천 개를 수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개발 이익 6천억 원을 투입하여 판교-옛골(2.3km), 백현-미동(2.6km), 판교-분당(4km)의 도로 천연 등 기반 시설을 구비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은 난개발에 따른 수도권 과밀현상이나 교통체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판교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입장은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표출된 것이지만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판교 주민의 권익이 보장되는 선에서 조정되어야만 한다.

2. 판교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성남의 판교 일대 신도시 건설의 문제점은 자족도시의 기능을 상실한 흡상도시로의 전락이라 할 수 있다.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운중동 일대 280만 평에 들어서는 판교신도시는 서울도심에서 20km, 시 경계에서 4km 거리에 위치해 주거와 고용이 동시에 이뤄지는 자족도시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일산이나 분당과 같이 서울의 베드타운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직장인들이 판교에 주거지를 마련, 통근하는 비율이 70%(일산 65%, 분당 60%) 수준으로 예상되고 승용차 분담률은 42% 수준으로 판촉돼 강남은 물론 도심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판교지구 개발은 성남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주민들은 판교가 개발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제기하고 있다.

- ▶ 장기간의 개발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 해소

- ▶ 개별적인 난(難)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 추진
- ▶ 철단산업단지와 벤처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 수정·중원구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가속화시켜 균형적인 지역발전 유도
- ▶ 외국인의 투자환경 조성

들의 조합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토지이용 규제완화로 용인 광주 등 서울 근거리의 준농립지역에 대한 민간 부분의 무계획적인 개발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따라서 판교 지역의 개발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면서 판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절하게 해결되는 선상에서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판교 신도시는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용적률이 낮은 전원도시로 개발된다.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천만원이 넘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보면 판교 신도시 개발지역은 서민들의 주택 수급과는 거리가 먼 귀족도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이 많다. 환경정의시민연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판교에 고급 주택을 건설한 효과가 수도권 전체 지역의 주거 수준 향상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판교는 결국 서울의 부유층만을 위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보면 판교 주민의 권리가 우선되거나 적어도 개발 이익이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판교 마을의 주민에게 돌아가야만 한다는 주장은 공염불이 될 소지가 있다.

지금까지 신도시로 개발되었었던 일산·분당에서 일어난 현상이지만 신도시가 건설되면 주변에 향락업소나 유흥시설 등이 침증될 소지가 있다. 자치단체에서 세수 확대를 위해 난개발을 부추기거나 독인하는 한편 임자를 의로비가 가중되면 이런 폐단은 실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판교는 일산이나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유흥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판교 신도시 건설로 야기되는 교통问题是 수도권의 교통난과 직결되어 있다. 현재 분당의 개발 후 출퇴근에 발생하는 교통전쟁을 감안하면 판교

마을의 신입주 인구가 추가된다면 교통 지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 후회진 상황이다. 6개 간선도로를 통한 서울 진입은 현재 시간당 운전 속도가 40km에서 30km로 감소될 것이 예상되며 교통량으로는 1.6%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철과 도로망 등의 확충과 지역 간선도로의 편설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대책은 판교 마을의 주민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선상에서 마련되어야만 한다. 주변 녹지 1,200만평에 대하여 토지 거래허가제를 실시하여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거래 동향을 수시로 시행하여 투기적 거래자는 국제청에 통보하여 강력하게 조처해야만 어느 정도 투기의 양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환경 보전 대책은 서울시의 생태 환경과 긴밀하게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성남시의 공동 관리사이고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청계산 등 광역 녹지축과 판교 기구내 녹지를 연결하여 녹지율을 국내 최고수준이라 할 수 있는 24%를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판교의 녹지가 계속 유지되어 수도권의 과도한 발전을 억제하면서 생태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부유한 계층들이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그들의 문화를 향유하는 귀족형 도시가 아니라 현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유지되어야만 한다. 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신도시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과 채소나 화훼 작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판교 마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되어 공생할 수 있는 공간 구조가 철저하게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III. 판교 조사 마을의 지역 특성

1. 면적 구성과 경지 소유의 현황

판교동의 총면적은 8.90㎢으로 성남시 전체 면적 규모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경지가 3.20㎢이고 임야가 3.80㎢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0.29㎢이며 기타가 1.61㎢이다. 경지 면적은 36.0%, 임야의 경우 42.7%, 대지는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산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에 경지 면적은 험소하고 주택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미미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녹지의 경우 자연 녹지 21%이며 보전 녹지가 79%를 차지하여 서울 근교의 자연 녹지 생태축을 형성한 것이 사실이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상적인 형태라 할 수 있지만 판교 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나치게 규제되어 왔던 문제점이 내재된 일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지나친 규제로 인해 청신적으로 피해에 노출되었고 경제적인 원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모순점이 표출되었다.

판교 마을에 대한 토지 분배와 구조나 토지 소유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사유재산 보호나 개인의 사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판교 마을의 토지 소유에 대한 현황을 유추하여 접근하기로 한다.

판교 지구의 토지 소유자 현황 면에서 보면 6,332명의 소유자 중 판교 내지인은 2,890명이며 외지인의 토지 소유자는 3,422명으로 나타난다. 토지 소유 현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회 건설교통위 이윤수 의원이 공개한 「성남시 판교동 등 9개 동의 토지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신도시 예정인 판교 마을의 토지 중 47%는 외지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성남시 판교 일대 9개 동(洞) 토지의 약 47%와 이 지역 그린벨트의 약 82%를 서울 등지에 거주하는 외지인들이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교동·백현동·삼평동·이배동·금곡동·운중동·대광동·석운동·하산운동 등 9개 동의 그린벨트 236만 7천 여평(232필지) 가운데 195만 8천 여평(150필지)을 외지인이 소유하여 82.7%를 장악한 상황이다. 특히 이 지역 그린벨트는 서울 양천구 거주자가 25만m²을 소유하는 등 상위 소유자 10명이 모두 외지인으로 밝혀졌다.

지역 전체의 토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내지인이 52.5%, 외지인이 47.5%로 내지인의 소유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만m² 이상의 대규모 토지는 전체 399만 944m²(89필지) 가운데 외지인이 52.8%인 210만 3,728m²(42필지)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성남시 거주자로 보유 면적이 61만 6,286m²이며 외지인 중 가장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과천시 거주자로 공시지가만으로도 339억 원(2만 2천m²)에 이른다.

전반적으로 판교 마을의 집중 개발은 자기 전통을 지켜오면서 공감적인 유대관계를 설정해 온 마을 구성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변 그린벨트 등의 해제 가능성을 노린 외지인에게 이익을 선점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판교 마을은 서울 등 외지의 큰손들이 대규모로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판교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2. 벼 재배 농가의 토지 소유 상황

판교 마을의 관교동 1·2·3동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4명으로 조사되었다. 경지의 총면적은 67,660㎡이며 자기 경지에 기초하여 농사에 종사하는 자작농과 자소작농, 타인의 토지를 결착하여 지대를 차분하는 순소작농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판교 조사 마을의 특징은 자기 토지에 기초한 자작농보다는 소작농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전체 경지 면적 중 36,840 ㎡의 토지가 경작자와 소유주가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약 54%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연안 이씨와 순천 김씨의 문중 형태의 토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판교 마을의 경우 연안 이씨나 순천 김씨의 공동체적 소유인 문중 토지 존재는 이 마을에서의 위상을 짐작케 하는 단초라 할 수 있다.

경작 형태의 측면에서 보면 판교 조사 마을의 경우 2번의 김씨 농가와 11번의 이씨 농가는 자작농이라 할 수 있다. 관교동에 거주하는 2번 농가는 경작지의 규모가 2,380㎡으로 약 720평에 해당한다. 하운산동에 거주하는 11번의 김씨 농가는 1,157㎡으로 소규모 자영농가임을 알 수 있다. 판교 마을의 자작농은 소규모 형태의 경작 면적에 의존하여 농사에 종사하는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경우 농사로는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단지 주식을 위한 생산에 만족할 정도로 벼 생산을 통한 수입 증대 등은 바랄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 따라서 주식 이외의 생활비는 재무를 하거나 부업소득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도표 7: 관교 마을 빠·재배 농가의 토지 소유 현황(관교 1·2·3동)

번번	재배농가주	토지면적(단위 : m ²)	소유주
1	김○○	2,296	태○○
2	김○○	2,380	
3	김○○	2,922 1,412 6,057	이○○ 강○○
4	박○○	1,468 3,366	김○○
5	박○○	370 2,145	이○○ 엄○○
6	이○○	1,107 7,470	한○○
7	이○○	2,502 3,170	나○○ 홍○○
8	이○○	2,235	정○○
9	이○○	4,311	민암이씨
10	최○○	671 3,068	최○○
11	이○○	1,157	
12	김○○	2,247 1,888 4,529	강○○ 송○○
13	이○○	2,651 1,341 1,029	백○○ 오○○ 이○○
14	배○○	2,363 2,793	호천김씨
총계		67,560	

관교 조사 마을 14개 농가 중 자소작 농가는 6개 농가를 차지하는 것으로 42%에 해당한다. 관교동에 거주하는 3번 김씨 농가의 경우 자신이 소유한 경지는 분산된 것이지만 6,057m²(1,832평)에 빠를 재배하는 한편 소유주가 다른 소작지 4,334m²(1,311평)의 경지를 소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운산동에 거주하는 4번의 박씨 농가는 자신의 경지가 3,366m²이고 1,468m²의 경작지는 소작하는 형태이다. 6번 이씨 농가는 관교동에 거주하는 자소작농으로

비교적 전형적인 중농의 농가임을 나타낸다. 자신의 경작지가 7,470m²인 반면에 소작하는 경지는 1,107m²으로 소작 농지가 적기 때문이다.

10번 희씨 농가의 경우 자작의 경지가 3,068m²인 반면에 소작지의 규모는 영세한 것이어서 자작 경지에 의존하는 형태이다. 판교동에 거주하는 12번의 김씨 농가는 자작 경지가 4,529m²인 반면에 소작하는 경지는 강씨 소유의 2,247m²의 경지와 송씨 소유의 1,888m²의 경지를 각각 소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4번 농가의 경우 순천 김씨의 문중 경지를 소작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작지 2,793m²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논농사에 종사하는 자소작 농가의 경우 규모면에서 보면 3번 농가는 10,391m²으로 약 3,143평, 12번 농가는 8,664m²으로 약 2,620평, 6번 농가는 8,577m²으로 약 2,594평을 경작하는 것으로 집계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판교마을에서 보면 중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벼농사에 의존하는 수입 외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판교 마을에서 나타나는 소작농가는 14개 농가 중 4개 농가로 28%를 차지하고 있다. 차지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18,229m²으로 26%에 해당한다. 5번 농가의 경우 하운산동에 거주하는 박씨의 경작지는 2,515m²으로 약 760평에 해당하는 영세농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판교동에 거주하는 7번의 이씨 농가와 9번의 농가도 순소작농의 형태로 나타난다. 7번 농가의 경우 나씨 소유의 2,502m²과 홍씨 소유의 3,170m²의 경작지에 비를 재배한다. 9번 농가는 연안 이씨 문중의 경작지를 소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경지 면적은 4,311m²으로 1,300여 평의 규모이다. 13번 농가는 백씨 소유 2,851m²의 경작지와 이씨 소유 1,039m², 오씨 소유 1,841m²의 경지를 소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작하는 총경지 면적은 5,731m²으로 약 1,733평을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농경지의 영세성과 농민층의 상대적 빈곤화가 상대적으로 실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제시대 농가 1호당 평균 경작면적이 1919년 1.69㏊에서 1935년에는 1.60㏊로, 1945년에는 1.07㏊로 감소하였다. 농업경영의 형태면에서 보면 전 농가의 72.1%가 1정보 미만의 경작지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관교 마을의 농업 실태는 3번 농가를 제외한 1정보 미만의 나머지 농가는 영세적이고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 농민 계층이 분해되어 노동자나 일노동자층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상황을 고려하면 전근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지대의 의존도가 약화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관교 마을의 경우 선도시가 개발되어 도시화가 본격적 으로 진행되기 이전 상황에서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열악하여 농업을 생산수단으로 삼아 생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V. 판교 조사 마을의 실태

1. 조사 마을의 개황

표면적인 조사와 계량화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판교 조사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형태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판교 마을의 내부 사정과 세부 사항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개발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당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계로 인접 지역의 상대적 발전에 대한 동경이나 불안감들이 일정 부분 작용하면서 내재적인 불만이 시위운동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본적인 사항을 먼저 조사하여 전체적인 개황을 파악한 후 조사 대상 가구를 선정하여 내부 실태를 짐작해 보는 방법론을 밝히기로 하였다. 특히 판교 신도시 개발 지역의 전체 구조는 차후로 미루고 이번의 조사는 판교의 3개 풍에 집중하였음을 밝혀둔다.

• 판교 1동

판교 1동의 전통적인 고유 지명은 너더리이다. 마을 옆에 판자로 된 널다리가 마을의 인상적인 특성으로 부각되면서 지명화된 것으로 보인다. 널다리란 마을 앞을 흐르는 운중천에 넓은 판자로 다리를 놓은 데서 비롯되었다.

고 한다. 널다리가 너더리로 지칭되면서 마을 이름으로 고착되었고 한글식인 마을 이름이 한자화된 것이 판교라 할 수 있다.

판교 1동은 총 337세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세대 구성원이 875명으로 판교 3개의 풍 중에 제일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2001년 10월을 기준으로 너더리 마을은 일반 주거단지 279세대이며, 주상 복합단지 6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형태에서 보면 너더리 마을은 농촌지역의 전형적인 농가와 주상 복합지역이 혼재된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계로 농촌에서 드러나는 생활 방식이 나타나며 일부 상인층이 이를 기반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너더리 마을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상인층이나 자영업자가 대부분이고 일부가 농지를 이용하여 논농사에 종사하거나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너더리길의 상가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판교 마을의 너더리길은 주상 복합지역과 관공서가 위치한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주상 복합지역이 밀집한 너더리길 주변은 관교파출소 및 우체국, 소방파출소, 낙생단위농협 등의 주요 행정기관이 분포되어 있다. 반면에 너더리길을 따른 복합 상가의 구성을 보면 대략적으로 총 79개가 분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너더리길은 판교 마을 개발을 염두에 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판교 마을의 단면을 나타낸다. 전체 복합 상가 중 부동산이 34개를 점유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의 단면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식점으로 13개의 업소가 영업 중에 있다. 판교 마을의 기본 필수품을 공급하는 슈퍼가 5개소이고 약국이 2개소이며 정육점이 3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용소가 2개소 문화의 단면을 나타내는 베디오 대여점도 2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업소가 18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관계로 판교 마을의 1동에 위치하고 있는 너더리길은 판교의 중심지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 구성을 이루고 있는 행간이다. 구도로에 의존하여 형성된 너더리길은 도시화의 진행에 따른 문제점의 하나인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판교 마을은 76년 남단녹지로 고시되면서 그린벨트나 다름없는 개발 계획을 받아왔다. 너머리 안길의 경우 건물 증축이나 개축도 어려워 낡은 집들이 빌집해 있는 상태이다. 이 지역의 주택은 1960대나 70년대를 연상시키는 일자 형식의 흙집 형태인 가옥 구조를 보여준다. 기와집이 주종을 이루는 가옥은 뒤생이나 칭결 상황이 형편 없고 건축물의 규모가 심한 것이어서 보수가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이었다. 낡고 낡은 담장은 무너질 형편이며 가옥의 마당은 좁고 주민의 생활 공간인 가옥 내부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제대로 된 대문의 형태를 구비한 가옥이 아니라 세대별 구분도 힘들 정도다. 또한 지붕의 경우 비닐이나 널빤지를 올려놓아 임시방편으로 처리한 주택도 상당수에 해당한다. 한 가지 특이한 일면은 지붕의 형태가 기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돌을 재료로 한 너와지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판교 2동

판교 2동은 광암(廣岩) 마을인 너븐바위로 지칭되며 취락 현황은 156세대로 세대원들은 404명이다. 이 지역의 주거 형태는 일반 주택단지 166세대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판교 2동은 하운산동과 판교동의 경계를 이루는 누에 같이 뻗은 산 끝자락을 뉘에머리집이라는 고유한 명칭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느티나무길은 연안 이씨의 선대에 심었다는 느티나무에서 연유하는데 이것은 판교 2동이 전근대 조선시대 이씨 집성촌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너븐바위는 연안 이씨가 최초로 정착한 곳으로 추정되며 판교 마을 일대가 연안 이씨 사패지라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세대원들의 대부분은 노지에 벼 및 전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쌀·보리·밀·콩 등의 곡식 이외에 오이·배추·무·고추 등의 소채를 생산하여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한다. 여분의 생산물을 내다 팔아 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가 전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량 생산의 복합 영농은 미흡한 자본력을 길안하면 판교 마을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기존에는 한우·젖소·돼지·닭 등의 사육이 번창한 것으로 보이지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대부분 위축되어 근교 농업적 특색만을 나타낸다.

관교 2동 앞들은 가내바다들로 지정되는데 이곳은 곰장과 양계단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노래방과 자동차 수리점 등이 위치하고 있다. 너른바위길과 관교 안길이 바주치는 지역에는 주로 농가 형태의 가옥이 위치하고 있으며 앞들에는 소규모의 밭이 있다. 이 지역의 가구도 앞에서 지적한 너더리안길의 가옥 실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개발제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관교 3동

관교 3동은 88세대이며 세대원은 278명으로 가장 적은 것이 특징이다. 79년도 고속도로변 퀴라구조 마을을 조성하면서 개나리를 일괄적으로 석재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개나리 마을이라 지칭되기도 하였다. 주거 형태의 측면에서 보면 91세대의 전원 주택단지가 주축이 되어 있다. 특히 개나리 마을의 거주자들은 자영업 종사자나 외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다.

관교 1·2·3동의 의형적인 상황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지만 내부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보전녹지에 포함된 관계로 토지 이용 행위나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이런 관계로 관교 마을 내부는 1960대나 70년대를 연상케 하는 가옥과 생활 형태가 잔존하는 곳으로 상대적으로 도시화된 주변 지역과 형평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비위생적인 화장실이 즐비하고 관교 마을의 주민을 위한 문화 시설이 낙후되어 휴식 공간이 조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활량하고 쓸쓸하게 펼쳐진 주변 경관과 낙후된 주택이 인상적으로 펼쳐진 관교 마을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관교 마을 주민의 필연적인 요구가 기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판교마을의 전통적인 주택



판교마을의 문화단면



판교마을의 교육현실



판교마을의 삶의

2 조사 대상 가구의 실태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소득 문제가 갈수록 불평등해 지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고려하면 판교 마을 가구당 평균 소득은 열악한 것으로 형편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분당과 수지 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되어 도시화의 이익을 추구한 반면에 미개발 지역으로 소외되어 청신적인 고통이 누적되어 왔고 이러한 불만이 시위운동으로 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삼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초점을 두었고 특히 개발 이후 전면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 종사자에 관해서도 조사하였음을 밝힌다.

◆ 사례 1 - 자영업자

사례 1은 너더리길에 위치하여 슈퍼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관한 조사 자료이다. 세밀한 자료를 입수하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윤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례 1의 경우 4인 가족으로 전세를 살며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이다. 사례 1의 가구는 슈퍼마켓에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성남에 자신이 소유한 집의 월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임대업이 주요 소득원이라 할 수 있다. 슈퍼를 운영하여 하루 평균 매출이 5만원 정도이지만 반면에 부업과 임대업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비의 경우 아들은 군대에 복무 중이고 대학생인 딸만을 대상으로 학산한 것이다.

전국 도시지역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3·4분기 중 273만 4,900원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판교 조사 대상 가구 중 사례 1은 상황이 낳은 편에 속하는 것이다. 사례 1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485만원이고 지출액은 222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수입의 측면에서 보면 슈퍼를 운영하는 것보다 임대업에 의한 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에 도시형 자영업자의 전형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출비의 측면에서 보면 문화활동비 등의 지출이 현저하게 적은 반면 교육비나 결조사비 등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전국적인 도시지역 가구의 경우 소득이 많은 상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53만원인 반면에 하위 계층의 소득은 100만 6,000원이다. 특히 상위 10%의 월 평균 소득은 698만 4,000원으로 높아난 반면에 하위 10%의 소득은 76만 5,000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소득증가율은 소비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며 보건의료비나 세금 등의 지출이 크게 늘어 실질적인 소득은 위축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판교 마을에서 조사한 자영업자의 경우의 소득적 수준은 중상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도시지역 가구와 편차가 적은 형태로 나타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판교의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있

음을 짐작케 한다.

도표 8 : 자영업자의 농별 수치계산표

항 목	수 급	지 출	비고
급여(직업)	48만원		하루 예산 5만원
부임소득	300만원		
기타수입	140만원		임대료 수입
주거비		30만원	전세 1,000만원
주식비		20만원	
납방 및 연금비		2만원	연탄 사용
미류비			
교육비		60만원	대학등록금 포함
공과금 및 세금		30만원	토지세 100만원
교통비		30만원	
의료비		10만원	
회식 및 투숙비		30만원	
경조사비			
저축			
통신비		10만원	
문화생활비			
기타 관비			
총 핵	425만원	222만원	

▶ 사례 2 - 자소작농가

사례 2는 관교동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의 자소작 농가에 관한 조사 내용이다. 자신의 소규모 경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한편 일부는 소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논농사 규모가 영세농적인 성격이어서 농사가 생산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화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경작 면적은 2,793㎡으로 약 844평과 700평 정도의 토지를 소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년 소득은 240만원 정도의 농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200평의 마지기 당 3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셈이다. 그러나 1년 농사 지출비가 180만원으로

75%가 경비로 지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농사 수입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1정보 미만의 경작지에 논농사를 하는 것이어서 영세농적인 성격을 탈피하지 못한 상황이다.

기본 생활비는 부업 소득, 자녀의 봉급으로 유지하는 형편인데 부채가 1억 5천만을 암고 있기 때문에 채무 변제가 어려워 계속 빚을 치는 실정이다. 현재 금리 7부 5리로 추산하더라도 1달에 평균 1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만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현재는 개발을 기다려 채무를 청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형편이다. 사례 2의 경우 월 평균 소득액은 270만원으로 하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출의 내용에서 보면 통신비 세금 등의 실질적인 지출이 크게 늘어 가계 경영에 압박감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세적인 농업경영으로 인해 판교 마을의 경우 소작료를 부담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형편이라 할 수 있다. 이 농가의 경우 800평을 소작으로 대여한 후 2가마니의 소작료를 거두었고 자신이 소작하는 경우 300평당 1가마니의 소작료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작료에 해당하는 지대는 1/3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대의 의미가 악화되어 전적으로 소작료의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소작료의 비율이 낮은 것은 실제로 소작인이 적은 반면 농사할 수 있는 토지 소유주가 외지인이기 때문에 직접 경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판교 마을에 농업 종사자의 경우 자본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농민층의 분체 과정을 이행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 지대로 파악할 수 있다. 270만원 정도의 수준이고 지출액은 257만원으로 문화활동비에 대한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 지출액 중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주거비나 주식비 등의 지출이 낮은 반면 부채에 대한 비용 부담이나 통신비나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가계를 유지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논농사에 대한 수입은 800평 규모에서 1년 소득액이 240만원 정도인 것에 반해 180만원을 경비로 지불하는 것이어

서 농가 수입의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관계로 조사 대상자인 농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정부의 수해가 정책 등에 관한 비판이 심각한 상태였고 판교 마을의 농민에 관한 실태는 경제적인 요인과 맞물려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도표 9 : 자소작농가의 물품 수지 계산표

항 목	수 입	지 출	비 고
농가소득	20만원(면 240면)		농사수입
부업소득	250만원		자녀수입을 추가
기타수입			
주거비			자기 거주
주식비		30만원	농사로 해결
난방 및 연료비		10만원(100면)	
교통비		60만원	등록금 포함
급여금 및 세금		20만원	총합 소득에 20만원
교통비			
노약비		15만원(180면)	
비료대		30만원	
급조사비		10만원	
저축			
통신비		30만원	전기통신 핸드폰 소유
부세 미자		100만원	1억 5천만
자동차 유지비			
기타 침비			
총 액	270만원	257만원	

• 사례 3-순소작농가

사례 3은 판교동에 거주하는 3인 가족의 순소작농가에 관한 표본 조사이다. 연안 이씨 문중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확한 수입과 지출액을 축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추정하여 접근하였다. 소작하는 경지 면적은 1,300평으로 200평 당 월 5가마니 정도를 생산하는 것으로 계산

하면 19가마니를 생산한다고 할 수 있다. 논농사에 의한 수입은 1년 기준으로 20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또한 600평의 팔농사를 경영하여 배추와 고추 등을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부수입은 약 200만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으로 토끼 10여 마리를 사육하고 닭과 오리 등 50여 마리도 기르는데 이것은 가족원의 식용으로 대체하는 것이어서 일정 부분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수입액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반대로 월별 평균 지출액을 산출하여 역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을택했다. 도표 10에서 나타나는 소작농 가의 월별 지출 평균액은 65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 대부분으로 문화활동비나 통신비 등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지출액을 최소화하여 합산한 것이다. 따라서 월 평균 수입액은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의 수준일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국적인 도시지역 가구의 경우 하위 계층의 소득은 100만 6,000원으로 조사된 반면에 도시지역 하위 계층의 가구 중 하위 10%의 소득은 76만 5,000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판교 마을 순소작농가에 해당하는 사례 3₂은 실제로 전국적인 도시 가구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노출되어 영세농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논농사의 수입에 의존도가 약화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부업을 통한 수입액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임일에 종사하는 임노동자로 천막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판교 마을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자들이 판교 마을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되는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경작지와 기옥을 상실당하고 한편으로 삶의 공간에서 축출당하는 판교 마을의 거주자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판교 마을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한 소외당한 농업자들의 권리나 생존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편집위원

천화숙 김진호 서승갑 서태원 김택복

집필진 소개

천화숙 : 경원대 역사·철학부 교수
서태원 : 경원대 강사
김택복 : 국립문화재연구소·㈔능민속연구원
서승갑 : 전국대 강사

발행일 : 2001년 12월 31일
발행처 : 삼남문화원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6-2
전 화 : (031) 781 - 1020, 2802
팩 스 : (031) 709 - 5246
인 쇄 : 실문민해

이 책은 국비와 도비 삼남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